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0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2월 10일(음력 11월 13일) 수요일(주간)


•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온전한 無我 실천이 참수행

14 선지식-법산 스님



"산의 부처보고 참된 길 발견"

9 도반의 향기-염일순



"그댄 이미 부처를 이룬것이다"

13 함께가요 설법전-무비 스님



"환경운동 위해 화엄경 이해해야"

11 김지하 시인 광주서 강연

## 법관 종교차별 안된다

### 대법원, 개정규칙 공포

행정부 공직자에 종교중립 대한 시행령 · 교육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부도 법관 종교중립을 명시한 행동강령을 시행했다.

대법원은 12월 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 ·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규칙 제5조(특혜의 배제)에는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그동안 검찰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게 돼있지만 법관은 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법관행동을 지침하고 행동강령관을 둬 처벌이 가능한 행동강령은 이번 개정까지 종교중립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종교중립을 명시한 법관윤리강령은 권고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법관 행동강령 개정으로 법관 종교차별 행위 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법관은 신고된 내용 심사 후 징계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법부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교육 및 신규고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관부서인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종교중립 법제화에 맞춰 법관 및 법원공무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종교이유로 편파 · 불공정 직무가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11월 5일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을 공포 · 시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로봇에게 불성이 있다?

## 보일 스님 '로봇의 불성 연구' 논문 화제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선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유정, 무정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췄다는데(一切衆生悉有佛性 有情無情悉皆成佛) 선사는 왜 없다 했을까? "개에게는 왜 불성이 없는지"를 묻는 스님에게 선사는 "그것은 중생심(분별, 業識) 때문"이라 말했다. 유명한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화두다.

'개'의 불성을 묻던 스님이 오늘날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대는 기계문명의 사회다. 사람들은 자연보다 인공(人工)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익숙해져 가는 요즘이다. 스님은 여전히 '개'의 불성을 물었을까?

1300여 년 전 '개'의 불성을 물었던 스님이 세월을 넘어 '로봇'의 불성을 물어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주최한 제4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대교반)의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라는 논문이 화제다.

무정물인 로봇의 불성에 의문을 갖고 논문을 전개한 스님은 "인간의 지능을 단 몇 십 년간의 연구로 모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인간의) 더 큰 오만은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라 말했다. 과연 로봇에게는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 #불성은 본래 '中道'

불성은 부처의 '본성(本性)' 또는 '인(因)'을 뜻한다. 여래장(如來藏) 계통의 대승경전에서는 불성을 마치 중생에 내재한 실체로 해석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나, 불성은 그 성품이 공하다. 동시에 부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했다. '모든 것'에는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중생 뿐 아니라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이름 없는 초목 등 마음을 갖지 않은 산천초목이 모두 포함된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인공지능로봇은 무정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로봇을 만들지만 '불성'을 따로 만들어 넣지는 않았다. 초목성불(草木成佛)을 주장한 길장 스님은 무정에게도 불성을 인정한 이유를 "유정과 무정사이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공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운문 선사는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무정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열반경>은 불성을 '중도(中道)'라 설명했다. 결국 불성은 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춘 것이다.

#### #로봇을 로봇이라 보는 것이 '相'

영화 에이아이(A.I. 2001년)의 주인공은 로봇 데이비드다. 인간에게 버림 받은 데이비드는 피노키오처럼 마법의 힘으로 엄마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여행을 한다. 소원을 들어줄 파란요정을 찾는 과정이 53선지식을 만났던 선재동자와 비슷하다.

감정을 가진 로봇 데이비드가 등장하는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로봇은 로봇일 뿐이라 한정 짓는다. 로봇을 로봇일 뿐이라 단정 짓는 인간의 편견이 바로 상(相)이다.

#### #무심은 마음의 내용이 '無'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중 하나가 자아의 유무다. 자아는 한 개별자가 자신에 대해 경험하고 반성하거나 의식하는 능력이나 속성들에 관한 개념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1995)'에서 주인공 쿠사나기는 수시로 몸을 바꾼다. 이때 뇌가 갖고 있던 것은 모두 새 몸의 뇌로 다운로드 되고, 이를 통해 쿠사나기는 자아정체성을 유지한다. 결국 인간의 자아는 '경험'과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한자경 교수(이화여대)는 "자아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보의 차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다른 것을 보는 눈은 스스로는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보일 스님은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자기인식'이라 정리했다. 스님은 "자기인식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의 자기인식은 불가능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무심(無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닌 마음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心'

보일 스님은 "수행은 무심이면서 심(心)이라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자기인식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수행은 논리적이나 개념적인 사유로서 행해질 수도 없고 논리나 개념적 사유들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봇이라면 계산상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까?

모순적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걸음 내딛는 발심(發心)은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정은 애초에 논리와 언어가 단절되는 지점으로 정보가 생산되는 것이 아닌 소실되고 제거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마음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 #사람만이 할 수 있는 '修行'

보일 스님은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로봇의 불성을 인정하더라도 수행자의 발심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연구 내내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와 마주했다"고 말했다.

조주 선사는 개에게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분별심을 질책해 "없다"고 말했다. 로봇에게 불성이 있고, 없고 역시 같은 일이다. 로봇은 0(無)과 1(有)의 이분법을 떠날 수 없지만, 사람은 분별사량을 여읠 수 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로봇이 로봇인 것처럼. 하지만 로봇에게 불성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시 로봇이 로봇인줄 안다. 남의 불성을 따지기에 앞서 당장 수행부터 하고 볼 일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社告

### '법보시'로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 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대표 (02)2004-8200

## 社告

■ 마음공부포럼 안내

### 현대인 위한 마음공부 나눔마당에 초대합니다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참선 수행이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성을 밝히는 수행과 실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평등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공부 나눔마당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2008년 12월 21일(일) 오후 1:30~4:00
■ **장소**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4층 대강당
■ **주최** 한마음선원 ■ **주관** 한마음과학원 ■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031) 471-69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황 · 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특별기획 ②생활속의 간화선수행-동명 스님 ▶ 7면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첫세기 맞는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상상력의 재구성과 문화 왜곡

올 하반기 문화 키워드는 단연 '신윤복'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의 등장이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영화 '미인도'에 보여진 조선시대 불교 묘사에 '스님과 사대부 규중처자의 정사' 장면이 '재구성 혹은 왜곡'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사측은 흐름상 필요한 장면이라고 해명하며 수출용 필름은 사찰 정사 장면을 최종 편집키로 해 일단락 된 분위기다.

대중이 열광한 '신윤복'은 어떠한가. 영화 '미인도'는 11월 13일 개봉해 503개 극장에서 상영, 영화진흥위원회 집계 200만 관객 돌파를 기록했다. 12월 4일 종영한 드라마 <바람의 화원>은 문근영, 박신양을 기용해 14%대 꾸준한 시청률을 보였다. 서울 간송미술관 조선시대 서화展은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기 위해 10만 명 관객이 몰려가을 정기전이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드라마의 원작소설 <바람의 화원> 또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라 불황에 굴하지 않는 문화의 파장을 실감했다.

신윤복 신드롬 요인은 한 시대를 풍미한 두 화원 가운데 고증에서 정체가 불분명했던 신윤복이 여자라는 발상으로 재해석한 문화 콘텐츠에 있다. 영화 '미인도'에서 스승 김홍도가 제자 신윤복에게 "사람의 눈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다. 너는 요즘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묻는다. 신윤복은 저속한 풍속화를 그렸다는 모함으로 관가에서 고문당하며 "흔들리고 유혹하며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름다워 그린 것 뿐, 단 한 번도 거짓인 적 없다"고 말한다. 연출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풍속화를 통해 인간의 실상을 찾는 과정에서 신윤복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성성과 욕망이 화폭에 투영된다. 면밀히 따지면 실제 신윤복은 이미 어린 나이에 자살했다. 타고난 재주 때문에 신윤복으로 살아야 했던 누이동생의 알음알이가 표출된 것이다. 강무와 사랑에 빠진 신윤복이 사찰에서 기도하며 죄를 비추는 '업경대(業鏡臺)'에 자신을 비추는 장면이야말로 불교사상으로 아우른 영화의 비극적인 암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화의 제목은 '신윤복'이 아닌 '미인도'이다. 영화가 인간 신윤복의 전기를 다뤘다면 상상에만 그쳤을 일들이 많다. 한 예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는 타락한 신부가 창녀촌을 드나든다. 이 공연이 성직자를 왜곡했다면 1990년 미국에서 초연해 현재까지 각광받을 수 있었을까? 중생의 삶을 예술로 승화하는 것과 저속한 상업주의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비로 세상과 소통하다

## 제1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2008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설립 14주년 만에 20개에서 700개로 위탁운영 복지관 수를 확장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이 제1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2008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재단은 12월 4일 W컨벤션센터에서 불교 · 생태 · 복지의 만남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을 논의하고,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수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단체를 치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국회보건복지가족부 변웅전 위원장, 청와대 강윤구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국회정각회 부회장 안홍준 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1부 '불교와 복지의 만남' 세미나, 2부 기념법회, 3부 만찬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기념법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도 열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자 4명 등 모두 17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기념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봉사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불교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부처님의 자비 · 보시정신으로 2000만 불자가 하나 돼 불경기를 극복하자"며 "복지부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가 12월 4일 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윤구 사회복지수석, 지관 스님, 변웅전 의원, 전재희 복지부장관, 보선 스님.

이날 행사에서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불교! 생태와 함께 소통하다' 생태문화포럼도 진행됐다.

'불교적 생태담론 불교복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발표한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최근 사회복지학은 기술적 방법론만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려워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불교의 불성과 연기론이 제시하는 '환경보살' 혹은 '생태보살'과 같은 보살적 인간상은 불교생태 담론이 사회복지 영역과 소통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 활동과 불교생명운동의 만남을 위한 제안'을 발표한 이정호 운영위원장(불교생협연합회)은 "최근 복지의 최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며 "불교생명운동은 자연친화를 넘어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태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찰! 노년의 복지공동체를 꿈꾸다'를 발표한 한광용 前 녹색대학 교수는 "인류의 출현부터 생태 · 복지 · 불교는 하나였으며 생명공동체의 대안은 '사찰'에 답이 있다"며 "마을 근처 사찰이 복지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며 삶에 대해 올바른 성찰과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제20회 포교대상 시상식' 봉행** 한해 포교 각계의 공로를 치하하고, 신년 불법홍포를 다짐하는 조계종 '제20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수상자 등 400여 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포교는 아직 불교에 입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부처님의 품으로 이끄는 일"이라며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한 분들을 본받아 불법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자"고 당부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발표

### 대상에 법보신문…17일 시상식

법보신문사 기획취재단의 '불자들의 대사회 참여의식 제고기획' 기사가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 900회 특집을 불교언론문화상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또 불교언론인상은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 특집프로그램과 불교TV 등에서 진행을 맡은 적이 있는 이계진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TV 부분 최우수상은 아리랑 TV의 '단기출가', 우수상에는 교육방송의 '야단법석 진오 스님'이, 라디오부문 우수상에는 대구불교방송의 '아름다운 만남 효민입니다'가 각각 수상했다. 신문부분 최우수상에는 한겨레신문의 '하늘이 감춘 땅'(조현 기자)이, 우수상에는 불교신문의 '근세불교 자료'(이성수 기자)가 선정됐다.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성우 기자

## 마곡사 금품수수·승적 위조 논란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가 말사주지 임명시 금품수수 의혹과 승적위조 논란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12월 3일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이 말사 주지 품신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와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했다는 '마곡사 거사림 금강회'의 진정과 관련, 법용 스님을 소환해 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그러나 법용 스님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법부는 조사 후 법용 스님을 일단 돌려보낸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재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공주포교당 주지 Y 스님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마곡사 교구 중앙종회의원이자 K사 주지인 T 스님은 승적을 위조한 가짜 승려"라며 T스님을 상대로 '중앙종회의원 및 주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스님은 이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대로 '중앙종회의원 선임 및 주지임명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Y스님은 "이 문제를 종단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해 호법부에 진정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부득이 사법부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 영배스님 일산병원 입원 영담스님 이사장 직대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을 대신해 영담 스님(불교방송 이사장)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12월 2일 "영배 스님이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하기 전 영담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법인 정관 제28조 1항에 따르면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

동국대 병원 측은 영배 스님이 장기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자원봉사단 전국자원봉사대회 대통령상

조계종 자원봉사단(단장 대오)이 제3회 전국자원봉사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에서 2007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4월 2일까지 1만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국토해양부에서 열린다. 이상언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창종1주년 기념 법회** 및 **비구니원 개원법회**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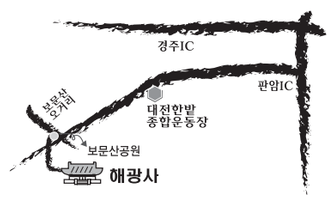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맑고 투명한 종단 대한불교화엄조계종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서 불법을 널리 홍포하고 불국정토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이 창종하여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종지와 종풍을 선양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더욱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고자 다음과 같이 **창종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합니다. 대덕 큰스님과 종도스님 사부대중은 동참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기길 바랍니다.

아울러 **비구니원 개원 법회**도 봉행을 하고자 하오니 정진과 교화에 다망하시더라도 비구니원의 진흥 발전과 불자님들의 신심고취를 위하여 전국에 계시는 스님 많은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드립니다.

일시·장소 | **불기 2552년 12월 14일 일요일** (음력 11월 17일) **오전 10시**
**해 광 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51-2)

문 의 | 해광사 042)253-3039, 011-425-3039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권한대행 011-228-7813




●종 정 : 덕정 법정 예하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권한대행 거산 혜상
●봉 행 위 원 : 포교원장 금담, 복지원장 법운, 비구니원장 해광, 총무부장 금오, 사회부장 벽암, 교무부장 혜명 포교부장 도법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대 한 불 교 화 엄 조 계 종 봉 행 위 원 회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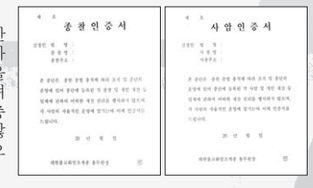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묘향사 7일 '21세기 불화' 봉안 법회** 경북 칠곡 묘향사(주지 혜민)는 한국화가 문봉선(홍익대 동양화) 교수가 그린 '21세기형 불화(佛畵)'를 설치하고 12월 7일 봉안법회를 가졌다. 벽화 속에는 기도하는 테레사 수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선재동자, 노트북을 하는 부처님 등이 들어있다. 지난 2년간 묘향사에서 한국화가 문봉선 씨가 조성한 이번 불화는 만물에 불성이 있음을 형상화 하고자 한 의도라고 밝혔다. 가연숙 기자

# 불자의원들, 입법활동으로 불법 외호

## 불교규제법령 21건 발의…불교관련법안 토론회 잇달아

이른바 '선(禪)의 황금시대'인 당·송대에 많은 거사들이 불법 외호에 일조했다면, 문화대혁명(1967~1977)의 법난(法難)속에서 꺼져가는 법등(法燈)을 되살린 이가 조박초(趙朴初) 거사다. 중국불교협회를 설립한 그는 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이끈 등소평의 혁명동지로서 전통사찰을 복원하고 불학원과 선원을 개설하는등 중국불교를 기사회생시킨 공로자다.

이처럼 불법을 외호하고 중흥시키는 재가거사의 역할은 실로 엄청나다. 오늘날 정교분리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불자 정치인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불교가 종교차별의 희생양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슈가 된 공직자 종교편향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늦었지만 종교편향을 방지하고 불교를 외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불자 국회의원 모임은 민주당 연등회(회장 최문순)다. 연등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통문화 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공무원 종교중립법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 불교관련 토론회다.

1부 전통불교문화 진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강창일 의원의 사회로 조계종 법무위원 정석원 변호사의 발제와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윤남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공원녹지법, 농지법 등 불교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규제현황과 과제도 점검한다.

2부 공직자 종교차별금지법안 토론회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의 사회로 前 조계종 법률자문위원 김형남 변호사의 발제와 박선숙 의원, 정지석 기독교평화연구소장 등의 토론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입법 방안 등을 모색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될 공직자종교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시설 투표소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현재 민주당 연등회와 한나라당불자회 회원을 포함한 국회 정각회(회장 최병국) 소속 불자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불교관련 법률 개정안은 모두 8건. 불교규제 국가법령 가운데 건축법, 토지이용규제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장사법 등 8건의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고 매장문화재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총 21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정각회 소속 의원 59명(한나라당 43명, 민주당 11명, 자유선진당 3명)의 협력과 지원으로 진행중인 8개 법률개정안과 4개 종교차별금지입법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9일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까지 대부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무려 21건에 달하는 불교관련 법률안이 국회의원 및 정부에 의해 발의된 것은 불교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록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불자의원들의 의욕은 높이 사야 한다는 여론이다.

물론, 의원불자모임의 활성화는 불교계의 협의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법안이 여야간 힘겨루기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야를 설득하고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때보다 활발한 불자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인재양성을 소홀히 한 불교계의 업보를 해소하고 새로운 불교 중흥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생명평화탁발순례단 5년만에 대회향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이 12월 13일 서울역에서 보신각까지의 순례를 마지막으로 5년 간의 긴 여정을 회향한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회향식을 거행한다.

생명평화탁발순례는 우리사회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2004년 3월 1일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해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각지 3만여 길을 걸어왔다.

순례는 아침 100배 절명상으로 시작해 묵언걷기와 명상, 다시 절명상 100배로 진행됐다. 순례후에는 사회단체, 종교인, 관청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대화로 소통했다. 10대에서 60대까지 10여 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이 구간·지역참여자를 비롯해 만난 사람은 8만여명에 이른다.

순례단은 회향식 후 12월 14일 첫 순례가 시작된 지리산 노고단으로 이동해 생명평화기원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02)723-1950 노덕현 기자

## BBS, 교계 최초 IPTV 12월 2일 IPTV 개막

교계 최초로 불교방송이 불교 방송 콘텐츠를 IPTV로 송출했다.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12월 2일 오전 5시부터 KT의 실시간 IPTV 서비스 '메가TV 라이브'에 첫 전파를 발사하며 본격적인 IPTV 시대를 열었다.

11월 11일 KT의 불교 종교채널로 단독 선정된 불교방송은 채널번호 550번을 부여받아 2일부터 24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불교방송 관계자는 "다른 IPTV인 myLGtv에서도 방송하는 등 IPTV 채널 수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시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TV로 제작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영상 콘텐츠를 확보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월간 '불교와 문화' 통권 100호 발간

### '과연, 한국 불교에 재가불교가 있기는 한가' 특집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발행하는 대중 포교지인 월간 <불교와 문화>가 12월호로 100호가 됐다.

<불교와 문화>는 100호 특집으로 '과연, 한국 불교에 재가불교가 있기는 한가'를 마련해 출·재가자의 입장에서 오늘날 재가불교의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 밖에 △집중인터뷰 작가 고은을 만나다 △아! 불교와 문화 사진으로 보는 월간 <불교와 문화> 1호~100호 △특별기획 상생의 삶, 친환경운동 어디까지 왔나 △현장 속으로 길벗 특별초청 강연, 법륜 스님 '즉문즉설' 등이 수록됐다.

문화를 통한 포교를 위해 지난 1992년 계간 <다보>로 창간된 <불교와 문화>는 이후 격월간과 월간지로 거듭나면서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찾아 대중들에게 자리매김했다. 고영인 편집장은 "100호 발간을 기점으로 '불교'와 '문화'를 통한 차별화된 문화잡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독자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교와 문화> 100호 발간 축하 음악회가 12월 24일 오후 2시 서울 다보원(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릴 계획이다. 음악회는 제6회 대원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02)719-2606

이나은 기자

# "근린공원 지정이 수행환경 망쳤다"

## 봉은사, 공청회 통해 정비계획 발표



봉은사 가람정비계획 조감도.

불교계와 환경부가 사찰규제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봉은사가 12월 4일 가람정비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가람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가람정비 공청회를 통해 봉은사는 1977년 봉은근린공원으로 지정돼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게 변한 사찰모습을 조명, 해결점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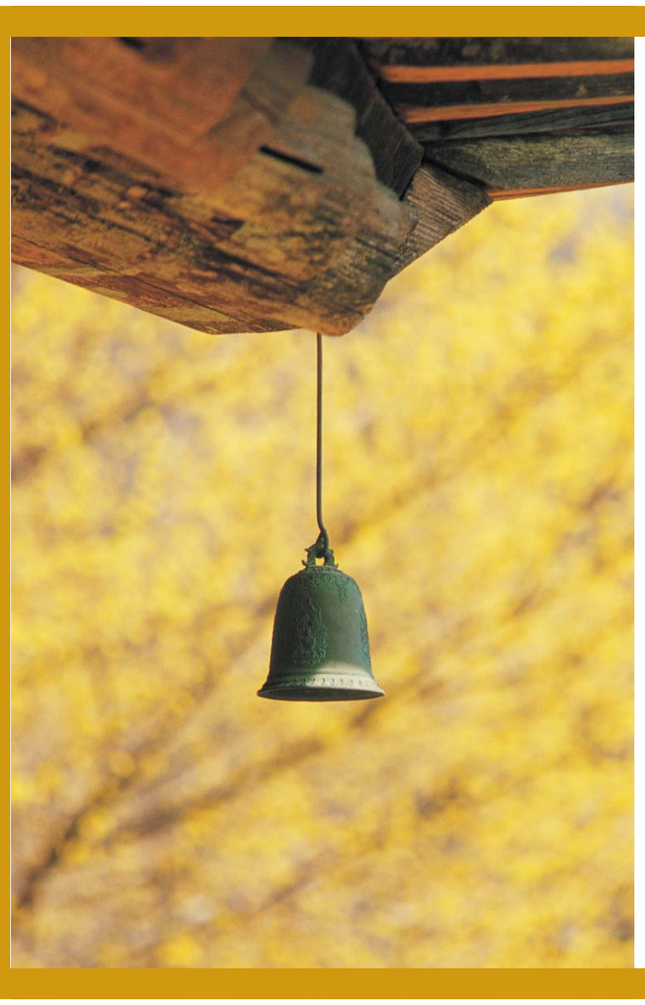
공청회에서는 김형남 변호사가 '봉은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김용미 건축가(금성건축 대표)가 '봉은사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사업'을 발표했으며 현고 스님(원각사 회주), 이상해 교수(성균관대), 최기수 교수(서울시립대), 염형민 사장(남양주시 도시개발공사)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1214년 창건된 봉은사는 매년 9000여명의 외국인이 템플스테이 등으로 찾는 강남의 대표사찰이지만 '공원관리법'에 의해 가건물 및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1939년 대화재 이후 근래 들어 복원, 건축된 시설은 모두 공원건물이거나 불법건물이다. 현재 봉은사 정문인 진여문이 공원문으로 등록됐고 요사채, 공양간 등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불법건물이다.

봉은사 가람정비계획은 총 1000억원 예산 규모로 전통사찰영역과 현대사찰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통사찰영역은 현 봉은사 법왕루~대웅전 등 북쪽지역으로 1910년대 조선후기 가람배치를 기준으로 전통사찰 분위기를 살려 복원될 예정이다. 현대사찰영역은 현 봉은사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지하5층 속에 1500여 명 수용가능한 대법당과 템플스테이관 신도회, 세미나실, 독서실 등 사무·교육공간이 마련된다. 지상에는 녹지마당과 지하철 9호선 가로수길도 세워진다. 봉은사는 "'도시공원법' 개정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기적인 가람정비계획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봉은사 가람정비계획이 실현되면 그동안 화계사, 봉은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이 '도시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으로 화장실 하나 짓지 못하는 등 기본적 수행환경까지 제한받는 상황에서 훌륭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 시 • 성지 순례 산행 시 • 장시간 공부·운전·운동 피곤 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대자연 GREAT NATURE UNITED
www.amata.co.kr

아마따茶로 성불 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 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 란? 팔리어로 '감로'(달고 깨끗한 이슬)를 뜻합니다.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원 : 유기마켓(주) 농협 601139-51-006748 국민 580301-04-091374



마테(Yerba Mate)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원시부족인 '과라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라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 “네모의 꿈 만들기”

## 선우어린이집, 아름다운동행 소액모금캠페인 첫 동참

금융한파와 불경기로 모두가 힘들 때, 최근 탤런트 문근영 씨와 축구스타 홍명보 씨가 각각 8억 5000만원, 6억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세계적인 배우 성룡이 7월 3일에는 기부 천사 가수 김장훈 씨에게 응원의 편지와 기부금 1만 달러를 전달하고 전 재산 4000억여 원을 기부해 화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스타들의 ‘나눔 바이러스’가 동심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서울 도곡동 선우어린이집(원장 정정옥)이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이 주최하는 소액모금캠페인에 처음 동참해 관심을 모았다.



11월 28일 서울 도곡동 선우어린이집에서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소액모금캠페인 ‘네모의 꿈 만들기’ 제1회 저금통 전달식이 개최됐다.

11월 28일 오전11시 30분 서울 도곡동 선우어린이집에서 소액모금캠페인 ‘네모의 꿈 만들기’ 저금통 전달식이 개최됐다. 저금통 모금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도록 좋은 곳에 써주세요”라고 말하면서 3개월 동안 모은 자신의 저금통을 전달했다.

정정옥 원장은 “선우어린이집은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선우어린이집이 처음 기부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모금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불교계의 활발한 기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소액모금캠페인 ‘네모의 꿈 만들기’는 ‘기부’ ‘나눔’ 실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8월 서울 교계 어린이집 82개소와 유치원 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종이저금통 3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아름다운동행 원석준 팀장은 “어린이들의 참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라며 “어려운 저금통 모금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소망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히 쓰겠다”며 전국 교계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확대 시켜나갈 계획인 ‘네모의 꿈 만들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02)737-9595 www.thenanum.org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대불련 캠퍼스집중포교로 다시 비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 이하 대불련)가 12월 1일~2009년 3월 11일을 캠퍼스 집중포교기간으로 선포하고 대학 내 불교활성화에 나섰다.

‘대불련의 비상’을 주제로 마련된 캠퍼스 집중포교기간은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기념하고, 대학교 신입생 입학시즌을 대비해 마련됐다. 대불련은 이번 기간활동을 통해 대학생불자들의 단합과 결집을 꾀하고, 대불련 조직 활성화와 재정시스템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포교기간 동안 대불련은 신입생 입학을 앞둔 각 대학캠퍼스 일정에 맞춰 교내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대불련 연간 활동을 담은 사진 게재와 리플렛 배포, 포스터 게재, 동자승 코스튬 홍보활동 등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동아리 가입기간에 맞춰 펼친다.

또한 대불련 의식 고취를 위한 기도정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울대불련 중앙법당 1000배 정진을 시작으로 매일 대전 · 공주 · 대구 · 광주 · 경남 등 전국대학 대불련 법당에서 108배 정진과 기도가 진행된다. 특히 열반일인 3월 11일에는 집중정진 및 3000배 정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불련 김정현 회장은 “사립대학 대부분이 개신교 재단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현실에서 대불련 회원들은 일심단결해 불법홍포에 앞장서겠다”며 “보다 역동적인 캠퍼스포교의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집중포교기간중인 12월 28일에는 47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장후보로는 대불련 대전지부장 이경환 씨(충남대, 25)가 단독 입후보했다. (02)732-0239

노덕현 기자

# “불교문학 학생다운 정진 아쉬워”

##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창립 27주년 종합 시상식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창립 27주년을 맞아 12월 5일 오후 6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종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3회 불교청소년문학상에 △시 부문 오수지(광주보문고 3) ‘아버지의 가방’ 외 1편 △시조부문 장소영(부산해동중3) ‘새벽’ 외 1편 △단편소설 부분 조민주(부산해동중3) ‘별똥별’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제3회 불교아동문학 작가상은 △동시 부문에 박방희(아동문학가)씨의 ‘하늘가람’ 외 1편 △동화 부문에 정명숙(유석초등학교)교사의 ‘할미새의 노래’ 외 1편, 제1회 불교청소년포교저작상에는 △아동도서부문에 임정진 <내 친구 까까머리> · 김재원 <똥쟁이 너도 진돗개니?> △유아도서부문 정수일 <춤추는 스님>이 수상했다.

제1회 대한민국찬불가요대상에는 △가창부문에 정목 스님 ‘바람부는 산사’, 정향숙 ‘산사에 올라’, 성악가 이영구 ‘저 언덕’ △작곡부문 이달철 ‘우리도 부처님같이’, 오해균 ‘닮아보세요’, 조영근 ‘금강경’, 정유탁 ‘착한 아이 예쁜 아이’ △작사 부문 지성 스님 ‘부처님 향기가’ 선정됐다.

제4회 불교아동문학 신인 문학상은 ‘우리 부처님’ 외 1편으로 염경희 시인이 당선돼는 영광을 누렸다.

심사위원들은 종합심사에서 “총 1207편의 응모작품에서 불교 아동 및 청소년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깊은 신심이 느껴졌으나 지나친 기교와 청소년답지 않은 관념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상언 기자

# “佛音 홍포로 불국토 구현하겠습니다”

## 대한불자가수회 창립 17주년 기념법회 열려

음성 포교사로서 불교 대중화를 선도해 온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명국환)는 12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창립 17주년 기념 법회를 열었다. 명국환 회장(76)은 격려사를 통해 “대중가요가 이미 저속해진지 오래다.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전통 가요를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대한불자가수회 총재)은 “광명진언이야말로 대한불자가수회의 원력을 두루 비추는 주문이다. 명실 공히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말씀을 노래해 온 포교사로서 대중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맑고 향기로운 의지의 만남으로 대한불자가수회 활동이 불법으로 승화되도록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성료했다. 사진 가운데는 명국환 회장과 혜총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이날 대한불자가수회가 뽑은 포교사 대상을 수상한 조계종 포교사단 강홍원 사단장은 “불교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포교사단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포교원장상을 수상한 이자연 씨(히트곡 ‘찰랑찰랑’)는 생활불교를 솔선수범한 포교 가수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불자가수회는 ‘전국불자노래자랑’을 7년째 진행하고 있다. 후원: 제일은행(예금주 선만호) 151-20-031827 (02)713-2905 가연숙 기자

# 정법회거사림, 캄보디아서 자비행

## 창립 43주년 기념해 11월 23일~25일

조계종 최초의 등록 신행단체인 대구 정법회거사림(회장 남두희)이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캄보디아에서 자비행을 펼쳤다.

정법회거사림은 11월 23~25일 캄보디아 시엠립 시에서 동북 방향에 위치한 반데스레이군 폼다에마을에서 지역 유지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우물 22개 준공 및 기증식을 가졌다. 거사림은 또 학생단체복 1500벌과 학용품 2000점, 칫솔 등 생필품 2000점, 구충제 3000여 종을 폼타에 초등학교와 프롬 복 초등학교, ‘아름다운 세상’ 고아원과 주민들에게 보시했다.

로타리불자회 남안웅 회장 등 회원 6명과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50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고 귀국한 남두희 회장은 “재작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세계 5대 빈국인 캄보디아에 우물파주기 사업과 생활필수품 전달을 위한 보시활동을 전개했다”며, 지속적인 자비행을 발원했다.

김성우 기자

# 어르신 위한 황룡가요콘서트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는 11월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효잔치-황룡가요콘서트’를 개최했다. 복지기금마련 및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개최기원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황룡사 주지 무원스님, 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 권경상 종무실장(문화체육관광부), 홍종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김진성 기자

# 불교 상장례 인력 양성 본격 막 올라

## 제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개강법회 봉행

최초의 불교 상제례 전문가 양성 코스가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11월 29일 중앙신도회관에서 제1기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증명법주로 나선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을 비롯해 김규범 부회장(중앙신도회), 홍경희 이사(불교인재개발원)와 교수 및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묵 스님은 개강법어에서 “불교생사관의 사회적 접근성이 빈약해 불자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노후에 안식할 불교노인요양원, 호스피스를 담당할 불교 중병 노인병원, 임종의식을 맡은 불교 상장례 서비스, 납골당과 자연장 등 사찰 봉안시설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의 불교 상제례 전문가 양성 코스는 8개월 동안 160시간 교육 과정으로 불교 상제례 이론과 실습, 장례법규와 공중보건학, 불교장례시설 관리론, 현장학습 등을 배우게 된다. 졸업 후에는 장례관련 업체, 사찰 장묘시설, 사찰 상조회 등의 운영 및 관리자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02)723-0444 조동섭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 재교부 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종단에 정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몇몇 스님들의 노고로, 2007라 1580에 의거 임시종정으로 김윤철(향운)스님으로 결정받았으나, 배정환(혜인)스님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9월 7일자 우리불교신문, 9월 10일자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9월 17일자 현대불교신문 등 두차례에 걸쳐 재교부 공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있습니다.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3번째 재교부 공고합니다.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2. 기 간 :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 까지
3. 수수료 : 총무원으로 문의
4. 문의처 : 02)735-0501~0502

대한불교원효종
임시 사무총장 도봉
임시 총무원장 용일
임 시 종 정 향운

# 중앙종회의원 공고

1. 대한불교원효종 서울고등법원 2007라 1580 김윤철(향운)스님께서 임시종정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종헌 제 5장 종회 제 22조 중앙종회의원을 종법중종회법으로 선출한다.

2. 종회법 제 1조, 종헌제 22조에 의하여 종회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종회법 제 2조 종회의원수는 25인 이내로 하고 각 교구의원수는 교구종도수에 따라 총무원장과 중앙종도회장의 합의로 종정이 결정한다.종회법 제 3조, 총무원장은 의원선거공고가 있는 즉시 각교구 종무원별 종회의원 배정수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종회법제 3장, 의원의선거 제 6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종회법 제 7조종도로서 종회의원 입후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2,3,4항, 종회법 제 8초, 종회의원 선거는 각교구 선거위원회에서 전형으로결정한다. 종회법 제 9조, 각교구 선거위원장은 선거결과를 각기 본인에게 통지하고 다음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 3 본인의 이력서, 가족증명서, 취임승락서, 전형조서. 종회법 제1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교구 선거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선거결과를 심사한 후, 그 적부를 판정한다 종회법 제 12조, 종회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로 확정된다.

대한불교원효종 임시 종정 향운

## 일주문



**길상사 창건 11주년 기념법문**

前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은 1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길상사에서 창건 11주년 기념 법문을 한다. (02)3672-5945



**'고구려시대 불교…' 출판기념회**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12월 1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고구려시대 불교수용사 연구' 등 출판기념회를 봉행한다.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 성금전달**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11월 28일 제일선원에서 '제9회 사랑의바자회 성금전달식'을 열고 난치병 어린이 에게 총 6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추대**

대한불교미타종 월정 대종사는 12월 7일 거구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대 법회에서 제2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경남복지고 '보건간호과' 인가**

함안 미륵사 주지 일광 스님(경남복지고 교장)이 설립한 경남복지고등학교는 경남 최초로 특성화교육 학과로 '보건간호과'를 인가받았다.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 개관**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11월 29일 '이해랑 예술극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에 앞서 이해랑 주제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모집**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은 전통문화와 차문화를 공부할 제7기 차문화연구소 연구원을 모집한다. 02)504-6162



**서명원 신부 불교 특강**

서강대 종교학과 서명원 신부(종교학과 교수)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내가 본 성철과 한국불교'를 강연한다.

## 인 사 BBS 보도국장 박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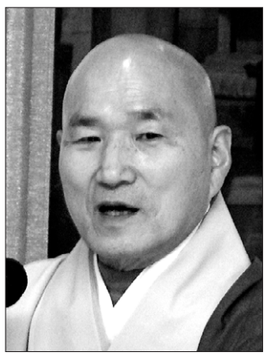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12월 1일자로 박원식 경영기획실장을 보도국장에 임명했다.

박원식 신임 보도국장은 1964년생으로 부산대 졸업 후 공채 1기로 불교방송에 입사한 이후 보도국 근무를 거쳐 2008년 5월부터 경영기획실장 직을 수행해왔다. 한편 신임 경영기획실장에는 최찬기 총무국장을 겸직 발령했다.

# "불교농민회 조직 추진"

## 직지사 주지 재임 성웅 스님



"거창한 의지를 표현하기 보다는 큰스님들을 잘 모시고 산중의 내실을 다지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로 재임된 성웅 스님(사진)은 12월 4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이와 같이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로써 12월 14일부터 4년간 직지사 주지소임을 맡게 된다.

성웅 스님은 "주지로 재임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역량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조실(녹원) 스님을 비롯한 산중의 본 · 말사스님들이 실제보다 높이 신뢰해준 공덕"이라며 "하심의 의지를 가슴 속에 담아 사부대중을 섬기면서 모든 행정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원력을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직지사 대웅전 주변 가람배치에 대한 불사 △승려노후 복지를 위한 '자비보험' 실천 △직지사 노인요양원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서비스 구현 △감사 등을 통한 본 · 말사 종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등 종단불사에 적극 지원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 △불교농민회 조직 등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성웅 스님은 "말사 주지소임을 맡던 시절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지역농민회와 함께 기우제를 봉행했던 적이 있다. 당시 종단을 떠나 많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것을 보며, 사찰도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함을 절감했다"며 "말보다는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웅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1970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상언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김진성 기자

# "불교 생활·대중화 이룰터"

## 은해사 신임주지 돈관 스님



"지역민과 함께 하는 포교 · 교육 불사로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를 이루겠습니다."

11월 27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조계종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 주지후보로 선출된 돈관 스님(사진)이 12월 2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문중화합과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4년 임기동안 포교와 교육 불사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돈관 스님은 "은해사 관할구역인 영천, 경산, 청송, 군위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군부대와 청송감호소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포교와 더불어 신도 기본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통해 은해사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돈관 스님은 "은해사에 있는 조계종 승가대학원 뒷바라지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어린이집 · 유치원 설립이나 위탁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은해사는 조실 일타 대종사께서 교육 · 포교를 서원하며 세운 도량인만큼 기기암, 운부암, 백흥암 선원의 선풍을 더욱 진작시키고 본사 역시 수행도량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임주지 법타 스님이 성공적으로 운영한 수림장 사업을 활성화해 장례의식의 간소화와 사찰재정 투명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돈관 스님은 지난 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과 은해사 기획국장, 환성사 주지,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학장 등의 소임을 역임했다. 김성우 기자

# "부처님 원음으로 마음의 평화·행복 얻으세요"

##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펴낸 일아 스님



"우연히 읽게 된 <불교성전>의 가르침들이 물이 솜에 스며들듯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생활을 하다가 독신수행을 하고 싶어 수녀가 됐다. 서울 샬트르성바오로 수녀원에서 6년간 수행을 하던 어느 날 <불교성전>(동국대역경원)을 읽고 무작정 송광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삭발염의(削髮染衣)'의 새길을 걷게 된 한 비구니스님이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을 들고 불자들 앞에 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7년을 거주 하며 로메리카 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한 일아 스님(62 ·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스님은 "불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법정 스님이 주석하던 송광사 불일암으로 무작정 찾아갔다"며 사연을 소개했다. 법정 스님을 만난 스님은 "올바른 수행을 할 만한 절, 올바른 가르침을 해주는 스승이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말했다. 그런 스님을 법정 스님은 비구니 특별선원인 조계종 석남사로 장문의 편지와 함께 보냈다. 일아 스님은 석남사에서 행자생활을 마치고 운문승가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부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자는 서원으로 태국 · 미얀마 위빠사나 명상센터에서 2년간 수행한다. 하지만 2년간의 수행도 스님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스토니브룩 주립대학 종교학과 학사를, 유니버시티 오브 더 웨스트대 비교종교학과 대학원에서 석 · 박사 학위를 받는 등 17년 동안 연구에 매진했다.

일아 스님은 "미국에서 '빠알리 경전 속에 나타난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란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빨리 경전을 연구했다"며 "빨리 경전은 읽을수록 간단 · 소박 · 순수하며, 들으면 곧바로 이해가 되는 점에서 위대한 경전"이라고 찬탄했다.

스님의 서원과 출가 인연에 대한 보은의 결실이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민족사)이다. 그동안 빨리 경전이 대승불교국가인 한국에서는 등한시 된 점을 비춰볼 때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스님의 책은 더욱 소중하다.

현재 빨리 경전 갖기 운동도 펼치는 일아 스님은 "빨리 경전 한 권 갖기 운동으로 한국불교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등 빨리 경전으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원음을 보고,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만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 BBS '마음으로 듣는 음악' 공개방송



불교방송은 11월 29일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에서 정목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나은기자

## 석가사 성남시청에 쌀·김치 전달



조계종 불국사 포교원 석가사는 11월 28일 성남시청을 찾아 쌀 10Kg 100포대와 김장김치 4kg 500박스를 전달했다. 석가사 스님, 신도회,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불자회가 참석했다. 임연태기자

## 옥천사암련 '군정발전 발우탁발식'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는 12월 15일 연합회 스님 및 신도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 일원에서 탁발정진을 봉행한다. 정진에 앞서 옥천군청에서는 '군정발전 발우탁발식'이 열렸다. 혜철 충청지사장

## 세계문인협회 제5회 문학세계문학상 시상




(사)세계문인협회(이사장 김천우)는 11월 29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제5회 문학세계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부문 신인문학상에는 대한불교조동종 사회국장성운 스님이 수상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대승불교조계종 창종 7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청파)은 11월 27일 대전 대원사에서 '창종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종단임원 공로패 수여가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종정 법공, 원로원장 지오, 부종정 혜암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 | |
|---|---|
| 빙 의 치유법 |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
|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
| 명리학 |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
| 최면학 |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 "부처님 말씀 만났다면 깨달을 준비된 사람 되세요"

## 2 생활 속의 간화선수행

### 전등사 선원장 동명 스님

출 · 재가 참선 수행자들이 산사의 선방이나 시민선방에서 동안거 결제(음력 10월 보름)에 들어간 지 20일째를 맞은 12월 2일. 서울 성북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전등사 전등선림(선원장 동명) 선방에도 20여 우바이들이 태산처럼 우뚝하니 좌복 위를 장엄하고 있었다.

전등사는 현대의 선지식인 해안(海眼, 1901~1974) 스님이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며 1967년 만든 '불교전등회' 의 등불을 이어온 재가 참선도량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수행해야 한다"며 전등사를 개원한 해안 스님은 "화두일념에 들면 누구나 7일 만에 깨달을 수 있다"며 재가불자에게 용기를 주고 참선을 지도한 선지식으로 유명하다.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 경봉, 서(西) 해안' 으로 불리며 선풍을 떨쳤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이은 전등사는 오늘도 여전히 해안 선사의 육성법문을 들으며 선(禪)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다.

전등선림의 수행 일정은 안거를 제외한 기간에도 선방의 문을 열어 개인별로 토요 철야정진을 하는 등 자율정진이 진행된다. 안거 수행자들은 오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8시간 이상 참선한다.

대중과 함께 선방에서 좌선하며 힘을 주거나 수시로 선원장실에서 일대일 점검을 하며 수행자를 지도하는 동명 스님을 만나 재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참선하는 법에 대해 질문했다.

–달마 대사는 2조혜가 대사가 안심(安心)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불안한 그 마음을 찾아보거라" 라는 말로 안심을 주었습니다. 선법문은 그야말로 안심법문인데, '안심' 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알면 편안한데, 모르니까 안심이 안되는 거죠. 제자가 스승에게 '마음이 어떤 것이냐?' 고 자꾸 물어도, 스승은 말을 잘 안해줍니다. 제 스승님(해안 선사)도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라"며 혼을 냅니다. 그렇게 설명으로 주고 받아서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뭐니, 어쩌니 하며 주고 받지만 사제지간에는 말길이 끊어진 자리를 이심전심으로 주고 받을 뿐이죠. 차를 갖다 올리면 차 마시고, 일을 시키면 일하는 가운데 저절로 본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안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스승 아래서 일상생활을 하되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체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전등선림의 수행가풍은 생활 속에서도 마음공부를 잘 하도록 이끄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저는 스승님께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질문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을 진솔하게 잘 하다보면 저절로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옛부터 움직이지 않아 부처라 이름하네)' 이란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오랫동안 동하지 않고 꾸준히 진실하게 할 때 참마음(眞心)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물어보는 것은 거꾸로 된 망상일 뿐이죠.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겹다고 아우성인데,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 스승님은 '미기추물(迷己追物)' 이라 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물건(대상경계)만 쫓아가니까 헐떡이고 불안한 거죠.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근래에 서양종교가 들어와서 밖으로 추구하는 신앙을 많이 모방한 것 아닐까 해요. 국민들이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고 불나비가 불속에 뛰어들듯이 늘 바쁘게 다니는 느낌이에요. 일본에서는 빵 하나 굽는 일을 100~200년 가업으로 이어서 해요. 오랫동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장인(匠人)이자 수행인입니다.

–결국 세상이 무너져서 자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행의 힘이 부족해 이런 고통을 함께 당한단 말씀이군요. 공업(共業)이라고나 할까요.

수행이란 자기 업을 바꾸는 행위라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는 다 비슷하지만 마음 씀씀이는 다 다릅니다. 마음 씀씀이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수행이죠.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행동이 삶속에서 우러나와야죠.

–해안 선사께서는 '7일안에 깨달을 수 있다' 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스승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간절해야만 가능한 거죠. 해안 스님은 학명 선사의 경책과 화두 '은산철벽(銀山鐵壁)' 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믿고 받아지녔기 때문에 견성할 수 있었어요. 스승의 말씀을 간절히 참구해서 1주일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두일념에 집중할 수 있다면 타파가 안될 수 없죠. 잠이 와도 졸린 줄 모르고 허리가 아파도 아픈 틈이 없을 정도가 되려면 스승의 담금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은 마음이 산란해서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불안해 하죠. 스승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스승이 제자에게 일이나 참회, 기도를 시키는 것도 산란심을 가라앉혀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좌선 역시 동중공부를 위한 힘을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안정되고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면 다른 일도 더 잘 할 것 아닌가요. 좌선을 잘 하면 일에 임해도 진솔하게 되고 좌선과 일이 둘이 아니게 되죠. 결국 내가 있어서 산과 바다가 있듯이 세상 일이란 내가 만드는 거죠. 일할 때도 수행하듯 하면 더 잘 돼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일을 해도 잘 안되지요. 저는 요즘도 아침에 108배를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땀도 나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면 피곤하기만 하겠죠. 모든 일도 내 일이다 생각하면 잘 됩니다.

–화두공부를 하다 보면 선방에서는 어느 정도 되다가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화두가 달아나기 마련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보자는 일할 때는 화두 놓고 일만 해야지요. 일하거나 운전할 때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화두 공부는 스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화두의심으로 꽉 막히게 해 한 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슴에 꽉 맺힌 것이 터질 때 깨치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가 제대로 화두를 챙기는지 점검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화두의심이 저절로 들기 위해서는 1주일이나 그 이상의 집중수행이 필요합니다. 화두공부는 한가하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절박한 공부죠. 쇠는 불덩어리 속에서 수없는 망치질과 담금질로 강해지듯이 삶의 고통은 사람의 아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배우게 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체험하고 내 몸이 고단해 봐야 수행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살이가 까딱하면 바깥 대상만 쫓아다니는 독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발심만 잘 하면 세속이 고요한 산사 보다도 더 훌륭한 공부도량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뭣고?' 화두의 경우,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가는 놈이 무엇이냐, 간경할 때는 경전 보는 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화두를 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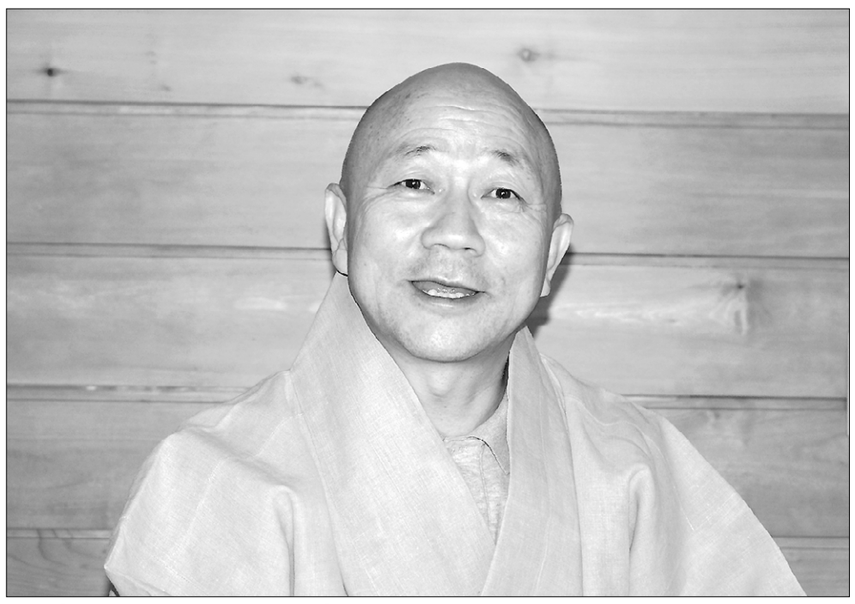
그건 초보자를 위한 방편이죠. 화두의심 갖는 법을 모르니까 기초적인 입장에서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설명일 뿐입니다. '이뭣고?' 는 생각을 뛰어넘는 공부거든요. 그저 의심이 꽉 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설명이 불필요 하죠.

–스님께서는 초보 수행자에게는 참회나 기도, 자원봉사를 시킨 후 상담을 통해 적합한 화두를 제시하고, 수시로 일대일 점검을 통해 지도하고 계신 점이 일반 선원과 다른 점 같습니다.

처음 절에 오는 불자들 가운데는 쓸데없는 아만을 잔뜩 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해도 듣지 않고 고집대로 하니 아상(我相)을 부수기 위해 절도 시키고 참회나 어르신 수발하는 자원봉사도 시킵니다. 그러면 점차 산란심이 없어져 안정되게 되죠. 우리 절에서는 신발과 방석 정리에서부터 생활태도 등 모든 게 반듯해야 해요.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더욱 흔들림 없이 화두의심에 집중하도록 돕는 거죠. 점검을 해보면 수행자가 고요한 상태에 빠져있는지, 망상을 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근기에 따라 지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스님은 물가에 데려다 주는 입장인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에게 달렸지요.

–탐진치 삼독이 얼마나 가벼워졌는가 여부로 수행자의 공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차분하고 맡은 바 일도 잘 하고, 인격도 훌륭하죠. 마음이 안정돼 있으니까요. 화를 내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반성하기에 바로 풀어지지요. 언행을 보면 탐진치가 어느 정도 조복이 됐는지, 공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부처님이란 완전한 인격자 아니겠어요.



일상생활을 진지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생활선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동명 스님. 스님은 화두일념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자기를 잃고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화두공부… 발심하면 세속이 수행도량**

–선방에서 방선시간에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을 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안심법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법문이니까요. 전등선림을 창건한 해안 스님의 가풍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법문은 10분씩만 듣게 해요. 많이 들으면 집중해서 듣지도 못하고 타성에 젖어 법문이 귀한 줄 모르거든요. 책도 직접 사서 봐야 자세히 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을 비롯해서 신도들이 모두 겸손하신 것도 이 절 가풍으로 여겨지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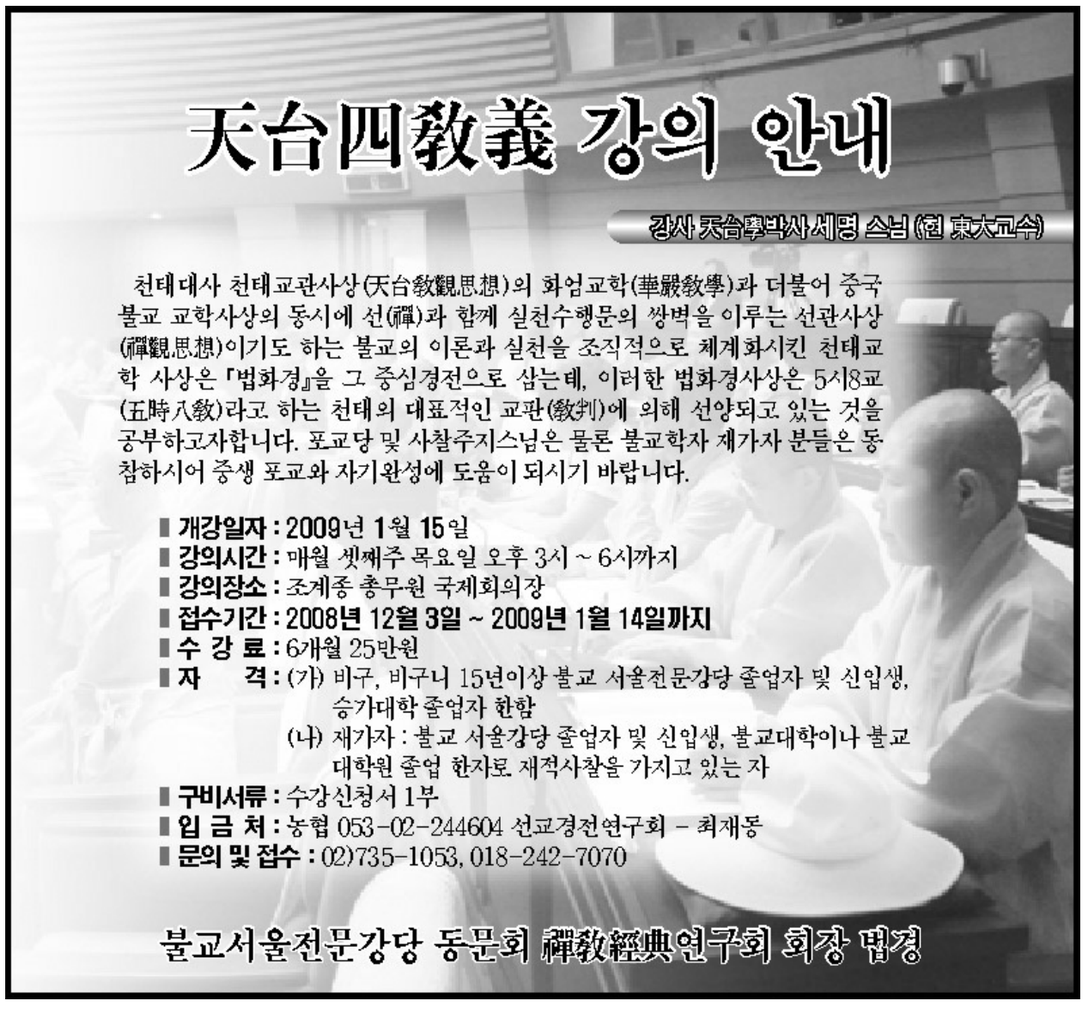
해안 스님께서는 당신을 낮춰서 '축성여석(築城餘石)' 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성을 쌓고도 남은 쓸모 없는 돌이란 뜻이죠. 그만큼 하심하신 거죠. 도인이 되면 천진난만하고 일상생활이 조화돼 거칠지 않아요. 스승님은 입적 3일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비문에 행장조차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상좌들이 간청하니까 '해안범부지비(海眼凡夫之碑)' 란 여섯 글자만 쓰도록 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 어디로 간다는 수행이력이 다 군더더기란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지요.

–해안 선사께서 유언으로 남긴 '생사어시 시무생사(生死於是 是無生死)' 란 법문은 독창적이면서도 깊은 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고 사는 게 이것(是)인데, 이것은 죽고 사는 게 없다' 이런 뜻인데 하나의 화두이지요. 이것은 '이뭣고?' 화두의 '이' 와 같습니다. 이 '한물건(一物; 본래마음)' 을 알아야 번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생사 아닙니까? 생사를 뛰어넘는 일은 '이것' 을 아는 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 선종의 골수가 담긴 법문이지요.

–결국 '이것' 아닌 게 없네요. 스님.

확실히 알고 말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니 중생이니, 번뇌니 삼매니 하는 게 다 이것이지요. 세상엔 '모르는 부처', '아는 부처' 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알았다고 해도 내놓을 수도, 내놓을 것도 없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조사스님들은 "차나 마시게", "야야, 오늘은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구나" 하고 대답하는 게 참 멋이 있지요. 차 한 잔 더 드세요. 대추차가 남자들한테 참 좋다고 하네요.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9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2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연구원 설립 초발심을 되새기자"

## 보조사상연구원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이하 연구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보조 지눌 사상을 종교를 초월한 인류사상으로 홍법하고자 개원한 보조사상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기라성 같은 구성원으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송광사 주지 현호 스님이 이사장을, 법정 스님이 원장을, 故 이종익 · 심재룡 교수를 비롯해 법산 스님 권기종 길희성 한기두 박성배 로버트 버스웰 등 한국불교학 대표 학자들이 발기인으로 동참했다.

연구원은 1990년대에는 돈점논쟁의 주역으로 교계에 깨달음의 토론 열풍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성철선사상연구원 등의 개원에 자극을 줬다. 교계 최초로 학진등재지에 선정되는 등 연구원이 이룬 괄목할 만한 성과들은 정기학술대회 20회, 월례학술세미나 87회라는 숫자만으로도 증명된다.

가장 큰 성과라면 단연 인재불사. 신진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은 장시간의 토론 끝에 2인의 논평자 등으로부터 철저히 담금질 됐다. 한국불교학의 주축으로 불교학 연구자들을 견인해 온 연구원이 배출한 학자들은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 박영재 교수(서강대), 임승택 교수(경북대) 등 국내 보조사상 전문가 모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연구원이 20세 청년이 된 2008년 12월 6일, 보조 스님의 수선사 전통을 이어 온 송광사 문중스님들과 한국불교학 대표학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연구원이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에서 '보조사상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는 20년 전 연구원 설립 열기가 오늘까지 오롯이 이어지고 있었다.

행사에는 권기종 명예교수(동국대)가 '지눌사상의 재조명'을, 강건기 명예교수(전북대)가 '인간학으로서의 보조사상'을, 길희성 명예교수(서강대)가 '비교사상적 관점에서 본 지눌의 선사상'을, 최병헌 명예교수(서울대)가 '지눌 이후의 수선사'를, 법산 스님이 '조계종, 송광사 그리고 보조사상'을 각각 발표했다.

### #보조사상 진위 다시 가려야

권기종 교수는 보조 스님의 저술로 알려진 문헌들의 진위를 거론했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저술진의가 의심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사상을 연구해왔다"며 "보조 스님의 저술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지눌 사상이 연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종 교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조 스님의 사상은 정혜쌍수, 돈오점수, 선교일원 등이다. 권 교수는 "정혜쌍수의 수행방법은 돈오점수"라며 "돈오는 혜(慧) 수행, 점수해야 할 것은 정(定) 수행"이라 정리했다. 권기종 교수는 이어 "선교일원(禪敎一元) 사상은 간화경절사상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경절문은 언어와 문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불립문자를 표방한 교외별전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보조사상으로 전개됐던 간화경절문 사상을 비롯해 정토사상과 삼문체계의 선사상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조사상으로 난제 풀 수 있어

보조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도 시도됐다. 강건기 교수는 "보조사상은 인간회복, 자기회복의 원음"이라며 "잃어버린 '참나'의 회복을 강조하는 보조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환경파괴, 자기상실이라는 심각한 병을 치유할 훌륭한 처방"이라 강조했다.

연구원 활동에 대한 비판과 대안도 이어졌다. 강 교수는 "아직도 보조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술이 없다"며 "보조사상 연구의 현실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중적인 보조 스님 관련 서적 출간과 외국어 번역본 발행, 웹사이트 운영 등을 통한 전산화 작업이 강건기 교수가 내놓은 대안이다. 강 교수는 "보조사상이 일부 출가자가 아닌 대중의 생활 속에서 숨쉴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강건기 교수는 "정혜결사는 출가자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린 회상(會上)이었다"며 "보조사상의 연구와 선양이 새의 두 날개처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희성 교수는 지눌과 엑카르트, 라마나의 사상을 비교했다. 길 교수는 "절대와 상대의 완벽한 합일이라는 점에서 지눌과 라마나의 사상은 일치한다. 개신교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엑카르트 역시 그 궤를 같이해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헌 교수와 법산 스님은 각각 지눌과 혜심의 사상적 연결고리와 보조사상


보조 지눌 스님 진영.

연구원 설립 배경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법산 스님은 학술대회 전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과제로 초창기 보조선 중심으로 한국선을 다뤘으나 앞으로 학제간 연구 등으로 연구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현호 스님을 비롯한 발기인들이 다시 모인 연구원은 단순한 20주년 기념행사가 아닌 연구원 설립 초발심을 되새기자는 화합과 정진의 마당이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교 버팀목 진흥원 변해야 산다"

## '진흥원' 주제 불교와 사회포럼 토론회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사장 선출과 예산지원 문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의 진흥원 이사 선임 논란 등 잇따른 구설 시비에 휘말린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교계 전문가를 모아 여론을 청취했다.

진흥원은 12월 2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불교 진흥 활동의 어제 · 오늘 · 앞날'을 주제로 불교와 사회포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진흥원 김규칠 상임이사, 명호근 이사, 김재영 교수(동방불교대), 이용부 공동대표(사찰문화연구원), 박광서 교수(참여불교재가연대), 김용표 교수(동국대), 이학종 대표기자(미디어붓다), 정성운 대표(불교정보센터), 서화동 기자(한국경제신문), 본지 임연태 부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흥원이 불교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각론은 달랐어도 '선택'과 '집중'을 화두로 "진흥원이 바뀌어야 산다"는 주장은 한결 같았다.

김재영 교수는 "교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교계 역량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연태 부국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존재감이 약했다"며 "보이는 손으로 이끌고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국장은 "진흥원이 적극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광서 교수와 정성운 대표 등은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진흥원 이름답게 '진흥'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 외부기관 평가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김규칠 상임이사는 토론에 앞서 "올바르고 건설적 의견은 어떤 말이라도 달게 듣겠다"고 말했으나, 조계종과 불교방송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조동섭 기자

#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밝은사람들 12월 13일 연찬회

선(先) 교재 발간, 후(後) 세미나 개최로 불교계 학회에 새바람을 몰고 왔던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제6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 초기불교) △김진무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선불교 △박찬국 교수(서울대 · 서양철학) △권석만 교수(서울대 · 심리학) △김종주 원장(김종주신경정신과의원 · 정신의학) △우희종 교수(서울대 · 생물면역학)가 참가해 주제발표 한다.

교재는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운주사 출간) 값 2만3000원. 도서문의 (02)3672-7181, 행사문의 010-2391-5629 조동섭 기자

# 종교 갈등 해결방안 모색

## '불교평론' 37집 출간

계간 <불교평론> 제37집(겨울호)이 출간됐다. 이번호에는 지난 여름 한반도를 달군 종교편향 논란을 계기로 종교 갈등 해결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종교 갈등, 해결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곽병찬 논설위원(한겨레신문)의 '종교 갈등, 그 불행의 세계사' △이거룡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이웃 종교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 △서명원 교수(서강대)의 '종교 간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서' △남태욱 목사(서초동 열린교회)의 '종교편향과 차별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 △본지 임연태 부국장의 '종교편향 대한민국에 있는 고질병'이 게재됐다.

기획기사로는 '불상생, 선택인가 당위인가'를 주제로 육식문화를 조명한 김성철 교수(동국대), 우희종 교수(서울대) 등의 글이 실렸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 "거북머리에서 용머리 변화 단계 보여줘"

## 경주 무장사 거북 모양 비석받침돌 발견

경주시 무장사 아미타불조상사적비(보물 제125호) 복원을 위한 현지조사 중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龜趺) 머리 1점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주시(시장 백상승)와 무장사 아미타불조상사적비 비신 복원을 위해 11월 20일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귀부 좌측면 머리 1점을 발견했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이 석비는 신라 제39대 소성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왕비 계화왕후가 아미타불상을 조성해 무장사에 봉안한 내력을 새긴 것이다.

조선 순조 17년(1817년) 추사 김정희가 발견한 비편 2점과 1914년 발견된 비편 1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963년 보물 제125호로 지정됐으나, 지정 당시부터 비신은 없고 쌍귀부 머리 1쌍이 파손돼 있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견된 머리는 귀부 양식이 거북머리에서 용머리로 변화돼 가는 중간단계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2009년 비신 복원 사업 때 발견한 머리 부분의 제자리를 찾아줄 예정"이라 말했다.


경주 무장사 아미타불조상사적비 비신 복원을 위한 현장 조사중 발견된 거북머리.

조동섭 기자

# 한·중교류 포럼

## 원각불교사상硏 18일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관문사에서 한 · 중교류 제1차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화해사회와 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양증문 소장(중국불교문화연구소)이 '중국불교에서 화해사회 건설의 이론에 대한 탐색과 실천'을, 권기종 원장이 '불교의 화해이론과 실천방안'을 각각 기조발표한다.

이어 기화전 박사(중국사회과학원), 윤이흠 명예교수(서울대), 김상현 교수(동국대), 지창규 교수(동국대) 등 6인의 학자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 칸트와 불교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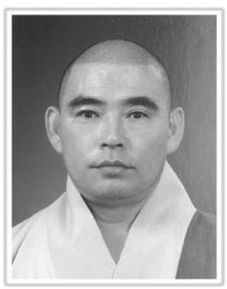
## 한국칸트학회 13일

한국칸트학회(회장 최인숙)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칸트철학과 불교철학의 소통'을 주제로 동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한자경 교수(이화여대)가 '경험세계의 가상성'을 △정승석 교수(동국대)가 '업보의 논리와 윤리적 요청'을 △배의용 교수(동국대)가 '불교 유식학과 초월 관념론에서 질료의 아포리와 주관의 이중성'을 △김진 교수(울산대)가 '칸트와 불교'를 △신규탁 교수(연세대)가 '선불교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발표한다. (02)2260-3180

조동섭 기자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경남복지고등학교 보건간호과

## 3년제 /2년제 학생모집

3년제(現, 중 3) / 2년제 (성인반) 고등학교 과정 (보건간호과)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경 남 복 지 고

남 최초의 보건간호과 (간호전공 / 실버케어전공) 인가
보다 앞서 가는 간호 전문 교육
지(간호) 교육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 실습장 최다 보유
· 덕 · 체를 완성하는 인성 교육의 장
민하지 마세요! 경남복지고등학교는 항상 열려 있어요!



2007년 7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정.

# "산에서 진짜 부처를 보고 참된 길을 발견하죠"



#10년간 백두대간 9정맥 4200Km 종주

"불교가 자연이고 자연이 불교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산의 자비로운 모습에 반해 산에 오릅니다. 산을 통해 불교의 자비심을 배우게 되더군요."

대학교재를 주로 출판하는 보성각 대표이자 산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일순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의 본업인 도서출판보다는 산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산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염일순 대표는 1971년부터 산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산을 다녔다. 그가 섭렵한 산만해도 천여 개가 넘는다. 국내산은 물론이고 킬리만자로, 낭가파르밧, 일본의 북알프스 등 해외의 높은 산들도 많이 올랐다. 지금은 백산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히말라얀 클럽' 회원이다.

올해 예순 셋인 염일순 대표가 지난 시월에 국내 산악인들 사이에 화제의 인물로 등장하였다. 9년 6개월에 걸쳐 백두대간과 구정맥(九正脈)을 단독 종주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 4월에 시작하여 2008년 10월에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백두대간과 구정맥을 합친 도상(圖上)거리는 2,758㎞이지만, 실제 종주거리는 약 4,200㎞이다.

십년의 세월에 걸쳐서 혼자서 종주하였기에 염일순 대표의 산행은 더욱 돋보인다. 이를 두고 산악인들은 "강인한 체력과, 독도(讀圖) 능력과 고독을 이겨낸 끈질긴 정신력 등 3위 일체가 되어 이룩한 금자탑으로서 등산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칭송하였다.

#우리 산줄기 찾기 운동에 앞장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국토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를 말하고, 구정맥은 국토의 동맥을 이루는 산줄기를 말한다. 200년 전,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인 신경준에 의해 작성된 산경표(山徑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대간(백두대간)과 하나의 정간(장백정간)과 13정맥의 산줄기가 있다. 그런데 일제(日帝)에 의해 정맥 개념은 산맥 개념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인 산맥개념으로 우리의 국토지도가 작성되고 있다. 염일순 대표는 이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산줄기 찾기 운동을 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일제의 잔재인 산맥개념을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리 · 덕유 · 속리 · 태백 · 함백 · 두타 · 청옥 · 오대 · 설악산 등의 중후한 산군은 백두대간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믿음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를 두고 소백산맥이라고 지칭했으니 우리의 국토를 좁은 안목으로 본 것이지요."

산행을 잘 하기 위한 비결을 물었더니 첫째는 산행에 대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백두대간과 구정맥 종주를 위해서 산의 지형을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백두대간을 종주할 때는 코펠과 텐트, 침낭 등 매번 20킬로그램이 넘는 배낭을 메고 하루 10~12시간씩 산행을 하면서 '1시간 30분 걷고 5분을 쉰다'는 원칙을 정했어요. 나침반 · 고도계 · 5만 분의 1지도는 필수적인 것으로 산행 중에도 나침반을 항상 목에 걸고 고도계와 함께 수시로 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해칠 뜻 없으면 짐승도 안 덤벼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응복산 약수산 구간에서 수백 마리의 멧돼지떼가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이었고, 소백 국망봉에서 야영할 때 강풍이 불어 텐트와 함께 나가떨어지는 등 잊을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한다. 또 구정맥을 종주하면서는 뱀이 우글거리는 뱀밭을 지나게 되었고, 사나운 들개를 만나기도 하였다. 무섭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뱀이나 들개를 만나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내가 전혀 해칠 의도가 없음을 보이면 그들 역시 해치지 않아요. 아주 사나운 사냥개 2마리를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진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 주면서 옆으로 슬쩍 비켜났더니 그들도 그냥 지나가더군요. 깊은 산중 절에는 짐승들이 범접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종소리나 목탁, 염불소리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백두대간 종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산과 물은 역사 · 문화 · 신앙 등 우리 생활의 모태인데 곳곳의 정맥들이 골프장 건설, 군사시설, 도시화과정에서 끊어지고 사라져 가고 있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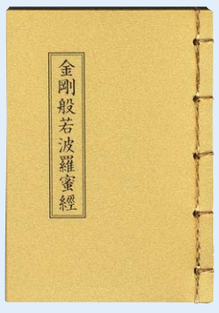
"이백 년 전에 작성된 산경표의 백두대간과 구정맥은 지금 70~80%정도 보존되고 있으며, 정맥의 일부는 아예 없어진 곳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의 우리 산줄기를 인정하여 현대판 산경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백두대간의 힘찬 줄기는 용트림치는 우리 한반도의 기상 그대로이며 낙동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은 동쪽, 서쪽, 남쪽에서 우리 한반도를 편안하게 감싸고 있는 형국이며, 그리고 그 맥은 장군의 기상 그 자체입니다. 한남, 한북, 금남, 금북정맥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면서 꽃을 피우는 형상으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 강하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요."

#우리시대의 '산경표' 만들어야

염일순 대표는 틈이 날 때마다 <반야심경> 사경을 주로 하고 있으며, 열반하신 원담 스님으로부터 "사람 사람마다 진불(眞佛)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라"는 가르침을 새기면서 살고 있다. "권력도 명예도 다 무상한 것,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만이 진실한 것이며,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삶"이라 생각한다는 염일순 대표의 말은 산을 통해 체득한 것이기에 더욱 진실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문화행사 성공적… 사회참여는 저조

## 2008 부산불교계 결산 1 – 행사 외연 넓히고 불자들은 치열한 수행 속으로

2008년 불교계는 종교편향 논란으로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8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의 범불교도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일과 15일에는 대구와 광주에서도 사부대중이 촛불을 들고 산문 밖으로 나왔다. 불교계를 둘러싼 외부 세력의 압력과 교계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 등으로 얼룩진 한해였지만,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불교수도' 부산경남 불교의 희망은 빛났다. 총 3회에 걸쳐 1편 문화관광, 2편 사회복지, 3편 불사 등 분야별 결산을 통해 올 한해 부산경남불교계를 정리한다.

### ▌문화관광 분야

#### #불교행사 지역축제로

절집 잔치에 그치던 불교행사들이 불자와 비불자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축제로 범위가 확대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개산대제 때 뮤지컬 <맘마미아>를 초청해 산사를 흥겹게 달궜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아예 '개산대제'라는 이름을 버리고, '금어문화축제'로 바꿔 불교가요를 비롯한 아프리카 민속춤, 팝과 재즈, 가수 안치환, 윤도현밴드 콘서트 등으로 세계음악축제를 벌였다. 부산교계 연중행사인 '부산시민 연등축제'는 봉축연합대법회와 제등행진으로 시민에게 친근한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팔관회'는 법회와 전시를 결합한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처럼 불교행사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반면, 교계의 사회참여는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자갈치축제에서 물고기 위령재 등으로 참여한 것처럼 부산의 세계적 축제인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락페스티벌' 등에도 참여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 #테마 템플스테이로 진화

절에 머물며 사찰 생활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각 사찰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낸 '테마 템플스테이'로 개발되면서 어느덧 범국민 휴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산 금강사(주지 안도)는 불무도,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단기출가,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는 습지체험을 테마로 저마다의 특성을 단조롭기 쉬운 템플스테이에 가미해 주목받았다.

사찰만큼 스님, 수행자의 삶이 그대로 배어난 곳은 없다.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과 알찬 프로그램을 확충해 질적으로도 우수한 템플스테이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믿는 불교에서 수행 불교로

무엇보다 올 한해는 일상 속 수행문화의 정착이 유달리 눈에 띈 한해였다. 부산 패션1번지 광복동 도심에 제1호 간화선 교육기관인 참선수행학교가 개원했고, 선서화전문전시관인 여여선갤러리도 개관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불교를 불자들의 일상 가까이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의 옷을 입힌 것. 또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첫 3박4일 참선철야용맹정진을 열고 사부대중이 한자리에서 참선정진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지리산 벽송사(선원장 월암)도 처음으로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를 열고, 간화선의 실참에 관한 모든 것을 전수했다. 점차 믿는 불교에서 공부하고 스스로 자성불을 깨닫는 불교로, 불자들의 신행자세가 변화하고 있다.

올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재가불자를 위한 참선수행 프로그램은 향후 활성화 여부에 따라 기복성향이 짙은 현 신행풍토를 바꿀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의 끝을 향해 달려고 있는 부산경남 불교계가 내년에는 불국토를 구현할 수 있을까. 새벽 먼동이 트고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해운정사 참선용맹정진(위), 통도사 개산대제 때의 맘마미아 공연(아래).

## 팔관회·박람회 접목 축제로

###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성료



불교문화엑스포에 마련된 부스들을 둘러보며 제품 설명을 듣는 스님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불교수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나흘 간 펼쳐진 성대한 법연, 2008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가 12월 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예년의 팔관회의 틀을 깨고 불교전통문화인 팔관회와 산업박람회를 접목해 하나의 축제로 재탄생시켰다는데 의미가 깊다. 팔재계수계법회, 연등공양관음기도, 영가천도지장기도, 대입합격발원합동기도 등 팔관회 법회는 물론 불교미술, 용품, 여행, 서적 등 불교 산업 유관업체 150여 곳이 총 200개 부스를 설치한 박람회의 형태를 결합한 대규모 기도와 축제의 장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월 4일 3시 개막식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헌화, 허남식 부산시장의 고불문,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의 대회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설동근 회장의 봉행사, 감사패 전달,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탐욕에 끌려 욕망·욕심에 물들어 있으면 맑고 청정한 지혜에 머물 수 없다"며 "항상 자신의 마음광명에 머물러서 가고 옴에 늘 맑고 여여한 자신의 참 성품 가운데 있음으로 허공처럼 걸림 없는 삶을 살자"고 설했다. 이어 오후 5시 수계법회에서는 부산경남지역 5000여 불자가 수계를 받았다.

5일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연등공양관음기도가, 6일에는 사찰 연말정산 소양교육, 범진스님의 달마 퍼포먼스, 영가천도지장기도 등이 이어졌다. 7일에는 부산차문화진흥원의 다례 시연, 대입합격발원 합동기도, 폐막식 등이 진행됐다. 박지원 기자

## 작은 힘 모아 이웃사랑 실천

### 부산불교신도회·부산불교교육대학·몰운대복지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교계 복지관과 신행단체가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를 실천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2월 1일 7층 법계정사에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비의 김장김치와 쌀 전달식을 가졌다. 연제구 및 서구, 영도구에서 조손가정,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위기가정 80세대를 추천받아 1세대당 쌀 10kg과 김장김치를 각각 전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사장 강선태)은 11월 28일 교육대학 앞마당에서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부산진구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400여 세대에 김장김치 2000kg을 전달했다.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도 12월 6일 김장김치 2200포기를 다대1동 몰운대 영구임대아파트 및 다대본동 저소득 가정 350세대에 각각 배달했다. 3일간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눴다.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연말연시에 우리 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앞장서 불우이웃을 돕는 모습이 참 맑고 청정해 보기 좋다"며 "다함께 살기 좋은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신도회가 12월 1일 위기가정에 김장김치와 쌀을 전달하고 있다.

## 리더십 캠프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사장 정년)은 1월 19~21일 2박3일간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개최한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부제로 마련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자기탐색과 체험활동, 공동체 활동과 자율활동 등 총 4가지 분야로 나눠 차례로 진로 탐색 심리검사 및 해석, 리더십 함양 심성개발 프로그램, 자신감 강화 스피치 트레이닝, 미디어 활용 자기표현활동, 해안 트래킹 등이 열린다.

초등학교 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참가비는 8만원이다. (051)405-5223, www.youth119.co.kr 박지원 기자

## 교원 직무연수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전국 유치원,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2009년 1월 12~16일 5일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씩 진행되며 총 3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사찰예절, 통도사 인근 불교유적, 한국 사찰의 벽화, 불화이야기, 불화 그리기 실습, 한국의 불교공예, 간월사지와 운문사 현장답사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8만원으로 식대와 답사비, 재료비 일체가 포함돼 추가비용은 없다. 접수는 통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055)384-0010 박지원 기자

## 따뜻한 겨울되기를…

### 법륜회 사랑의 연탄 배달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륜회 택시 안에 비치된 '보시함'에 담긴 작은 동전들이 모여 올겨울 큰 결실을 맺었다.

부산개인택시 법륜회(회장 김덕천)는 11월 27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1가구당 160장씩 25가구에 총 4000장. 모든 연탄은 법륜회 회원 100여 명이 손수레와 지게를 이용해 직접 배달하고 위로 인사를 전했다.

김덕천 회장은 "이 연탄 한 장 한 장은 모두 그 동안 법륜회 택시를 이용하고 보시해준 부산시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것"이라며 "우리는 배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개인택시 법륜회는 매년 보시함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결손가정 청소년 장학금, 경로잔치, 마산국립결핵원 의료봉사, 고아원 봉사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광고는 서체 문제로 따로 보냅니다~ ^^
잘 부탁드려요

# "환경운동 위해 '화엄경' 이해해야"

## 불교환경연대 초청강연서 김지하 시인 주장

'오적(五賊)'의 김지하 시인이 광주를 찾았다.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공동대표 법일)는 11월 29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2008 정기총회 및 김지하 시인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150여 불자들이 강당 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김지하 시인은 <화엄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인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는 자연과 생명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자각을 통해 가능하다"며 "환경운동을 위해서는 <화엄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법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도 회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초를 튼튼히 하며, 생명과 평화를 애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하 시인은 11월 29일 초청강연회에서 <화엄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는 정인봉의 오카리나 연주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올해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는 동영상 상영, 다과회도 함께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어린이 생명학교와 환경법회, 빈그릇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사업, 5·18묘역 작은음악회 등 사업을 2009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도제 스님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라"

## 불일청년회 창립 29주년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이승동)는 11월 29일 광주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창립 29주년 기념법회 및 원각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역대 청년임원단과 문빈정사 청년회 박민서 회장, 대불련 광주지부 회원, 각 불교신행단체 등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제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 법을 통해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앞서 이승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각사 불일청년회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법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로 많은 일들을 이뤄왔다"며, "선배들의 큰 원력과 회원들의 초발심으로 새로운 청년불교의 중흥시대로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원각사 청년회는 34대 회장으로 범정택 법우를 선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고창 사회복지 발전 방안 모색

## 고창복지관 개관 1주년

고창지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발한 활동중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공, 이하 복지관)이 분주하다.

복지관은 11월 28일 개관 1주년 기념 사회복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12월 2~3일 자비나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세미나는 '농어촌 주민의 사회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고창지역 사회복지 지원 현황을 살펴 체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공 스님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는 무공 스님 등 복지관 직원과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모양적십자회, 고창 YWCA, 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 복운 자원봉사단, 고창 성두부대 장병 등 고창지역 단체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대불련 광주지부 새 출발

## 6년 만의 조직정비… 정기사찰순례 등 계획

최근 6년여 동안 활동이 중단됐던 광주지역 대학생 불자 모임이 어렵게 다시 재개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47년차 광주지부(지부장 오경민, 이하 대불련 광주지부)는 11월 28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증심사 주지 지장 스님과 초대 광주지부 창립회원인 이순규 교수(서남대)를 비롯한 대불련 동문, 대학생 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장 스님은 법문에서 "대학생 불자들이 외면보다는 자기 내적인 것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모든 향기 가운데 사람의 향기가 가장 멀리 가듯 스스로를 정돈하고 정진해야 오랜 기간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오경민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대학생 불교활동이 매우 힘들다"며 "어려운 위기일수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생활하자"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대불련 광주지부는 더욱 힘찬 정진으로 21세기를 선도해 나아가는 보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00년초부터 어려운 부침을 겪었던 대불련 광주지부는 내년에도 새로운 지부장과 임원을 선출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6년여 동안 멈췄던 조직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지부


11월 28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열린 대불련 광주지부 출범식.

법회부터 새로 열고, 각 지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강화하며, 정기 사찰 순례와 불교공부도 준비했다.

오경민 지부장은 대불련 광주지부의 산하 지회인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조선간호대학 불교학생회의 역량을 강화해 지회 법회의 활성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지역문화 접목한 템플스테이 눈길

## 금산사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예정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템플스테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산사체험과 지역문화를 접목해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가운데 김제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11월 28~30일 금산사 산사체험 참가자들은 전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타악연주그룹 '동남풍'의 공연을 관람하며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찰 내 문화재안내, 발우공양, 예불, 다도, 울력을 기본으로 명상, 참선 등 수행프로그램과 연등이나 염주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에 전북지역 문화체험 기회를 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산사 산사체험 지도법사 일감 스님은 "산사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도 소중한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 유영미(41 · 서울)씨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가락의 실험적인 공연이 참으로 멋들


금산사 산사체험 참가자들은 타악공연을 관람하며 지역문화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어지고 가락의 흥겨움이 더해져서 매우 좋았다"며 "산사체험을 통한 소리체험이 매우 인상적이며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변화는 처음이 아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와 연계한 템플스테이는 물론 코레일과 함께 'KTX타고 떠나는 산사체험'을 진행 중이다. 금산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한지를 이용한 전통등 만들기, 판소리 배우기, 전통차 만들기, 전주 한옥마을 방문 등 전통 산사체험과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신도임원 연수

## 금산사·전북신도회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와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는 11월 30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원행스님, 정무스님(포교원 포교국장), 보순 스님(전북불교회관 원감)과 신도임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법산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법산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는 자성을 깨닫는 종교"라며 "밝은 마음자리, 맑은 마음자리에는 차별이 없으니 염불, 참선, 기도를 통해 마음맑히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신도회를 중심으로 신행생활이 여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며 "알찬 교육을 통해 원만한 신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 후에는 신도회 임원 간 2009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따로 마련됐다. 2009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익산 원경사 자비 스님

# 기도정진으로 암 이기고 이웃에 회향

수년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행된 전주 35사단 세병호 광장에 연등이 켜지던 날 행사장 한 켠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던 스님이 있었다. 한 사람이 다가가 왜 눈물을 보이냐고 묻자 "너무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스님은 답했다.

이날 말없이 눈물을 감추던 스님이 바로 익산 원경사 자비 스님(사진)인 것이 최근 알려졌다. 당시 왜 눈물을 보이셨냐고 물으니, 스님은 "그동안 35사단 세병호에 걸린 등이 낡아 떨어지고 빛은 바래고 부끄러웠는데 1000개 등을 스님이 보시하고 환하게 밝혀진 연등을 보니 너무 감격해 그랬다"고 답했다.



스님은 동진출가 후 여군에 입대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자비 스님은 5세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통도사에 맡겨졌다. 출가한 지 올해로 60년이다.

그 후 월하 스님의 권유로 수덕사에서 수행하다가 새색시같이 부끄럼을 많이 탄다는 이유로 은사스님이 권유해 여군에 입대했다. 여군 사병으로 입대해 부사관으로 강원도 원주 1군 사령부에서 근무한 스님은 제대 후 본격적으로 군 포교에 뛰어들었다.

스님이 정기적으로 돌보는 군법당은 여산 부사관학교, 35사단 호국 충경사, 대전 군수사령부 등이다. 이외에도 임실 탄약창 장영사, 제7공수여단을 비롯한 여러 군 법당에서 요청만 오면 하던 일도 제치고 달려간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타종교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보다 찾아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군법당을 포교하리라 발원하고 군포교에 나섰습니다."

원경사 법당 앞에 붙은 '군법당에 쵸코파이 한상자 보내기 운동'을 권하는 문구에서 스님의 군포교에 대한 원력이 느껴진다.

스님의 자비는 군포교에 그치지 않는다. 원경사가 위치한 익산시 왕궁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기탁하며 추운 겨울을 앞두고는 연탄 후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매년 3~4회의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 치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전주의 14세 백혈병 환우에게 매년 5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남모르게 후원하기도 했다.

스님이 이웃을 위해 회향하고 사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한창 수행에 열중하고 있던 1988년 무렵 스님은 후두암 판정을 받았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궁암 등 합병증을 얻었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게 됐다. 스님은 "그동안 부처님 밥만 축냈다"는 생각에 가슴속 깊은 곳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고통을 참아내며 동굴 움막에서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3년 동안 솔잎가루 등 생식으로 기도정진하던 어느날 향기로운 향내음을 맡고는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이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기로 하고 군포교와 이웃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했다.

자비 스님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도 없다.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 자신은 작은 콘테이너 인법당과 쓰러져 가는 요사에 거주하면서도 불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군불자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열린마음상담원
선남선녀 인연맺기 대성사
열린마음 대전 포교원 개원
열린마음상담원
교육상담
선남선녀 성격분석
결혼매칭 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행복상담
한국 다중지능 적성 평가원
나의 인생설계
지능의 우선순위 파악
성격의 유형파악
적성에 맞는 직업파악
학습방향제시
결혼성격분석
다중지능 적성 평가란?
미국하버드대학 교육심리학 박사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피문학(지문학)이 접목된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적성검사 방법입니다.
현대불교신문 대전지사 취재.구독.광고 문의 ☎ 042_223_8214
☎ 042_223_8214
혜정스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 아르젠아파트 상가 1층 (후문 옆)
대성사 홈페이지 http:// dss.or.kr | 다음카페 옥천대성사 따뜻한 만남 인연맺기 http://cafe.daum.net/dasungsa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스님

## "부처님 당시 수행풍토 실천"

"내가 모든 중생을 관찰하니, 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탓으로 악취에 도로 떨어져 윤회를 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길이 계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필코 불환과(不還果)를 얻어서 이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본사경>

부처님은 계를 지키는 공덕을 닦아 성취하면 성불하게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계율을 중히 여기셨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불교는 가풍이 전도돼 계율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 오래다.



혜인 스님.

불교조계종삼화불교는 계율을 중시했던 부처님 당시 수행풍토를 실천하고자 2002년 10월 25일 창종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당나라 도선 율사가 창수한 계율종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신라 자장율사를 종조로 혜인 율사를 중흥조로 종맥을 이어가고자 한다.

삼화불교는 900여 스님과 250만여 신도들이 전국 580여 개 사찰에서 '계율이 청정해야 영적으로 청정할 수 있다'는 원력으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각 본·말사에서 승려교육을 실시해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도들을 위한 <한글 불교성전>을 발간해 신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종단차원에서 입종 5년·수행 20년,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9급 공무원 월급(기본급)에 준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스님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수행을 중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삼화불교만의 특징이다. 또한 매월 보름 '자자(自恣) 참회법회'를 봉행해 스님과 신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생활화함으로써 화목한 사회로의 회향을 지향하기도 한다. 본래 자자는 여름 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안거생활을 함께 한 승려들이 모여 각자의 허물이 있었는지를 동료 스님들에게 묻는 의식이다.

삼화불교는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2003년부터 '4차 5개년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1000개 사찰·500만 신도를 구현함과 동시에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신도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포교계획이다. 2007년도까지 실시된 1차 계획에 의해 현재 중국 청도와 남경, 미국 뉴욕·뉴저지·텍사스·캘리포니아주, 일본 동경과 오사카 등에 삼화불교 소속 사찰이 건립돼 있다.

앞으로 삼화불교는 현재 진출한 국가를 포함해 영국 독일 필리핀 베트남 등에 사찰을 건립해 세계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한국불교가 명실공히 세계 으뜸의 불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율종을 표방하는 종단으로서 계율을 중시하는 수행풍토를 보다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 총무원 (02)511-2026

정리=김진성 기자

# 태고보우 국사 헌창 기념법회

## 15일 중국 절강성 하무산 천호암에 碑제막

"이 가사는 오늘의 것이지만 법은 영축산에서 흘러나와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지금 그것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잘 보호해 끊어지지 않게 하라."

1347년 7월,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칭송받고 있는 태고보우 국사가 중국 호주시 천호암 석옥청공 선사의 곁에서 임제선을 탐구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 할 때의 일이다. 청공 선사는 보우 스님에게 <태고암가>의 발문을 써주고, 깨달음의 신표로 가사(袈裟)를 주면서 위와 같이 말한다.



태고보우 국사 진영.

태고보우 국사가 청공 선사로부터 임제선맥을 계승 받았던 천호암에 보우 스님의 헌창(獻彰) 기념비가 제막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15일 중국 절강성 하무산 천호암(운림선사)에서 '태고보우 국사 헌창 기념비 제막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과 중국 절강성 호주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교무부원장 보경 스님, 최석환 대표(국제선차문화연구회) 등 한국 측 불교·문화계 인사와 중국 측 불교·정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비문에는 보우 스님에 대한 역사·불교적 고찰 등의 내용이 새겨진다.

행사를 기획한 무공 스님(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은 "보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중흥 시조이자 태고종의 종조로써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헌창 기념비 제막법회는 보우 스님을 기리기 위해 국제선차문화연구회 등과 3년 전부터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보우 국사(1301~1382)는 13세에 양주 회암사에서 득도한 후, 46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2년여 동안 수행하던 중 임제 선사의 18대 법손인 석옥청공(1272~1352) 선사를 만나 법통을 이어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공민왕과 우왕 2대에 걸쳐 국사로서 활동하며 임제정맥을 한국에 뿌리내리고, 원효 스님의 화쟁회통(和諍會通) 사상을 원융불교(圓融佛敎) 사상으로 실현해 5교 9산으로 어지러웠던 고려 불교계를 통합,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제막법회 후에는 중국 절강성 호주시에서 한·중 공동 학술대회 '석옥과 태고, 그리고 선차'가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청공·보우 스님의 선 사상과 차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 태고종 비구 120명·비구니 64명 탄생

### 12월 2일 봉원사서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봉행



봉원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제7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비구 120명·비구니 64명의 태고종 스님이 새롭게 탄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2일 봉원사에서 제7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수진 스님(해동율맥 11대 율사)을 전계아사리로, 인공 스님(중앙종회의장)을 갈마아사리로, 월운 스님(사정원장)을 교수아사리로 모신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는 총 184명(비구 120명, 비구니 64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계 받았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신념을 굳게 지키고 본인의 인격·능력을 발휘해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것이 스님의 본분"이라며 "스님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데에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국민화합 기원 보현행원송 메아리

### 제10회 천태예술제 성료



참 생명의 가치 보현행원송(普賢行願頌) 공연.

음성불사를 통한 문화포교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천태예술제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1월 30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민대화합기원 제10회 천태예술제'를 개최, 사부대중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막을 내렸다.

보현행원 실천을 통한 참생명의 가치 구현 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이번 예술제는 금강 무용단의 '하늘 꽃' 공연과 천태전통법패보존연구회의 작법시연 등을 공연했다.

이어 이상규 교수(한양대 국악과)의 지휘로 바리톤 김재일씨, L.M.B싱어즈, 서울·경기 지역 천태연합합창단 250여 명,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이 '참 생명의 가치 보현행원송(普賢行願頌)'을 웅장하게 공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예술제의 주제처럼 모든 번뇌가 끝날 수 있도록 보현행원 실천에 더욱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김성숙(56)씨는 "음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불교가 더욱 쉽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이런 공연을 처음 관람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많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공동조사 통해 사실 확인하자"

### 태고종, 보우승가회 현안 타개 위한 공청회 개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대화합을 이뤘으면 좋겠다. 공동조사를 통해 계획적인 비리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지겠고, 그렇지 않다면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집행부 비리 의혹 등 종단 현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 "종단의 각종 문제에 대해 총무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동안 종단 집행부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던 태고종 보우승가회는 12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회의실에서 운산 스님 등 종단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종단 현안 타개를 위한 보우승가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경과보고, 총무원장·보우승가회장 모두발언,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우승가회장 도산 스님은 "보우승가회는 그동안 종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오해 속에서도 수많은 종단 내 의혹 사안들을 조사했다"며 "상처가 있다면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운산 스님의 '사실확인 의지'에 뜻을 같이했다.

이 날 공청회는 △사회복지법인 논산 노인병원 △남양주 도법사 △울산 옥룡사 △사회복지법인 화지동 토지매매 △벽제 극락사 △태고원 천중사 등의 의혹 순으로 보우승가회 측이 운산 스님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운산 스님이 옥룡사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보우승가회 측이 이를 받아들여 중도에 마무리됐다.

김진성 기자

## 태고종 중앙종회 개최

### 12월 11일 전통문화전승관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는 12월 11일 오전 11시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96회 정기종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중앙종회는 2009년도 종단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종법(지방 종무원법)개정안 및 종단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태고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 중앙종회를 통해 종단 안정과 종도 대화합을 위한 종도의 뜻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스리랑카 케라냐 대학이 보장하는

미국-영국 대학유학을 위한 확실한 길!

무시험입학 전형 및 특전 [수능성적 무관 - 내신성적 무관]

학생들이 강의 필기, 독해 공식적 프리젠테이션, 개별토론 및 토의, 논문작성, 심화독해 문어체 텍스트분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대학교수준의 공부를 학생들이 할 수있게 하기위해서 학생들을 영어 및 학습에서의 여러 요령을 터득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며, 그 요령은 아래와 같은 것 들이다.

- 학문적정취 및 필기 - 일반적 논문 및 보고서 - 구두(口頭)발표
- 교직원 및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교환 - 학문적 독서 및 비판적 본문분석
- 요약과 해석 - 조사 및 도서관 활용법 - 컴퓨터 기술과 그 향상 -시험대비

케라냐대학에 입학했을시 누릴수 있는 특혜

스리랑카에 있는 외국대학 (미국유학 : ANC,American School / 영국유학 : England School)에 입학할수 있다.

◇ 그리고 2학년 수료후 미국, 영국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ex) 미국 - Boston대학, 뉴욕대학 / 영국 - 옥스퍼드 대학 등
◇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대학의 2학년에 입학시험없이 편입
◇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을 다닐수있다. (영어연수 / 전공과목이수)
◇ 남녀분리 기숙사가 완비되어있다.
◇ 학생비자는 스리랑카 케라냐대학이 스폰서를 맡아 발급하므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스리랑카국제불교재단 이사장 해각지성

◇ 한국본부 : 성불사 주지 해각지성 스님
◇ 상담전화 : 서울지사 (02)813-3739 / 직 010-2519-0100




'법화경 강의' 출판기념 초청법회

# "그대는 이미 부처를 이룬 것이다"

**법 사 :** 무비 스님
**주 제 :** '법화경' 강의
**일 시 :** 2008년 11월 30일
**주 최 :**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
**장 소 :** 불광사 보광당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법화경 강의>(불광출판사) 출판 기념법회가 11월 30일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에서 봉행됐다. 이날 무비 스님은 대승불교의 꽃 <법화경>에 관한 법문에서 "사람이 부처님이다"라는 인불(人佛)사상을 시종일관 강조하며 '부처아들(佛子)'다운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무비 스님은 인터넷 전법도량 염화실(cafe.daum.net/yumhwasil)을 통해 전법에 힘쓰고 있는 이 시대의 강백이다. 스님은 현재 범어사 강주로 있으며 많은 집필활동과 전국 각지 법회를 통해 불자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 역저서로는 <금강경오가해>를 비롯해 <금강경 강의> <화엄경강의> <사람이 부처님이다> 등 다수가 있다. 경전과 조사어록뿐 아니라 동양 고전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더불어 보통 사람의 평범한 일상에서 진리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탁월한 통찰력이 담긴 무비 스님의 법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


11월 30일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에서 무비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불자들.

요즘은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국제 · 국내 사정이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갖게 만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불안한 점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까닭에 그 불안은 더 가중됩니다.

이럴 때 불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부처님 제자다운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첫째 이런 상황에 의연해야겠고, 둘째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로서 이러한 시대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면 불교정신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진리, 사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의지처가 될 <법화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길을 가다가 황금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곧바로 나무를 버리고 황금을 한 짐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값은 나무보다 수 만 배나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 있어서도 불완전한 가르침을 버리고 진실한 가르침인 <법화경>의 길로 바로 들어온 것은 하루의 공덕과 수 만년의 공덕으로 비교됩니다. 그러므로 육조 혜능 스님은 나무꾼의 길을 버리고 불법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여러 불자들은 삿된 가르침을 버리고 참다운 성인의 가르침에 귀의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닌 민족, 국가, 사회에 다 적용되는 '진리의 가르침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은 하나의 진리를 다양한 방편으로 종합해 엮어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경 중의 왕입니다.

<법화경>의 원래 이름은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으로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꽃의 특징은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더러운 곳에 있지만 늘 깨끗합니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이죠. '처염'은 우리의 현실, 삶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부패, 비리, 영광에 뒤섞여 있는 현실의 내면에는 청정하고 위대한 사람의 지고한 가치, 본질이 늘 내재해 있다 해서 '상정'이라 표현합니다.

둘째로,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있습니다(花果同時). 대개 다른 열매들은 꽃이 피어서 그 꽃이 질 무렵에 열매를 맺지만, 연꽃은 꽃이 피기 전에 이미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이 왜 <묘법연화경>을 연꽃에 비유했냐 하면, '꽃이 사람이라면 열매는 부처님'이라 본 거죠. 일반적인 불교에서는 중생이 수행을 해 그 결과로 부처가 된다고 표현하나 <법화경>은 '사람과 부처가 동시이며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색향미묘(色香美妙)입니다. 색과 상이 미묘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만큼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내면성을 깊이 깨달으시고 널리 펼치는 것이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법화경>은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은 일불승(一佛乘)이며 목적도 일불승이라 했습니다. 모든 삶을 부처의 모든 것으로 귀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서 별별 삶이 가능합니다. 당장 아귀, 축생, 아수라도 될 수 있습니다.

천태 스님께서는 한 순간의 생각 속에 삼천 종류의 삶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별별 것이 있는데, 부처님은 이를 이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일불승이라 한 부처의 삶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선한 마음 쓴다고 부처가 아니고, 악한 마음 쓴다고 중생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쓸 줄 아는 그 사실이 부처다'고 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 할 줄 아는 능력, 웃을 줄 알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을 줄 아는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결론적으로 <법화경>에서 수기로 표현했습니다.

<법화경>을 다른 말로 하면 수기경(授記經)입니다. 그래서 사리불부터 십대제자까지 500제자를 수기합니다. 심지어 천하의 무도한 악인까지도 부처라고 수기합니다. 악한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할 줄 아는 그 당체, 그것은 곧 한 생각 돌이키면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일 할 줄 아는 것은 바꾸면 악한 일도 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할 줄 아는 이놈이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차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방편품(方便品)'에 보면 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를 뭉쳐놓고 그것이 불탑이라고 장난을 칩니다. 부처님은 이를 개이성불도(皆已成佛道)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는 뜻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망상과 번뇌가 들끓어 부처님 앞에 고개를 한번 숙인다던지 "나무불"하고 염불을 한다던지, 절을 하기 싫어서 손을 한번 부처님 앞에 들었다 놓는다던지 이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부처를 이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런 경전입니다. 확인하면서 정신을 다지십시오. 모든 가르침들이 염주 꿰듯이 쭉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법화경>은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것을 인격과 몸, 모든 삶에서 실천하기를 강조합니다. 절에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염불하는 것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염불이 천배, 만배 공덕이 수승하다고 합니다. '방편품'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꽃 한 송이 공양도, 나무불이라는 염불 한마디도, 탑전에 고개 한번 숙이는 일도 모두가 다 이미 성불해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그대로 부처님으로 예배 존중 찬탄 공경 공양하며 살 때 모든 인간의 지상목표인 행복이 성취될 것이며, 그것이 행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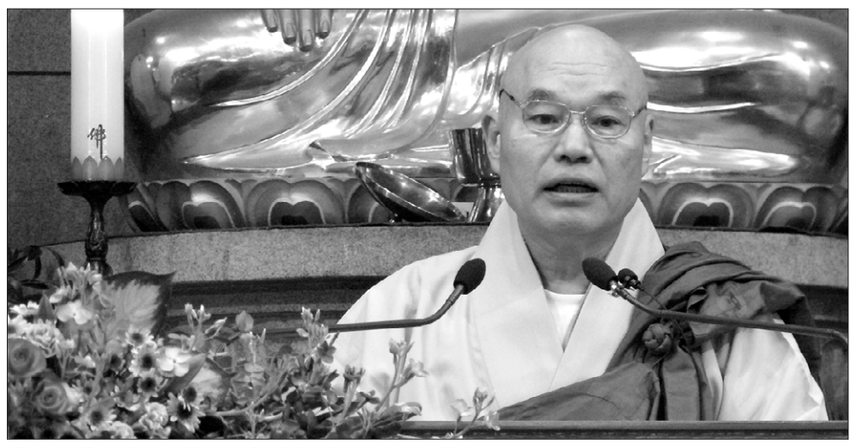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개시오입 불지견(開示悟入 佛知見)'이라고 했습니다. 개(開)란 개발한다는 뜻이니, 무명을 파해 중생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연다는 것입니다. 시(示)란 드러내 보인다는 뜻으로, 이미 미혹과 장애를 모두 끊어서 지견의 본체인 법계의 참된 덕을 드러내 보임을 말합니다. 오(悟)란 각오(覺悟)를 가리키는데 진실된 실상의 본체를 원만히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入)이란 증득해 들어간다(證入)는 뜻으로, 중생에서 부처의 지견(지혜)을 증득해 걸림이 없고 자재함을 말합니다. 이로써 부처의 지견(지혜)을 열어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은 오랜 수행 끝에 자신과 중생 모두가 고귀한 부처의 생명,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펄쩍 뛰면서 "이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저 못난 중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는가"하셨다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안목을 가진 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다운 모습을 바로 보신 분이라는 것이죠.

인불(人佛)사상은 이미 불교에 있었는데 이제라도 물리 · 사회 · 인문학계에서 깨달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차츰 접근해가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파했는지, 이것이 가치 있는 종교이며 참다운 성인인지를 명철한 안목으로 판단해야 해요. 그것을 우리 불자들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곳곳에 그런 경전의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말하자면 부처님의 혜안(慧眼)입니다.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법화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내가 살아있는 신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부처님이구나, 활신이요 활불이고 생불이구나"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부처님과 인연이 됐으니까, 이 사실만이라도 알고 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아 내가 부처님이구나 진정 부처님이구나, 부처가 되는 데에 아무런 손색이 없구나. 내가 비록 늙었든 무식하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몹쓸 병에 걸렸든 장애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정말 위대한 존재, 아프면 아플 줄 알고 기쁘면 웃을 줄 아는 무량공덕, 무량생명, 무량광이구나.' 이러한 사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라는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무비 스님은 <법화경>의 핵심사상은 인불(人佛)사상이라 강조했다.

## 마음 쓸 줄 아는 그 사실이 부처… 人佛사상이 핵심
## 차별없는 마음으로 모두 부처님으로 대할 때 행복 성취


새로운 체험, 환희심을 안고 회향하였습니다




유마 최면 연구소에서는 2008.11.25~26일까지
전북 정읍 칠보암 수련원에서 평생회원들이
모여 유마 최면 연구소 만의 독특한 훈련법으로
자기 최면 수련회를 갖고 회향하였습니다.

〈 자기 최면 수련회에 참석하신 평생회원님들께 〉

- 예상외의 참석 인원에 놀랐습니다. (30명 예상에 43명 참석)
- 요사가 모자라 법당에서 주무신 몇분 스님께 지면으로 사과드립니다.
- 얼마나 자기 최면에 대한 욕구가 강렬했는지 온몸으로 절감했습니다.
- 그성원을 좋은 프로그램과 정열로 보답하겠습니다.
- 유마 최면 연구소는 **책임교육, 평생교육**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최면!!
올해가 가기전에 완성하십시오!

전생 빙의 퇴마 치료최면

본 유마 최면 연구소에서는 2008년이 끝나기 전에 최면 공부를 완성 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스님 사정에 맞게 스케줄을 짜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활용 하시길 기대 합니다.

〈 특기사항 〉

1. 10명의 소수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 최단기 집중 현장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비
4. 개인교습식의 일대일 책임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실전교육
6. 새로 개발된 태크닉 수시로 전수 하는 평생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 최면상담 ※ 자녀 교육 상담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온전한 無我 실천이 참수행의 길

법산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12월 동국대 교정은 분주했다. 가을 동안 나무를 떠나지 못한 단풍은 뒤늦게 낙엽 될 채비를 한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시험을 앞둔 마음의 무게만큼 책을 가슴에 안고 종종걸음으로 교정을 오간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2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앞둔 12월 3일, 연구원 원장으로 스님으로, 대학교수로 한국 불교학 중흥에 힘쓴 법산 스님을 만나기 위해 동국대를 찾았다.

동국대가 위치한 남산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인경산으로 불렸다. 조선 태조가 건국 2년 만에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 후 "궁궐 남쪽에 있는 산이니 남산으로 개명하라" 해 남산으로 지칭됐다. 남산의 다른 이름, 목멱산이란 명칭은 나라의 평안을 기원해 산신령을 모신 신당을 남산에 세웠던 데서 기인한다.

남산은 풍수지리로도 중요했다. 서울로 도성을 옮기게 한 무학대사가 서울 천도를 결심하기 전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 올랐다. 대사는 우면산 우면대에 올라 동서남북을 살피며 "잠자는 소의 목 끈을 남산에 매어놓아야 한강수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을 만큼 남산은 서울의 중심이었다.

동국대 교수회관에 위치한 스님의 연구실에 들어서니 법산 스님이 천진한 미소로 객을 맞는다.

"차부터 한잔 합시다."

'눈 마주치는 곳에 도가 있다(目擊而道存)' 고 했던가. 지긋이 바라보며 차를 따르는 본 스님의 시선에서는 벌써 말없는 법문이 다관의 물줄기를 따라 찻잔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향긋한 녹차 내음을 가득 품고 찻잔을 몇 배나 돌렸을까. 스님의 유수(流水)한 법문이 찻잔을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마시는 녹차는 구증구포(찌고 말리기를 아홉 번)한 것입니다. 구증구포 해야 좋은 차라 불리며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하지요. 뿌리가 곧아 땅 속 깊숙한 곳의 기운까지 모두 빨아올리는 차나무는 잎에도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이 얼마나 독하면 염소도 찻잎은 먹지 않아요. 아홉 번을 300℃ 이상의 고온에서 찌고 말리고 반복해 독성을 제거해야 우리가 차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발효차도 똑같아요. 방법만 달리해 여러 번 비빈 후 발효시켜 독성을 없앤 거지요.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지향은 '전식득지(轉識得智)' 입니다. 식(識)이 변화한 후에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식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행해야 식이 전환될 수 있어요.

(스님은 다관에 새 물을 채우며 말했다.) 깨끗한 물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성질이 바뀌고, 쓰임이 달라지고, 이름이 정해집니다. 지금 이 물은 찻잎을 넣어 녹차라 불리지만, 커피를 넣으면 커피요,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되지요? 본래 물인데 물맑에 따라 이름이 바뀌듯 저 역시 스님으로 살지만 "내가 스님입네"하고 자만심을 갖으면 상에 머무는 것(住相)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대접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저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가 조용하겠어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의식도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隨處作主 立處皆眞)' 라는 말입니다.

간화선 수행은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은산철벽(銀山鐵壁) 같은 관문을 무너뜨릴 힘이 쌓이게 됩니다. 은산철벽이 턱!하고 무너진 순간이 바로 오도(悟道)의 순간입니다. 은산철벽은 다른게 아니에요. 고집불통. 바로 '나' 라는 생각 때문에 미혹하고 은산철벽 안에 스스로 갇힌 것이지요.

(찻물이 바닥에 조금 흘렀다. 스님은 찻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바닥이 더러우면 닦아내야 합니다. 닦고 또 닦고. 거울은 보이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기억하지 않고 담고 있지 않아요. 선입견은 없는 것을 존재시켜 문제인 것입니다. 노랑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노랗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정말 노랗게 물든 것은 아닙니다. 안경을 벗어야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 있듯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노랑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내 고집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든 껍질을 깨고 벗어나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깨침입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 '나' 라는 생각부터 조복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는 <금강경>의 '항복기심(降伏其心)' 이나 <법화경>의 '절복기심(折伏其心: 그 마음을 절복 받음)', <화엄경>의 '조복기심(調伏其心: 그 마음을 조복 받음)' 모두 마음 수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 모두가 수행지침서입니다. 어떤 경전이든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새기고 새기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스님 말씀을 들으니 다리가 저려왔다. 어찌 아셨을까?) 살다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고비만 넘기면 어느 순간 편안해집니다. 참지 못해 더 큰 불행이 닥치는 것이지요. 고비를 넘기기 어려우면 '관세음보살' 을 찾으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다보면 고통이, 번뇌가 사그러듭니다. 마음의 안정 속에 착상되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반야 지혜에요. 보시 · 인욕 · 지계 · 정진 · 선정 · 지혜 육바라밀이 있지만 육바라밀은 결국 반야바라밀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무념(無念) · 무상(無相) · 무주(無住)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별과 집착을 버리려면 '보시' 가 최고이며, 보시 하는데는 '인욕' 이 필요합니다. 인욕하면 마음이 편한해져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전화 받을 때도 "관세음보살"하고 받습니다. 호신불로 관세음보살을 모시는데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어머니 미소처럼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보다듬어 주는 관세음보살을 어머니에 투영함은 불자라면 당연한 생각일터, 법산 스님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 싶어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10세 때 모친이 별세했어요. 학교 다녀오는 길에 집 담장을 끼고 대문에 다다랐을 때 집밖까지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중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생활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모와 이복동생이 생겼고, 친척들이 대하던 분위기도 변했지요. 한 사람(어머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사실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계속 공부하고 싶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나무하고 물 긷는 틈틈이 글자로 쓰인 것이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어느날 할머니가 "공부하고 싶으면 절에 가보라"고 권하더군요.

15세에 출가를 결심하고 남해 망운암을 찾았습니다. 은사 덕산 스님에게 다음날부터 염불을 배웠는데 처음 배운 것이 저녁종송입니다. "이 종소리 듣자마자 번뇌망상 끊어지고 불법지혜 자라나며 지옥고통 사라지고 삼계고해 벗어나며 무상불도 증득하여 중생제도하여지다(聞鐘聲煩惱斷 智慧長菩提生 離地獄出三界 願成佛度衆生)." 구절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1961년 남해 화방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습니다. 수계 후에는 은사스님에게 중학교 강의록을 사달래서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절에 고시공부하러 왔던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루느라 찾았던 고성 옥천사에서 노전 보며 살기도 했습니다.

마산대학 종교학과에 진학해 마산 봉국사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범어 전문이던 김도안 교수가 방학 전 제게 <범어문법> 책을 외워 쓰라며 주길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범어실력을 본 서경수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권유로 동국대에 편입했고요. 서 교수 인연으로 통도사 극락암도 찾아 1968년 경봉 스님을 만났고, 후에 건당까지 했습니다.

석사는 <중론>을 전공해 원희범 교수에게 지도 받고, 당시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이 개설전이라 박사과정은 불교학과로 진학해 김동화 박사에게 지도받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수강생이 하나여도 꼭 강단에 서서 강의실에 학생이 꽉 들어찬 듯 강의했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배운 교수와 학생이 융화된 가르침은 교수생활 하는데

## "수행도 녹차의 '구증구포' 처럼 해야하는 것"
## "의심하고 또 하다보면 '나' 라는 생각 무너져"

**법산 스님** 1945년 경남 남해 출생.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사. 동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조선의 연구>로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했다. 유학 시절 대한불교 홍법원을 설립해 해외포교를 실천했고, 교수 임용 후에는 학계 뿐 아니라 조계종 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도제양성에 앞장섰다. 동국대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한국선학회 • 한국정토학회장 등을 거쳐 조계종 고시위원장, 보조사상연구원장, 인도철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작,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 · 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12. 13(토) 오전 9시부터 ~ 12. 14(일) 오후 1시까지 (12월 12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116회 3000배 용맹정진
강력한 대긍정의 밝은 기운! 찬란한 부처님 가피! 소원성취 저절로...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2008년 12월 13일(토) 저녁 9시 ~ 2008년 12월 14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신규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수 행 도 우 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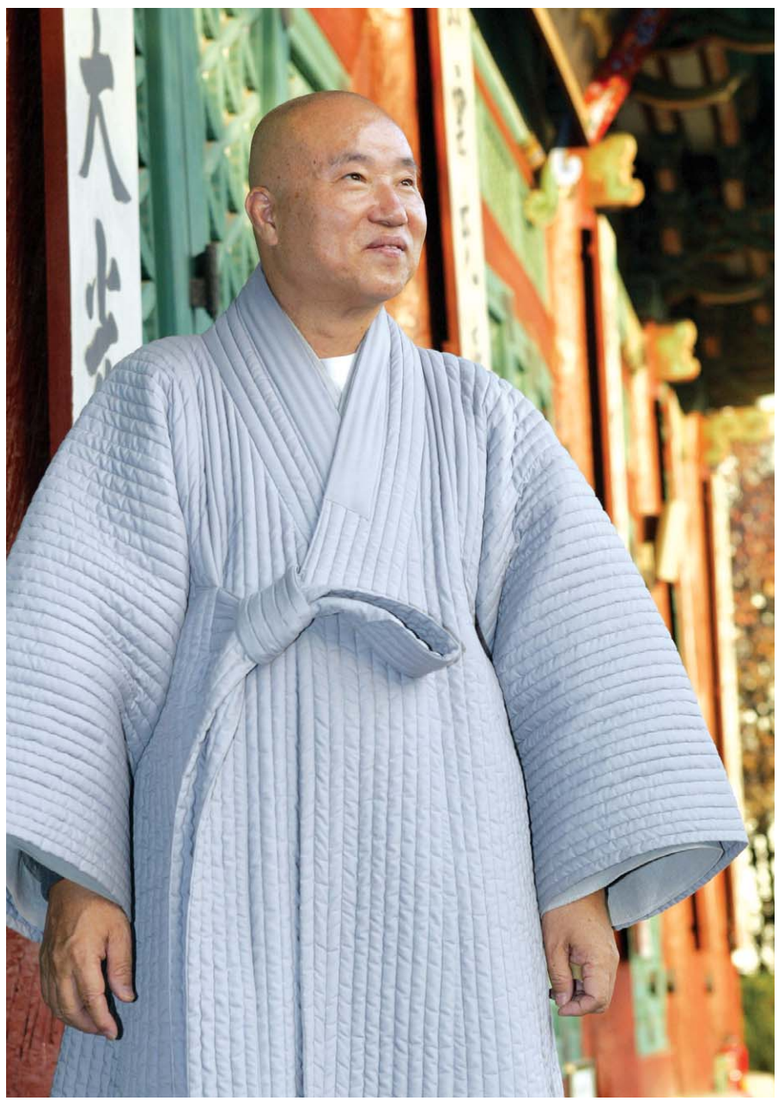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뻣뻣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 (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 분별과 집착 먼저 버려라

선지식을 찾아서 법산



큰 힘이 됐습니다.

탄허 스님이 세검정에서 <화엄경>교정 강좌를 열었을 때 무비 · 통광 · 시몽 · 영관 스님 등과 내전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성균관대 유학과 이동식 선생 강의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출가자의 본분을 지키려 학교공부 중에도 방학이면 극락암을 찾아 안거(참선) 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최근에도 벽송선원을 찾아 하안거를 지냈다.)

1980년 조계종 포교원 상임포교사 겸 포교국장을 살면서는 조계사에 불교교양대학을 처음 세웠습니다. 인도유학을 준비하다 탄허 스님이 "인도가지 말고 중국으로 알아보라"는 말에 중국어부터 새로 배우며 중국유학을 준비했어요. 어른 말씀은 새겨 들어야합니다.

중국유학 준비를 마치고 경봉 스님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스님은 "중이 참선해서 도 깨치면 돼지 유학 갈 것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른 말씀은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서울로 돌아와 한 달쯤 지나 다시 찾아뵙습니다. 스님이 "그래? 너 한번 법문해봐라"해서 극락암 대중 앞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을 지켜보신 경봉 스님이 "됐다. 가서 국제포교사해도 되겠다"해서 유학을 허락 받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불러 방석 밑에서 학비에 보태라며 봉투를 꺼내주시는데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 다짐하고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동가식서가숙하며 머물 곳을 찾다가 장만도 교수(중국문화대학) 소개로 혜일강당에 갔습니다. 주지 여허 스님이 "한국과 중국은 국적만 다를 뿐 신앙은 하나고, 수행 목적이 같지 않냐"며 입방을 허가했습니다. 주지스님 방을 나와 법당을 거쳐 제 방으로 가는데, 법당 부처님이 어찌 그리 거룩해 보이던지… 먼 이국땅에서 도반처럼 어울릴 수 있던 것은 모두 부처님 덕분 아니었겠어요? 혜일강당 회주로 <중국선종사>를 저술한 근대불교학의 석학 인순 스님에게 배웠고, 철학연구소 오경웅 박사에게 선학을 배웠습니다.

대만에 있으면서 대만 최초의 한국사찰인 홍법원을 설립했습니다. 혜일강당 주지가 바뀌어 유학생 법회 열던 곳이 마땅치 않아서였는데 어머니 별세 이후 한사람의 인연 따라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게 있어 환경 변화는 수행과정의 새 계기였습니다. 환경에 적응할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요. 나아가 '받아들인다'는 말에는 '나'가 남아있습니다. 환경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다른 예로 스승의 말씀은 따르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기설법하며 임기응변 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동질성을 찾아 이끌어 가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냥 바꾸려 한다면 누가,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 지가 중요합니다. 알아차림(sati)도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하라는 것이지요. 선가에서는 '성성적적(惺惺寂寂)' 혹은 '적적성성(寂寂惺惺)'해서 <영가집>에는 위빠사나를 성성적적으로, 사마타를 적적성성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적적은 사마타(고요함, 止), 성성은 위빠사나(알아차림, 觀)로 순서야 어찌됐든 정혜쌍수(定慧雙修) 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스님은 정혜쌍수를 주창한 보조선 전공자로 1987년 법정 · 현호 스님, 박성배 교수 등과 보조사상연구원을 설립한 발기인이다.)

향엄 스님은 마당을 쓸다 날린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서산 스님은 닭 우는 소리에 깨침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대나무 소리, 닭 울음에 깨침을 얻지는 않지요? 뼈를 깎는 수행이 있었기에 깨침의 기연(機緣)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법산 스님이 다시 찻잔을 들었다) 필요(업)에 의해 녹차를 우렸지만 녹차를 순수한 물로 되돌리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나무가 물을 머금으면 배 맛으로, 국화에 주면 국화꽃으로,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다시 물로 되돌리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화학분해나 정수기, 증류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물들어 아뢰야식이 더럽혀진 것을 여래장(불성)만 남겨두고 화학분해 하는 작업이 바로 수행입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게을러서,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지요.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22〉 매헌 장원규 박사

매헌 장원규 박사님은 만년 청춘이다. 언제나 싱글벙글 미소가 입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교무처장 시절부터 서무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소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만도 20년 이상 근속하였다.

원래는 강원도 고성 사람으로 1909년에 태어나 간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건봉사 호산 스님의 제자가 되어 김일우 · 진진응 · 박영호 강사에게 이력을 배워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알다보니 아는 것이 서로 나오려 하여 말이 잘 되지 않아 강의시간에는 '자장가'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본 구택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오산불교학교 교장을 역임한 후 서울 숙명여대 교수를 지낸 이후에는 더욱 아는 것이 많아져 말이 더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박사님께서는 종종 민속종교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

"나는 처음 산 기도를 하고 산신 할아버지께 반했거든. 무슨 음식이 생기거나 입을 것이 생기면 산신 할아버지께 바치고, '단군할아버지, 빨리 이 나라가 주권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는데, 한 번도 나의 소망을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 없어. 나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

큰사람을 만나면 크게 외치고, 작은 사람을 만나면 작게 대하고. 이것이 '대산소산산왕대신 대악소악산왕대신' 아니야? <산왕 경>에 나오는 대로만 하면 밥이 없어 굶거나 옷이 없어 헐벗지는 않는다. 하물며 산신님이 받들어 모시는 부처님을 잘 받들어 모신다면야 더 말할 것 있겠어."

하고 희열에 찬 웃음을 짓는다. 무슨 말이고 물으면 그 자리에서 직답을 피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

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머리는 파마를 하지 않아도 약간 곱슬거려 빗으로 빗으면 바로 물결이 일고, 눈썹은 두툼하여 눈맵시가 순박하게 생겼다. 입술이 좀 두터워 말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는데, 언제나 곤색 양복에 하얀 와이샤스,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다니셨기 때문에 나이에 비하면 10년쯤은 젊어 보였다.

논문은 주로 인도, 중국, 한국의 역사학 편이 많다. 강의 또한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를 가르쳤으며, 특히 <화엄경>의 10지법문과 대승보살의 수행계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십지(十地)수행은 초지(初地)인 환희지(歡喜地)에서는 보시행(布施行)을 가장 우선하고, 다음의 제2 이구지(離垢地)에선 청정한 계행을, 제3 발광지(發光地)에서는 인욕 수행을, 제4 염혜지(焰慧地)에서는 정진바라밀을, 제5 난승지(難勝地)에서는 선정바라밀을, 제6 현전지(現前地)에서는 반야의 지혜가 현전하는 등의 6바라밀을, 나아가 10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으로 기본을 삼고 있다.

"우리는 500년 동안 유생들의 피어린 저격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왔다. 다른 종교 같으면 100년도 못되어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장구한 세월에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사찰 문화재에도 있지만 부처님의 신통력이 알게 모르게 여러 중생들에게 가피(加被)하셨고, 자기 구도에 열심한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하니 누가 누구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은 보지 않는다면 원수 질 염려가 없다.

내가 일생동안 불교를 등지지 아니한 것은 불교의 이 같은 가르침이 좋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는 일본에 들어간 유학생들이 참으로 많았다. 종비장학생도 30여명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도 안되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불교과 출신들이다. 세속사람은 늙을수록 천해지지만, 불교는 늙을수록 귀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불교학과에 들어온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 '화엄경' 10지법문·대승보살 수행계위 관심
### 인도 · 중국 · 한국의 역사학 논문이 많아

이것이 4학년 때 마지막 강의시간의 법문이다. 실로 불교는 인간적 종교로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그 역사의식과 문화의식, 종교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그 가치관이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걱정된다. 전통을 소중히 하고 어른을 섬기며, 밑에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승속을 지나치게 가리고, 종파의 승열(勝劣)을 따지며, 문중의 기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질시하기 때문에 불교내부에서도 화합이 잘 안되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아니했던가.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키고, 같은 견해로 회통해 살며, 말과 뜻과 행을 사랑스럽게 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어라."라고.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완전 수제품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年 7月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걸이,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호신부 패물 부적 재앙 액운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암 공덕하 전법사
02)985-1360 / 010-9964-2550

한국불교조계종
입 종 안 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종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종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진 5매 · 사찰내외부사진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無’ 모든 망상 물리치는 화두”




㊺ 무(無)

오늘날 화두를 참구하는 이들을 본다면 대부분 ‘무자화두’를 참구합니다. ‘간시궐’ ‘마삼근’ 등 여러 화두가 있지만 무자화두 일변도로 흐르게 된 것은 간화선을 만든 대혜 선사(1089~1163)의 영향입니다. 그는 “이 무자야말로 모든 망상을 물리치는 화두‘라고 강조했습니다.

**개 미물로 여겨 불성 있다 없다 차별하면 깨달을 수 없어**
**깨달은 자의 마음은 차별·분별·집착 떠나 일체를 하나로**

다음은 무자화두를 둘러싼 선문답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참선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 같은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당대의 유명한 선승 조주 선사(趙州. 778~897)를 찾아갔습니다.

“선사, 개 같은 동물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이 있습니까?”

“무(無, 없다).”

“위로는 부처님을 비롯해 아래로는 하찮은 벌레까지도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불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없습니까?”

“그것은 업식(業識=중생심,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니라.”

“미물을 포함한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佛性)을 갖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말은 대승 <열반경> ‘사자후품’에 있는 말입니다. 모두 다 불성을 갖고 있다면 사람은 물론이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바탕, 속성, 인자(因子)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수행승은 교학적 사상적으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주 선사의 답은 의외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수행승은 다시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다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게는 없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조주 선사는 “개에게 업식성(業識性=중생심,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먼저 ‘업식성’이란 무엇인지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업식성’이란 중생심으로서 차별 · 분별의식을 가리킵니다.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 등 흑백 논리로 따지는 마음, a와 b로 2등분해 차별, 분별하는 마음을 ‘업식성’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현실적 이념적으로 모든 사고와 대상을 차별,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느 하나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은 중생의 마음으로서 괴로움과 번민을 낳습니다. 따라서 집착은 깨달은 자의 마음, 선의 마음(禪心)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마음은 차별과 분별, 그리고 집착을 떠나서 일체를 하나로 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조주 선사는 왜 수행승에게 ‘없다(無)’고 한 것일까? 조주 선사가 ‘없다(無)’고 한 것은, 그대가 만일 개(狗)가 미물이라고 해 ‘불성이 없을 것이다’ 또는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별 · 분별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중생심으로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는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은 ‘망상’이며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주 선사는 ‘무(無)’ 한 글자로 모든 번뇌 망상과 분별의식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수행승이 조주 선사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체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지만, 과연 개 같은 동물에게도 ‘불성’ ‘부처의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있을까? 그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대의 고승과 일전을 벌여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선승 사이의 문답은 비록 짤막하게 끝난 것 같지만 조주와 수행승과의 대화는 매우 팽팽해 논쟁에 가깝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라이브로 볼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 수행승은 훗날 조주 선사의 ‘무(無)’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화제를 좀 돌려서 어리석은 중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역시 개 같은 동물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성품’ ‘부처의 마음’이 있을까? 그것입니다. 개의 몸, 개의 지능지수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골 형님 집에 12년 된 멍멍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녀석도 우리가 가면 주인 집 동생이라고 꼬리를 흔들면서 매우 반가워합니다. 멀리서 이름만 불러도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준비를 하면 시큰둥해 합니다. “진도 잘 있어”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물끄러미 먼 산을 쳐다 보며 애써 태연한 척 합니다. 개에게도 고독, 이별의 감정 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도 할까? 불성이 있을까?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 생사윤회 면하려면 탐욕 끊고 애정 없애야

㊺ 앗다까시

**부처님 대리에게 구족계 받은 최초의 비구니**
**장로니 비방한 전생 과보로 고급유녀로 환생**

<장로니게(長老尼偈)>에 등장하는 71명의 ‘깨달은 비구니’ 가운데는 원래 유녀(遊女: 성매매 여성)였던 앗다까시, 아바야마타, 비말라, 암바파리라 불리우는 장로니 4명에 대한 기록이 보일 정도로 당시에 이미 성매매가 일반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 네 분 가운데 미모가 출중하고 유명한 장로니는 앗다까시(Addhakasi)였다. <장로니게>에 따르면, 앗다까시는 가섭부처님 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비구니 가까이 가서 법문을 들었고, 믿음을 얻어 출가했다. 그런데 그녀는 계(戒)를 확고히 지키며 분석적인 통찰을 성취하고 번뇌를 멸한 한 장로니를 유녀란 말로 비난했기에 그 과보로, 그곳에서 죽어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후 그녀는 석가모니부처님 재세시에 까시(Kasi) 왕국의 뛰어나고 부유한 상인 가정에 태어났다. 하지만 전생에 저질렀던 말에 의한 악행의 결과로 결국 유녀가 됐고, ‘앗다까시(까시의 반 정도 가치를 지닌 여자)’라고 불리게 됐다.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려면 까시국 땅에서 걷어지는 세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화대가 필요할 정도로 아름다움과 교양을 갖춘 ‘고급 창녀’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교계의 꽃’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정조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옳지 않다는 양심만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이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사후(死後)에도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뽐내온 아름다운 얼굴, 이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자체가 저주스러웠다. 작심한 그녀는 어느 날 동료에게 자신의 뜻을 고백했다.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동료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당황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녀가 출가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나라에 퍼졌다. 그녀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출가하기 위해 나서려는 날, 동료들이 몰려와서 말했다.

“지금 곳곳에 청년들이 숨어서 네가 지나가면 습격하려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실제로, 평소 그녀를 사모하던 청년들이 그녀가 지나가는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라자가하에서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사밧티(舍衛城)까지 가려면 거의 2개월이나 걸려 그녀는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다.

‘출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육신을 깨끗하게 지켜왔는데 남자에게 다시 욕을 당한다면 나는 영원히 출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 그녀는 할 수 없이 심부름꾼을 보내 부처님께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아뢰고 도움을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듯 빙그레 웃으시며 말했다.

“염려마라. 다른 비구니가 나를 대신해 앗다까시에게 구족계를 주리라.”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니를 대신 그녀에게 보내 수계하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대리로 구족계를 준 최초의 예가 됐다. 비구니가 된 앗다까시는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머지 않아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앗다까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혐오하면서, 이 육신은 괴롭고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관(觀)하면서 그 이후에 탐욕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혐오감을 획득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윤회의 근원과 그것을 끊는 방법’을 묻는 미륵보살에게 이렇게 법문하셨다.

“모든 중생에게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갖가지 은애와 애정과 탐심과 음욕이 있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 음욕으로 인해 마음에 맞거나 거스름이 생기며, 그 대상이 사랑의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움과 질투를 내어 갖가지 업을 짓는다. 여기서 지옥과 아귀가 생기는 것이다.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면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목마름을 없애야 한다.”

수행자들은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갈애(渴愛)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스스로 점검할 일이다. 자신을 속이며 무애가(無碍歌)를 부른다면 숨넘어갈 때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김성우 기자

## 신행게시판

●**위빠사나 집중수행 및 자애관 수행**=서울 보리수선원이 12월 위빠사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집중수행은 12월 20~27일, 기본 수행은 22~27일 직장인과 학생을 상대로 오전반(10:00~12:30)과 저녁반(19:30~21:30)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자애관 수행은 12월 21일, 성탄절 특별 집중수행은 12월 25~28일 실시한다. 참가비는 집중수행 10만원, 기본수행 · 성탄절 특별 집중수행 5만원, 자애관 수행 1만원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2)517-2541

●**삼보일배 대정진**=평창 월정사는 12월 31일~2009년 1월 1일 삼보일배 대정진을 실시한다. 31일 신중기도를 시작으로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삼보일배하고 상원사 법종루에서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에 참여한다. 동참금은 자유보시. (033)332-6661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서울 보림선원은 12월 30일~2009년 1월 5일 보림사 선방에서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한다. 보림선원 조실 묵산 스님이 백봉선생 육성법문과 <금강경> <유마경> 등을 지도하며 참가비는 9만원이다. 010-6332-4096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무선마이크 무료보시 합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1월 中 앰프, 스피커 설치 사찰에 한함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염불선이다** 주경 지음 | 무한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 마음속에서 부처 찾아야 해

사람은 누구나 간절히 원하고 무언가 이루기를 바란다. 부모들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며 찰떡이나 엿을 사서 교문 앞에 붙여 놓고 '서울대, 고려대' 하고 암송하면서 빈다. 혹자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사기도 한다. 숫자 하나가 틀렸다고 가슴을 치고 손뼉을 치며 안타까워하면서 말이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화를 내고 욕심내며 또 허망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묶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집착이 되며 마음은 더욱 굳고 단단해진다. 이렇게 굳고 단단해질 때 마음에 부스러기가 생긴다. 마치 우리가 오렌지를 손안에 꼭 쥘 때 작은 물방울이 얼굴에 와서 닿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작은 부스러기가 생긴다.

<이것이 염불선이다>의 저자 주경 스님(성원사 주지)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가지 독(三毒)' 즉, 업(業)의 아지랑이가 생긴다고 한다. 스님은 이럴 때 마음을 곱게 써 탐진치(貪瞋痴)를 녹여야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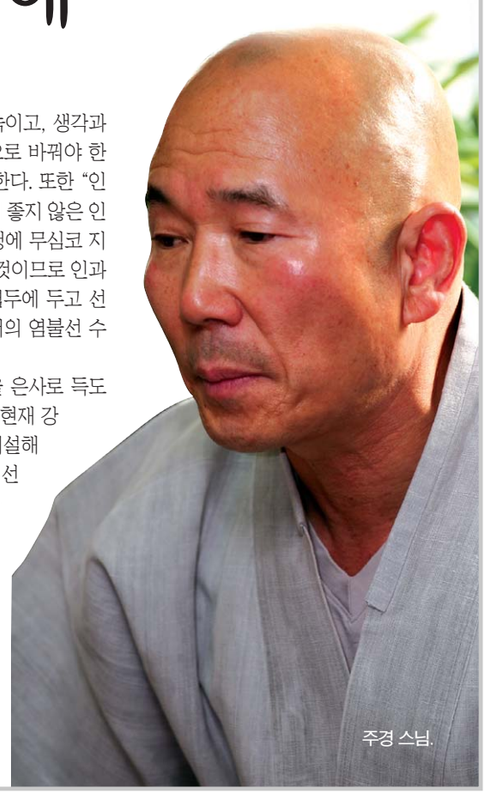
주경 스님은 염불선(念佛禪)을 본격적으로 보급한 청화 스님(1924~2003)의 뜻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염불선이란 모든 존재가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 부처가 먼 곳에 따로 있다고 여기지 말고 마음 안에서 부처를 찾아야 한다는 관점아래 염불과 선을 함께 닦는 선정불이(禪淨不二)의 수행법이다.

탐진치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위한 책인 <이것이 염불선이다>는 믿음(信) · 앎(解) · 실천수행(行) · 깨달음(證)의 4부 및 청화 큰스님의 법문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스님은 우리가 지은 업을 믿음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믿음이란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 절대긍정으로 부정이나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냥 문제거리인 일에도 '그렇거니~ 그렇겠지~' 하는 것이다. 스스로 그렇거니(自然) 하여 '나와 너'라고 하는 집착의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자연과 하나 돼, '나와 너'가 없게 되는 것이 해탈이며 열반이고 성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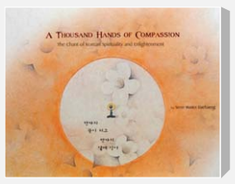
스님은 책에서 "알든 모르든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든다. 곧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우리는 업에 맞는 국토와 사회와 가정에 태어나고, 일생 동안 갖가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회를 통해 지난 업을 녹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고 평화로운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 인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과를 믿어 참회하지 않으면, 속세의 좋지 않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금생에 무심코 지은 많은 업들이 내생에 고통이 될 것이므로 인과의 법칙을 믿고, 항상 그 과보를 염두에 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의 염불선 수행을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태안사 청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30여 년간 참선 수행을 했다. 현재 강릉 성원사에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운영 중이고 각국에서 사미 스님을 선발해 한국 불교의 수행법과 문화를 직접 기도하며 국제포교사로 양성하는 등 불법 홍보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강남 대치동에 정중선원을 개원해 불자들에게 염불선을 지도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주경 스님.

## 간결한 문체로 경전 본래 뜻 살려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대행 스님 한글번역 · 한마음국제문화원 영어번역 | 임 효 그림
한마음출판사 펴냄 | 2만원

사찰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의식에서 기본적으로 독경되는 경전은 <천수경>이다.

그런데 왜 <천수경>은 다른 경전들처럼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자칫 <천수경>을 위경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천수경>은 대장경의 밀교부분에 있는 다라니와 진언, 게송 등을 독송용으로 편집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형태의 경전이다. 학자들은 오늘날의 <천수경>이 조선시대 서산 스님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 이전에도 <천수경>에 편집 삽입된 다라니와 진언 게송 등이 애송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며 애송된 경전인 <천수경>은 의외로 한글로 번역되거나 풀이된 경우가 많지 않다. 경전 자체가 다라니와 진언을 중심으로 편집돼 있어, 풀이 보다는 독송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수경>의 내용을 한글로 풀어 그 가르침을 생활수행으로 접목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이 한글과 영문을 함께 담은 책으로 출간됐다. 책의 우리말 제목은 <만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이며 영문 제목은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대행 스님의 <천수경> 풀이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읽을 수 있을 만치 간결하고 유려하다. 경전의 본래 뜻을 쉽고 간결한 문체로 충분히 살려낸 것이다. 한국화가 임효씨의 삽화도 선적 풍미를 듬뿍 담고 있어 눈을 시원하게 한다. 이 책은 이미 지난 10월 독일 프랑크프루트 북 페어에서 해외 출판인들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으며 독일어판 출간 상담도 진행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 '죽음'의 비밀을 파해친 불교 최초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 장홍스 지음
장순용 옮김 | 김영사 펴냄 | 1만8000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티베트 사자의 서>는 '죽음'의 모든 비밀을 파헤친 티베트 불교 최고의 경전이다.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 출간됐지만 글만으로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번에 나온 책은 기존에 나왔던 <티베트 사자의 서>들의 단점을 보완해 새롭게 풀어쓴 책이다. 이 책은 대만의 티베트 불교 전문가 장홍스(張宏實)가 이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다. 또한 '그림으로 풀어내는(圖解)' 방식으로, 도표와 그림 및 문자의 방식을 활용해 불법과 관련된 지식이나 어휘를 사용, 마인드맵(mind map) 방식을 사용해 죽음과 환생의 계통도를 그리고, 수많은 신의 방위, 피부색, 나타나는 시기 등을 도표로 정리했다. 문자 서술이 아닌 시각 자료를 사용해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죽음의 과정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진정한 '사망지도'다.

이나은 기자

## 이땅을 다니며 만난 토박이들의 대한 기록



**뭐라, 내한테서 찔레꽃 냄새가 난다꼬**
이지누 지음 | 호미 펴냄 | 1만원

한국의 삶과 정서, 문화를 섬세하게 돌아보는 관찰자이자 기록자인 이지누가 이 땅을 샅샅이 다니면서 만난 토박이들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엮어 냈다. <뭐라, 내한테서 찔레꽃 냄새가 난다꼬>는 일백 년 한 평생을 성주 수륜면 작은동의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가신 문상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문옹은 흔히 말하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전형적인 산골 촌부이다. 15살 때부터 시작한 농사일에 대한 자신만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문옹에게는 농사가 삶의 전부이며 고집이기도 했다. 저자는 "문옹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한 생을 일구어 온 것을 짧게나마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겐 참으로 소중하고 큰 경험 이었다" 며 "그이의 생각은 불가(佛家)의 선사(禪師)들 보다 오히려 간결했으며 그의 말은 함축적이었다. 진리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진리의 근원에 다다르지 못할 법도 없음을 문옹을 만나면서 배웠다"고 말한다.

이나은 기자

## 선불교 유적지에서 만난 달마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김성종外 지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9800원

십 수년 전부터 인도를 찾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었다. '명상'이나 '느림'을 찾아 떠난 이들도 많았지만 꽤 많은 숫자가 부처님이 탄생하고 열반한 유적지를 찾던 스님과 신자들이다. 하지만 몇 년 전 부터는 오히려 중국을 방문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숫자가 부쩍 늘었다. 3개월 동안 선방에 앉아 참선에 들었던 스님들도 만행을 할 때가 되면 '중국'을 꿈꾼다. 왜 중국인가? 이런 '유행'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선(禪)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는 독특한 전통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국불교의 법맥이 중국에 바로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선(禪)은 2500여 년 전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유래해 마하 가섭에게 이어져 제28대 달마 선사에 이르러 동쪽으로 전해졌다. 석가모니 이래의 인도불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선불교는 중국 선종이 이룩한 사상적 성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는 2007 · 2008년 봄,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선어록을 공부하던 70여 명의 스님, 신도들이 중국선종사찰 순례를 다녀올 때 동행했던 일간지 종교기자들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기자들은 일간지의 '종교' 지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자답게 종교와 불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안목을 가지고 독자들을 중국 선불교의 세계로 안내했다. 달마에서 혜능으로 이어진 선불교의 초기시대 그리고 대혜종고 선사의 천동사부터 고봉원묘 선사의 천표산에 선불교의 꽃을 피운 간화선의 세계까지 그 역사를 지면마다 풀어놨다. 그리고 선사들이 제시한 화두를 다시 세상에 펼쳐놓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의 사찰보다 덩치가 크고 화려한 중국 사찰의 모습에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소림사에서 이조암으로 오르는 리프트를 보면서 성스러운 옛 선사의 그림자를 찾기란 쉽지 않음을 느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선사들의 행적과 선문답 사이를 오가며 중국에 선불교가 뿌리내리게 된 이유와 한국에 전해지게 되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나은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아름다운 마무리 | 법정 | 마음의 숲 |
| 2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3 |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 원택 | 김영사 |
| 4 | 스님도 군대 가나요 | 지장 | 클리어마인드 |
| 5 |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 월호 | 운주사 |
| 6 | 행복한 사람들 | 김천 | 하얀연꽃 |
| 7 |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월호 | 불광출판사 |
| 8 | 법구경 담마파다 | 전재성 역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 9 | 뜰앞의 잣나무 | 정찬주 | 미들하우스 |
| 10 | 천자는 꿈꾸는 집이어니 | 정대 | 초담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 금 계 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최고의 선 물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검정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깔창
풍산동 99%
발명특허원41435
• 가격 : 15,000원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❻ 밥은 예술

# 삼숙이네서 건진 산수화 한 점

내게는 피붙이만큼 소중한 이른바 '마음붙이' 가족이 있다. 그 가족들 중에 그림쟁이인 양아버지부터 소개하면, 그는 일명 '예수님'으로 통한다. 얼굴생김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죽도 못 먹은 표정에 회색의 고불거리는 긴 단발을 풀어헤치면 영락없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자칭 '중도를 걷는 사람'이란다. 사람 좋기로 소문나 오만 미술협회에 쓰고 있는 감투만도 열 댓가지는 되고, 불교에 개신교, 통일교, 남묘호렌게교까지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다종교인이니, 중도성이 좀 심각한 편이다. 한편 내게는 친형제보다 더한 우애를 나누는 오라버니가 있다. 갸름한 얼굴과 빼빼한 체구, 욕심과 상을 내세움이 없음이 양아버지와 똑 닮았다. 구구한 설명 없이 일상의 삶으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이기도 하다.



해물라면에서 건진 조개껍질에 산수화가 펼쳐져 있다.

오늘은 예수님과 오라버니와 함께 인사동 갤러리로 나들이를 나섰다. 그림에 관심 많은 오라버니를 배려해 인사동이 놀이터와 다름없는 예수님이 특별 가이드에 나섰다. 우선 예수님의 그림이 전시된 '털전'부터 들렀다. 털보쟁이 화가들의 전시회라서 털전이란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카오스'라는 제목의 그림을 두 점 내걸었다. 우연의 기법을 이용한 추상의 이미지가 멋들어지지만, 오랫동안 카오스에서 헤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중도를 너무 걸은 탓일까. 어쨌든 예수님은 인사동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갤러리까지 부지런히 안내했다. 그렇게 반나절 이상을 돌다보니 출출해진 오라버니가 붕어빵을 한 봉지 사든다. 비록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붕어빵을 함께 오물거리며 그림을 감상하는 오후의 맛이 따습고 새롭다.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초겨울 저녁의 한가로운 풍경이 고흐의 '밤의 까페테라스'처럼 여유작작하다. 머릿속에 오만 그림들을 채우고 나니, 이 그림이 저 그림이요 저 그림이 이 그림인가싶어 그야말로 카오스의 경지다.

"우리 이제 삼순이네나 가요."

"거긴 어이여?"

뜬금없이 삼순이네를 찾으니 예수님이 의아해 묻는다. 삼순이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좁다란 골목에 위치한 라면집이다. 그 골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좁은지 어쩐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삼순이네 라면만큼은 장담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라면 못먹잖어. 소화를 못시켜서" 라는 예수님의 초치는 소리.

"그러지 말고 조계사 강당에서 후배가 그림전을 하는데 같이 안갈겨? 거기가면 저녁도 먹을 수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솥뚜껑을 들이대는 소리더냐, 오라버니와 나는 말문이 막혀 대꾸조차 않는다. 초대받은 자리인지라 예수님은 결국 조계사로 향하고, 오라버니와 나는 삼순이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담한 삼순이네 문간 옆, 조그마한 꽃분홍 거울이 세워진 창턱 자리가 내 자리다. 매운 걸 좋아하는 나의 단골메뉴는 단연 매운 라면과 파라면. 어릴 때부터 파를 못 먹었는데, 삼순이네를 오면 그동안 못 먹은 파를 보충이라도 하려는지 묘하게도 파라면이 땡길 때가 있다. 하지만 매운라면이 늘 강세다. 매운라면에는 다름 아닌 삶은 달걀 반쪽이 곁들여 나오기 때문이다. 예전에 들은 풍월로는, 매운 음식에 삶은 달걀이 곁들여지는 이유는 혀나 뱃속에 매운 맛의 자극을 덜어주기 위함이니 먼저 먹어주는 것이 순서란다. 하지만 냉큼 먹기가 망설여져 나는 늘 라면을 거의 먹을 즈음에야 비로소 해치운다. 삶은 달걀이 나온다는 정보를 귀띔해줬는데도 오라버니의 선택은 해물라면이다. 매운라면과 파라면만 먹어보았으니 그 맛이 궁금해 국물이 참 시원해 보인다고 하니, 한 젓가락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응, 시원하네"라는 답만 돌아온다. 나는 매워서 행복하고 오라버니는 시원해서 행복하니, 후루룩후루룩 라면을 먹는 동안은 말 섞을 겨를도 없다.

"와~ 진짜그림은 여기 있네. 이렇게 멋진 산수화 봤니? 오늘 본 것 중에 최고다."

해물라면에서 조개껍질을 건져 올린 오라버니가 감탄해 마지않는다. 조개껍데기로 펼쳐진 능선이 가히 명작이다. 조계사로 간 예수님은 이런 산수화를 구경이나 해봤으려나.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8



# 침향 재배 마피아 조직처럼 관리해

침향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면서 여타의 수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익성이 높아 마치 마약을 재배하는 마피아 조직처럼 재배 관리를 하고 있다. 필자가 베트남에서 직접 목격한 바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마을 전체가 재배에 관여하는 곳도 있었다. 인공 재배된 침향나무는 보통 10~20년생이 되면 드릴 등으로 나무에 상처를 내 수지생성을 유도하는데, 침향의 수지는 상처를 메우는 형태가 아닌 상처난 곳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로 생성된다.

베트남에서 자라난 침향의 수지는 검은색 계통인데 비해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쪽에서 나는 침향의 수지는 맑은 황색이나 갈색, 백색 등을 띄므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공 재배된 침향은 약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이지만 조각품으로 가공하거나 수지를 추출해 중동이나 유럽 쪽 향수의 원료로 대량 수출된다. 향수의 대명사 샤넬 No.5의 주원료도 침향이다.

비단 샤넬 향수에는 침향뿐 아니라 불가의 5단향 중에서 천단향이 빠진 백단, 전단, 자단향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샤넬 No.5 향수에서 천단향이 빠지는 이유는 천단은 히말라야 설산 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신목으로 500년 이상을 성장해도 높이가 2m 이상 자라지 않는 귀한 향재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워낙 귀하다 보니 능인향당에서도 향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불가의 가장 성스러운 복장의식에 공양용으로 사용하고자 직원들이 등짐으로 소량씩 들고 오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리 본다면 불가의 5단향 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향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재배되는 침향나무. 사진 원 속은 수지 생성을 위해 드릴로 구멍 낸 모습.

이에 비해 자연산 침향은 원래 구하기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워낙 오랜 세월을 채취해왔고, 특히 프랑스 지배 하에서는 그 채취가 극에 달해 오늘날의 자연산 침향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밀림 속에서나 간혹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샘과 독무,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야말로 생장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자라는 생장이 극히 더딘 침향이 있는데 이런 침향을 베트남에서는 가남이라 정의하고 있다.

비교적 서식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침향은 성장속도는 빠르지만 약효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생장환경이 나쁜 곳에서 자란 것은 마치 산삼처럼, 어렵게 자라서인지 더욱 약효가 좋다.

이곳에서는 침향만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가남향을 발견하면 바나나 잎에 싸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하루를 상온에 놔둔다. 하루가 지난 후에 바나나 잎에 배어 나온 기름의 종류와 향으로 그 등급을 매기게 된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⓭ 불로장생 처방전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 이분법적 사고 대신 전인적 입장서 '건강' 이해해야

**#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그 환자를 치료하라**

라즈니쉬는 '인간의 질병은 결코 의학만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증명하듯 질병의 70%가 마음에서 생긴다 하니, 선(禪)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의 삶과 21세기를 위한 라이프스타일과의 접목은 필수가 아닐 수 없다.

의학계 역시 병의 원인은 "그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플라톤 또한 말하기를 "마음을 도외시하고 신체를 치료할 수 없다"고 해 이미 마음 인자의 관여가 중요함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사가, 심리학자가 심신의학(心身醫學)으로, 마음의 관점으로, 불교로 선(禪)으로 눈을 돌리듯이 선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도 본인 구제에 이어 다같이 함께 내적 존재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이라는 화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 진정한 건강의 의미는?**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질병이 없는 최적의 건강 상태(optimal well being)이며 최적의 건강 상태란 질병에서 회복되는 상태를 넘어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것은 전인적 건강(holistic health)의 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육체적(physical), 정서적(emotional), 정신적(mental), 영적(spiritual)인 면이 모두 포함된다." 즉 육체적 입장뿐만 아닌,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나 질병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스위스 의학자 파라셀수스(paracelsus)는 "독성 없는 약은 없으며 모든 약은 독이다. 약과 독은 용량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 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이다. 온갖 수천 가지 약초를 발견한 신농씨도 결국에는 약초 실험 도중 독풀을 먹고 사망했고, 주름을 펴주는 기적의 약 보톡스도 사실 통조림에서 추출한 맹독으로, 치사량의 천분의 일로 사시를 고친 뒤 개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이니 독이니, 질병이니 건강이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모든 질병은 정신 육체적(psychosomatic)**

육체와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은 육체 마음 양쪽에서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선(禪)에서는 건강을 아주 중시했다. 예를 들어 달마 대사는 소림사에서 9년 면벽 참선시 승도들이 운동 부족으로 정신이 위축되고 근육이 쇠약해지자 허약한 근육을 강인한 힘줄로 바꾼다는 <역근경(易筋經)>과 골수를 씻어 오장육부와 사지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세수경(洗髓經)>을 지어서 해와 달을 보며 정기를 기르는 법, 보약 먹는 법, 몸 씻는 방법, 운동하는 요령, 정신을 수양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방법 등을 널리 알려 건강 보급에 힘썼을 정도이다.

**# 영원한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불로장생 처방전**

끝으로 중국 명(明)나라 때 주권(朱權)이 지은 <활인심방(活人心方)>에 나온 중화탕(中和湯)이라는 불로장생의 약방문을 특별히 소개하며 마칠까한다.

'중화탕의 약재는 청심(淸心-마음을 깨끗이 함), 과욕(寡慾-욕심을 적게 함), 인내(忍耐-참고 견딤), 겸화(謙和-겸손하고 온화함), 지족(知足-만족을 앎), 보애(保愛-보호하고 사랑함), 계노(戒怒-성냄을 경계함), 수정(守靜-조용함을 지킴) 등 30가지인데 이를 가루 내어 심화(心火-심중의 화기) 1근에 신수(腎水-신장의 수기) 2사발을 붓고 5분쯤 달여서 시간에 관계없이 온수로 상시 복용한다. 이 중화탕을 꾸준히 복용하면 의원이 치료하지 못하는 일체의 병을 치료하며 원기를 보하고 만병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감없이 세상에 영원한 안녕을 누릴 수 있다.' (02)576-7575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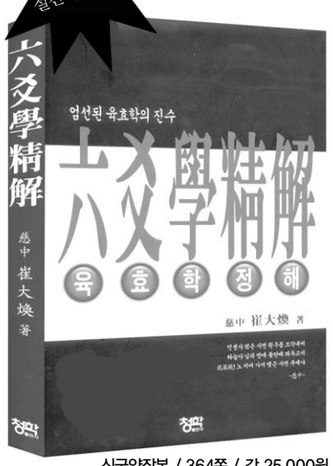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제대로 만든 사주프로그램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정확한 용신
정확한 만세력
사주, 육효, 대정수, 자미두수
양택풍수, 궁합, 작명, 택일
고객관리, 해외출생자사주
제품구성 :
정품CD, USB락, 사용설명서, 명리보감책자
www.goodcycle.com
Tel. 02-3472-5933
H.P. 010-9273-5850

六爻學精解
육효학정해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엄선된 육효학의 진수!
초보에서 완성까지!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목차부터 배우기 쉽도록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며 육효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학문을 연구하거나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국양장본 / 364쪽 / 값 25,000원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 전문가 과정 교수 최대환 저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육효학정해〉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청학출판사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자안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 예술처럼 향유하는 디자인의 미래

## 마라쎄르베또가 제안한 '소통의 공간'

전통과 첨단 기술이 만나 감각의 법계도를 디자인한다.

4월 밀라노展을 시작해 베를린, 광저우를 거쳐 온 2008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12월 3~7일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렸다. 유쾌한 접촉을 디자인으로 표현해온 일본 디자이너 하라 켄야의 '햅틱(HAPTIC)'展을 비롯해 일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현대의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이 소통하는 디자인의 미래에 주목한 행사다.

컨퍼런스센터에서 12월 4일 열린 강연을 통해 '소통의 공간(Branding Space)'을 논의한 건축가 마라 쎄르베또(Mara Servetto, 밀리오레 쎄르베또 건축사무소)는 "모든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고 전체 지도를 그려야 한다. 그 안에서 역동적인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고심하라. 공간 혹은 제품이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 브랜드 막스마라(MAXMARA), 호간(Hogan), 렉서스(LEXUS), 뉴욕타임즈 등 수많은 브랜드와 행사를 디자인 해온 그는 올해 토리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도시 환경 설치물 디자인으로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황금 콤파스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가 세계 디자인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밝히며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단청빨강색'이 지닌 브랜드파워에 대해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이용자의 시점으로 연구하고 디자인(light and motion)돼야 한다. 시야 안에서 주목 가능한 디자인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각인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연숙 기자

# "마음이 따뜻한 인터넷방송에 귀의합니다"

## 인터넷 명상쉼터 'www.namuart.net' 대표 하훈

"고요한 명상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는 일순간도 고요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깊은 명상으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 시대와 판이하게 다르죠. 진짜 명상은 주변 상황을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포섭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일상의 선(禪)이 인터넷에 접속한다. 故 백남준 선생(1932~2006)이 작품 'TV붓다'(1974)에서 자아의 화두를 투영한 영상을 통해 세상을 반조했다면 현대인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인드라망의 무진연기를 깨닫는다.

인터넷 명상 쉼터 나무아트닷넷(www.namuart.net)을 오픈한 하훈 대표(48, 시인, 국제포교사)는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행복포교사로 앞장서고 싶다"며 "현대에 적합한 명상수행법으로 속도에 길들여진 세대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인터넷 참선 도량을 열었다. '나무(namu)는 불교의 귀의(namas, 南無)를 의미하는 것으로 삶을 예술로 구현하고자 한 의도를 담고 있다.

나무아트에 접속하면 총 100여 개의 가르침과 선인들의 깨우침이 다양한 장르와 기법으로 펼쳐진다. 색(色)을 공(空)의 예술로 표현해 온 전각가 고암 정병례 선생의 작품과 어우러진 '느티나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아름나무', 어릴적 향수를 일깨우는 동요방송 '꿈나무', 음악방송 '전단향나무' 등 메뉴들이 평안의 보금자리를 감성 애니메이션으로 선물한다.


인터넷 명상 포교사 하훈.

스스로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덕향(德香) 거사 하훈. 그의 법명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향기로운 지혜의 별을 심고 그 열매를 나누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힘차다. 천천히 살며 마음 돌아보기를 지향하는 나무아트는 12월 27일 충북 진천에서 미래촌(촌장 김만수) 주최로 '새김아트와 디지털禪'을 강연하며 오프라인 전시는 서울 인사동 새김아트갤러리에서 12월 31일까지 연다. (02)-732-5515

가연숙 기자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가운데 하이라이트.

2009년 2월 22일까지 LG아트센터

# 여래장으로 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인간의 완전성을 찾고자 신에게 도전해 삶을 재정의 하고자 한 과학자의 이야기.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로 인정받으며 한국 뮤지컬 사상 전석 매진 기록 수립의 사례를 보이고 있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11월 14일 개막한 이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9년 2월 22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2004년 초연해 12월 16일 300회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종교적 반란의 시대 12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왕조를 배경으로 인간의 본성과 완전성을 찾아내고자 한 지킬 박사의 행로는 선와 악의 구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와 그럴 수 없는 행위로 극명히 대립된다. 진실을 찾아 몸부림치는 혁명가 지킬 박사는 억압된 도덕적 책임과 죄책감이라는 내면의 가장 어두운 면을 걸림 없는 하이드를 통해 표출하며 가면을 쓰고 장점과 강점만을 드러내려 하는 인간의 허상을 해체한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철학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모든 고뇌와 죽음을 초극한 이상적 초인의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뮤지컬 원작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 또한 당시 시류를 따라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통해 실존을 탐미했다. 그것이 세기를 넘어 현대의 모순과 교감하며 여래장(如來藏)의 세계를 무대 위에 선보인다.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마음의 이중 구조를 논했다. '일심(一心)이 중생심(衆生心)이며 이 중생심에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 있다'고 했다. 중생심의 진여상은 그대로 대승의 체(體)를, 심생멸은 현실의 생멸 인연상을 나타낸다. 심진여의 세계는 염법(染法)의 허망한 마음의 생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진실의 세계다.

지킬 박사는 심생멸문의 세계에서 범부의 사유 능력으로 진여선(眞如善)의 본성을 분리해 행동 제어가 가능한 제법의 실상으로 드러내려 한다.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 불선(不善)을 제압하는 본성의 선을 찾아 전체를 포섭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 의도다. 지성으로 다룰 수 있는 이성적 선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감정적 악을 분리하고자 분투하며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연인 엠마와 창부 루시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 자아 지킬과 하이드. 이 이야기의 비극은 지킬이 마지막까지 진아(眞我)의 불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번뇌법은 무상하다. 경계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허(虛)이고, 체가 산란하기 때문에 망(妄)이라 했다. 생멸과 함께하는 진여 즉 여래장 사상을 그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무명(無明)에 파도치는 인간을 연민한다. 마음의 진여를 심생멸문 속에서 구하고자 한 지킬 박사는 염법의 존재 하이드와 충돌하며 분별망상에 휩싸이고 진속의 경계에 휘말린다. 통제 불가능한 지킬과 하이드의 불가능한 공존은 결국 물거품과 같다.

망령된 경계로 몰아가는 물든 마음은 결국 진여로 돌아가고자 한 지킬의 의지적 환멸 연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본각(本覺)의 훈습력이 망령된 무명의 인연으로 인해 분노와 집착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지킬은 결국 심원(心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웅장한 음악과 세련된 의상 및 배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킬의 아리아 '지금이 순간(This is the moment)'과 엠마의 '한때는 꿈에(Once Upon a Dream)뿐만 아니라 2007년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지킬 역 류정한과 2008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엠마 역 김소현이 선사하는 무대는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1588-5212)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 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나산 원통형 고열량 / 카본히터
사용장소 / 공장용 · 업소용 · 농업용 · 사무실용
강력난방 국내생산 1년간 A/S
NS-7600
· 화력의 강약조절 . 강 : 2.5Kw . 약 : 1.2 Kw.
· 회전기능 : 좌우 90 도
· 높이조절 : 상하. 135 Cm ~ 100 Cm
· 중량 : 약 8.5Kg
· 크기 : 반사경 (60cm) 높이 : 135cm
●산업용 (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2.5Kw X 8시간 =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 19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NS-7800
· 화력의 강약조절 . 강 : 1.8 Kw . 약 : 900 W.
· 회전기능 : 좌우 90 도
· 높이조절 : 상하. 135 Cm ~ 100 Cm
· 중량 : 약 6.5Kg
· 크기 : 반사경 (54 cm) 높이 : 135 cm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1.8Kw X 8시간 = 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 17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NS-7000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 X 1.8Kw X8 =978원
나산전기 난방기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 / 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데워 실내가습효과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NS-7000
NS-7200
◀ NS-7200 (적용면적 : 5평형)
열량 / 1.8Kw · 사이즈 / 355 X 660mm · 무게 / 3.5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 X 1.8Kw X8 =978원
주 사용처 :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팬션)
◀ NS-7000 (적용면적 : 10평형)
열량 / 2.9Kw · 사이즈 / 355 X 660 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 67.90 X 2.9Kw X 8 =1,575원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나산전기히터!
www.nsheater.com / www.나산전기.com
나산전기난로 : (NS-7000) 98,000원 / (NS-7200) 78,000원
문의전화 080-001-0022
입금계좌 :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택배비 2,800원 소비자 부담)

# 생활불교 법구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8년 11월 28일 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 | | |
|---|---|---|
| 1929년생 뱀띠 | 1957년생 닭띠 | 1985년생 소띠 |
| 1933년생 닭띠 | 1961년생 소띠 | 1989년생 뱀띠 |
| 1937년생 소띠 | 1965년생 뱀띠 | |
| 1941년생 뱀띠 | 1969년생 닭띠 | ※적색글씨에 해 |
| 1945년생 닭띠 | 1973년생 소띠 | 당되는 분은 악 |
| 1949년생 소띠 | 1977년생 뱀띠 | 삼재입니다. |
| 1953년생 뱀띠 | 1981년생 닭띠 | |

## 자동차용 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 세로4.5cm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

## 천연백수정108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의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장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신용카드 분할가)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쳐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가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이야기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말법의 온갖 허물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신국판 464쪽
₩16,000
저자 연락처 : 055-353-6142, 010-2356-6142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릿글 중에서 -

고목스님의 책들

新 유식학(보정판)
삼라만상이 오직 식(識)일 뿐이어서
마음을 알면 자연히 세계를 알게 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명상의 기본원리와 비바사나, 요가명상 등
실용성 높은 생활명상법 수록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고 목 지음

금강경 최상승해(근간)
차별화된 최상승의 해설.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보고(寶庫)
고 목 지음

#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퇴마 심령 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각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건강 · 역학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심신 평생 무병 건강법
구궁 당주역 간편 비법
건강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052)264-8183
011-855-8180

**북한, 조선족여성보호센터**
㊣ 어려움에 처한
북한, 조선족 여성
보살펴 드립니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최면요법(수강생모집)**
(빙의, 퇴마, 악령퇴치,
영적신병, 전생...)
1:1 책임지도, 종교인
특별기법전수
인터넷 네이버:울산 최면 클릭
(울산)
010-9932-7656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 효 -
010-4007-0178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참선기도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단 몇분만 모시겠습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청강사
016-9506-5706

영어 배우면서
주지소임 사실분
(필리핀) 비구니스님
조계종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부전스님(비구니)
모십니다
(토굴 수행 하실분도 찾습니다)
070-8267-1002
032)435-0478

비구니 스님 되실분
(초보자 교육해줌)
평생 서울시내 사찰에서
생활할수 있음
나이제한 없음
010-7262-3338
서울시내 사찰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아름답고 좋은 서해 바닷가 절
(조선족 원함)
041)673-2333
011-289-4174

**공양주 보살님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016-400-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동
010-3088-31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041)836-50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 ~ 60대 이하)
▷포항 대보면
054)284-8954,8924
011-521-8924

**공양주 보살님 종무원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경남
010-5698-8769
055)275-5006

가족처럼 함께
수행하실 비구니
스님과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서울 의정부 경계. 원도봉산
010-3337-951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스님(비구)을 찾습니다
2002년 4월 경북 영덕 일도
사에 소임상주하셨던 대일
(이춘송)스님과 혹시 인연 닿
으신 스님이나 불자님이 계
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054)733-8786 (일도사)
017-519-5388 (총무)

비구니 사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향림사
053)854-21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 원함)
▷정릉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암자
054)777-2796
011-876-5078

조그마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1종 면허소지)
055)863-4143
011-392-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5대)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9854-9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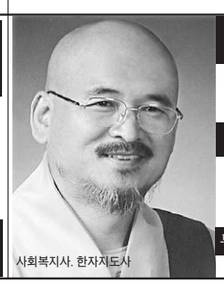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9204-0040

**힘을 세게하는 초능력요법 탄생**
● 세계 최고의 염력과 천기를 운용. 생명에너지 발생(31년간 연구)
● 정신병, 관절염, 당뇨, 위장병, 오십견, 신경통, 두통,
탈모증, 신병 (아주간단히치유 무료체험)
● 모든 운동선수(골프, 야구, 역도, 축구.....)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분 무료상담
광명사 氣 연구소
054)974-4788 / 010-9554-5149

**약수암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석정수 스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전생업장소멸,사업성취등을 상담해드립니다.
※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있습니다.
각종빙의나 질병을 상담을 통해 치유할수 있는 수행도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54 선일빌딩701호 약수암쉼터
010-7232-0384, 011-756-5997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어떠한 문제점도 28숙 기도로 다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인각사
• 창 건 주 : 송 천(이채성)
• 승려번호 : 2541-0797
• 주 지 : 인 오(서정숙)
• 승려번호 : 2548-1233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456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자리에서
정확하게 옆으로 회전합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
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명당혈을 찾아
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룡자는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케이스(2만원)+
월간역학 1년분(10만5천6백원)+수맥 탐지봉
(1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구입방법: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 - 1137

## 왜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완결판" 이어야 하는가?

아무나 흉내낼 수 없고, 흉내내서도 안되는, 고복자 효사만의 적중도와 효과성을 제고시킨 쉬운(易) 활용서이기 때문이다.

▣ 위 신간 「복변집」 · 「산책」 · 「천역집CD」 교환대상 특별 조건

1.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8월이전에 발간 판매된 鼓卜子曉史 저술 각종 육임학습 · 활용서 전부를 대상으로 함.
2. 입금 · 반품 확인 후 교환신청 도서 발송함.
3. 기존 육임서 구입가격의 고 · 저가를 불문함.
(예 : 육임래정비법 30만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250만원 모두 동일하게 해당 됨)
4. 특히 「효사활인천역집Ⅲ」 CD교환은, 락키 · CD 반품 수령후 1:1 방식으로 「완결판」을 교환 발송함.

▣ 효사 육임CD 활용 프로그램 (임상용)

| | | | |
|---|---|---|---|
| ●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 | 450만원 | ● 효사육임산책 CD | 250만원 |
|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CD | 100만원 | ● 효사숙사주 CD | 70만원 |
| ● 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 CD | 100만원 | ● 월영도 CD | 50만원 |
| ● 매화역수 CD | 50만원 | ● 도사에게 물어봐 CD | 50만원 |
| ● 활인상담 길흉성부단정 CD | 50만원 | ● 효사 육임 학습강의 CD (96개) | 80만원 |

한국육임학회 www.taotemple.net 총재 고복자 효사

서울본회 02-833-8683 담당 : 임근홍 ( 우리1002-037-559214 정용철 ) 부산지회 051-908-8683 담당 : 진민경 ( 농협 121059-56-023257 진세리 )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 찰 안 내

| ● 위치 : 경기 | ● 위치 : 서울 | ● 위치 : 강릉 부근 |
|---|---|---|
| ● 법당 : 24평 | ● 법당 : 28평 | ● 법당 : 20평 |
| ● 요사 : 24평 | ● 요사 : 28평 | ● 요사 : 30평 |
| ● 부지 : 560평 | ● 부지 : 167평 | ● 부지 : 480평 |
| ● 가액 : 6억 | ● 가액 : 10억 |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 ● 위치 : 부산시내 천년고찰 (약 800년) | ● 위치 : 양산시내(5분거리) |
|---|---|
| ● 총 대지 : 약2700평 | ● 대지 총평수 : 520평 |
| ● 법당 약50평,산신각 | ● 법당(와가) 25평 |
| ● 요사채 20평+10평+10평 | ● 요사채(2동) 50평 |
| ● 바다전망 최고,사찰 뒷편 산(공원) | ● 도량주변 산세,풍광 최고 주차장 및 마당넓은 절 |
| ● 텃밭 300평 | ● 양도가 : 6억5천만원 |
| ● 양도가 : 9억 | |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소재 | ● 위치 : 경남 창녕읍 소재 |
|---|---|
| ● 부지 : 약 2천평, 종교용지 | ● 부지 : 800평(종교용지) |
|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 법당 30평(목조 단청) |
| ● 요사 : 70평 | ● 요사 2동 80평 |
| ● 기타 : 산신각, 석등 | ● 기타 : 종각, 석탑, 석등 |
| ● 가액 : 5억8천만원(조정가능) | ● 가액 : 3억5천만원(2억까지 융자가능) |
| ● 특징 : 도심인근의 산중 사찰임 |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7백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50-4899
053)522-6487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연산동 중심가
● 평수 : 35평 2층, 시설완벽
● 삼존불, 호신불, 108불
(스님방1,공양실1,부엌별도)
● 전비합 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보시고 결정
011-860-0499

##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 방2칸, 공양간,
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238-3990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3층건물중 2층
● 총평수 42평(법당,방2개,공양간)
●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가능(꼭 하실분만 연락)
011-506-2282
053)759-0108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 찰 안 내

| ● 위치 : 경기 | ● 위치 : 서울 | ● 위치 : 강릉 부근 |
|---|---|---|
| ● 법당 : 24평 | ● 법당 : 28평 | ● 법당 : 20평 |
| ● 요사 : 24평 | ● 요사 : 28평 | ● 요사 : 30평 |
| ● 부지 : 560평 | ● 부지 : 167평 | ● 부지 : 480평 |
| ● 가액 : 6억 | ● 가액 : 10억 |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 ● 위치 : 부산시내 천년고찰 (약 800년) | ● 위치 : 양산시내(5분거리) |
|---|---|
| ● 총 대지 : 약2700평 | ● 대지 총평수 : 520평 |
| ● 법당 약50평,산신각 | ● 법당(와가) 25평 |
| ● 요사채 20평+10평+10평 | ● 요사채(2동) 50평 |
| ● 바다전망 최고,사찰 뒷편 산(공원) | ● 도량주변 산세,풍광 최고 주차장 및 마당넓은 절 |
| ● 텃밭 300평 | ● 양도가 : 6억5천만원 |
| ● 양도가 : 9억 | |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소재 | ● 위치 : 경남 창녕읍 소재 |
|---|---|
| ● 부지 : 약 2천평, 종교용지 | ● 부지 : 800평(종교용지) |
|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 법당 30평(목조 단청) |
| ● 요사 : 70평 | ● 요사 2동 80평 |
| ● 기타 : 산신각, 석등 | ● 기타 : 종각, 석탑, 석등 |
| ● 가액 : 5억8천만원(조정가능) | ● 가액 : 3억5천만원(2억까지 융자가능) |
| ● 특징 : 도심인근의 산중 사찰임 |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7백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50-4899
053)522-6487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연산동 중심가
● 평수 : 35평 2층, 시설완벽
● 삼존불, 호신불, 108불
(스님방1,공양실1,부엌별도)
● 전비합 2,000만원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보시고 결정
011-860-0499

##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 방2칸, 공양간,
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238-3990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3층건물중 2층
● 총평수 42평(법당,방2개,공양간)
●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가능(꼭 하실분만 연락)
011-506-2282
053)759-0108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천호동 15분거리
대도로변 50m 야산접
● 대웅전, 지장전
● 동굴산신각, 요사채 및
폐도로 2000평 점유
● 가액 : 10억원
010-9164-1253

## 사찰(급)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 사찰 전세 및 양도

● 위치 : 서울 평창동
● 대지 : 221평
● 법당 36평, 천불전 25평
산신각 6평, 종각 6평
건평157평(실평210평)
요사채 지하1층 지상 3층
● 전세 : 7억, 매매 : 30억
010-5004-3935

##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110평
● 법당 : 약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50평,방3개,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
● 법당 13평, 방 2개
● 면적 : 235평
● 철학, 오행배우신분 환영함
● 가액 : 7,500만원
010-6357-5860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
바다에서 나오는 생수(용궁)
● 대지 252평, 전 800평(임대)
● 법당 (목조신축) 12평
요사채 황토기와집, 거실,
부엌, 방 5개(등기필)
● 조립식 1동,감나무,밤나무,
매실100그루
● 가액 : 1억 3천만원,전세가능
018-406-3073

##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경북도청부근
대구역,중심가 3분거리
● 평수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보증금 2000만원, 월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5층 스님실 25평 포함
- 월 45만원 추가
● 구조 : 최신건물 A/V有
아미타 삼존불
● 지장,삼성,신중,사천왕탱화, 500인등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0-9598-9117

##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평촌
4층건물중 4층 80평
● 삼존불,호신불,냉난방시설
엠프시설,CCTV
● 방2, 사무실1, 공양실
● 보증금 4천만원
월 25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010-4371-041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 총 2123평
(종교부지165평)
●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양도가 : 2억 3천
010-5430-3963

##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선바우산 소원바위 절터
● 평수 :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
● 대한민국 최대 와불의
산이 있고 산세 수려함
문의전화 011-822-0347
010-9258-3459

##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법당 외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시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접
칠곡군 양목면 임법당, 옆산
마당잔디, 텃밭, 연꽃 연못
총 3,200평
● 임대보증금 250만원
일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1억 3천만원
017-813-9126

##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 안 내

● 위치 : 서울강남 개포동
● 임법당 사실분 연락바람
● 가액 : 6천만원(시설비포함)
010-2244-2257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 평수 : 2층 40평, 3층 20평
● 전세 5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조금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2564-6301
010-9970-0027

## 포교당(급)안내

● 부천역에서 도보 약 15분
● 특징 : 3층건물중
2층 80평.시설A급 신도 많음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전세도 가능
● 금액 : 상담후 절충
사정상 급매
010-8264-7000

##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에서 10분거리
● 부지 : 총 2123평
(종교부지165평)
●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양도가 : 2억 3천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 한옥토굴 27평 방 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 : 7,500만원
010-8868-9407
054)673-649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 총대지 약 407평
● 법당 1, 요사채 2, 주방 거실,
화장실
● 가액 : 9천 8백만원
● 집기,비품필요하신분 별도 양동함
시설비:2천2백만원
011-439-9059

## 기도처 안내

● 위치 : 주왕산 국립공원
● 평수 : 종교부지 340평
임야 1230평
● 법당12평(목조)요사25평,
산신각2평
● 전기 전화 없는 청정한 도량을
맡아 기도하실분이나 도량을
인수 하실분
010-7109-3281

## 도심포교당 운영하실분

● 위치 : 서울 서대문
● 대지 : 105평, 건평 한옥 60평
● 양도가 : 12억
010-9284-6136

## 사찰전세 및 전원주택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2번지
● 전세 : 6000만원
011-9128-2069
010-9188-7097

##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 임법당1동, 삼존불 요사채1개
콘테이너방 2칸,
비품일체 무료양동
총 2600평
● 스님수행하기 좋은도량
청정하여 산야초풍성
맑은계곡이 흐름
● 가액 : 3천8백만원
(가격조절가능)
010-4878-9559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구 달서구(두류산 뒷편)
● 3층건물중 2층 30평(주차편리)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 2개 주방시설,
●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모든시설 1500만원
(답사후 호조건 절충가)
● 즉시법회,시설완비,
역학하실분 가능
● 종단가입 사찰등록 무료알선
011-520-8525

##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대지 200평, 법당 30평
요사채 24평
● 아침의 일출 일몰 좋고
경관좋음. 교통편리
● 가액 : 1억 2천만원
010-9004-7212
011-9388-7212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내
● 평수 62평
● 삼존불, 탱화 등
모든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2704-933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50평,주차시설 완비
● 가액 : 6억5천만원
● 위치 : 부산시내 최고 요지
● 신축 불사중 대지186평, 법당건물 목조 25평
건축중,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
018-554-6198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권 시내
● 평수 : 대지 400평 ● 내용 : 법당, 요사채, 창고
● 특이사항 : 주위가 대형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둘러쌓여 포교적지임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1-269-9091

##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마당, 연못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가능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요망
010-3996-2035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기장대변입구 주공 아파트앞
2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
● 평수 : 35평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4870-8359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북 충북대학교 1km지점
● 평수 : 33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25만원
(꼭 필요한분에 한하여 시설비 1천만원)
● 역학하시는 분 적합, 법회 즉시 가능
010-2877-7746

##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7호선 9번출구 청담역 200m)
● 평수 : 60평
● 깔끔하고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6,000만원 / 월120만원
(시설비 포함)
010-3751-1347

## 팬션같은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대지 : 205평
● 건물 1층 34평, 2층 24평(황토 찜질방)
순수 황토 목조 건물
● 신축불사중 앞마당 차량진입
뒷산 작은 계곡 동남향
● 양도 동참금 4억 5천만원
010-6438-3561

##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지산동 산 122-6
● 임야 2315㎡. 대지 : 등기건물평수(45평)
● 법당,요사채,접견실,승방,
● 화장실, 신도 숙소(등기건물 외 건물 약 30평)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 가액 : 3억 5천만원
※순천 영천사 스님을 모십니다
019-379-9999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8장 각지마사(覺知魔事) ③

# 마군의 삼종경계는 삼독심 때문

**二者堆剔鬼 亦作種種惱觸行人 或如蟲蝎緣人頭面鑽刺熠熠 或擊壢人兩腋下 或乍抱持於人 或言說音聲喧鬪 及作諸獸之形 異相非一 來惱行人 應卽覺知一心閉目 陰而罵之 作是言 我今識汝 汝是闍浮提中食火臭香偸腦吉支 邪見喜破戒種 我今持戒 終不畏汝 若出家人應誦戒本 若在家人 應誦三歸五戒等 鬼便卻行匍匐而去 如是若作種種留難惱人相貌 及餘斷除之法 並如禪經中廣說**

두 번째로 퇴척귀는 가장 악한 야찰귀신이다. 수행자가 좌선을 할 때 이 귀신이 찾아와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갖가지 형상으로 수행인을 뇌란시킨다. 벌레나 전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얼굴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꾹꾹 찌르기도 하며, 사람의 몸을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한다. 이는 고통은 없지만 가려움을 견디기가 힘들다.

어떤 때는 귀 눈 콧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며, 양쪽 겨드랑이 밑에서 마판을 두들기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여 흡사 물건이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손에는 잡히지는 않고 쫓아내면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갖가지 특이한 형상으로 찾아와 수행인을 괴롭힌다. 이 귀신의 얼굴은 비파처럼 생겼으며 눈이 네 개에 입은 두 개로서 가장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다.

수행인은 이 귀신이 출현했을 때 급히 대치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아야만 한다.

이 귀신은 과거 구나함부처님 때 말법중에 한 비구가 여러 스님들을 뇌란시키기를 좋아하므로 스님들이 그를 물리쳐 쫓아낸 일이 있었다. 이 비구는 즉시 악한 원을 세워 좌선하는 사람들을 항상 괴롭혔는데 이것이 퇴척귀의 원조귀신이다.

이 원조귀신은 일생의 과보가 끝나면 다음 생에 다시 똑같은 업으로 태어나 수행인을 뇌란시키는데, 꾸짖으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떠나간다.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알았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꾸짖어야 한다.

"나는 지금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는 염부제 가운데서 불을 먹고 냄새를 맡고 스님들의 법랍을 도둑질하는 길지(吉支)라는 귀신이다. 삿된 견해로 계율의 종자를 파괴하기 좋아하지만 나는 계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귀신은 본래 계율을 파계한 소치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계율을 들으면 수치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물며 계율은 신장이 옹호하여 파계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쯤이야 어렵겠는가.

만일 출가한 스님이라면 범망경 사분률(四分律) 오분률(五分律) 등을 부지런히 독송하고 재가신자라면 삼귀오계(三歸五戒)를 외워야만 한다. 계율 하나에 다섯 신장이 옹호하기 때문에 오계만 해도 스물다섯 호법신장이 지켜주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법을 외우면 귀신은 바로 설설 기어서 떠나간다.

## 퇴척귀는 계율을 파괴한 소치 때문에 생겨
## 오분률 · 삼귀오계등 독송하면 바로 떠나가

이와 같이 갖가지로 수행자를 뇌란시키는 모습과 귀신을 끊어서 제거하는 방법은 선바라밀경(禪波羅密經)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다.

**三者魔惱 是魔多化作三種五塵境界相來破善心 一作違情事 則可畏五塵 令人恐懼 二作順情事 則可愛五塵 令人心著 三非違非順事 則平等五塵 動亂行者 是故魔名殺者 亦名華箭 亦名五箭 射人五情故 名色中作種種境界惑亂行人 作順情境者 或作父母兄弟 諸佛形象 端正男女可愛之境 令人心著 作違情境界者 或作虎狼師子羅刹之形 種種可畏之像 來怖行人 作非違順境者 則平常之事 動亂人心 令失禪定 故名爲魔**

세 번째로 마뇌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는 천자마라고도 한다. 마뇌의 목적은 두 가지 선을 파괴하고 두 가지 악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마군병사와 마군장군을 파견하기도 하고 천자마 자신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수행과정에서 이 마군은 조복받기가 가장 힘들다.

앞서 설명했던 퇴척귀와 시간 따라 홀리는 두 마군은 파순의 먼 권속이지만 지금의 마뇌는 파순과 가까운 권속들이다. 두 가지 선과 두 가지 악이라 하는 것에 대해 말해본다면 사홍서원은 이미 일어난 선이고 수행은 아직 일으키지 않은 선이며, 견혹과 사혹은 이미 일어난 악이고 무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이다.

이 마군은 수행인의 오근을 따라 세 종류의 오진경계 모습을 변화로 조작하여 수행인의 도심을 타파하기를 가장 좋아한다.

세 종류의 경계라 하는 것은 강한 마군, 유연한 마군, 강하지도 유연하지도 않은 마군임을 유추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마뇌는 화전(華箭)이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화살처럼 날아오는 한 찰기의 꽃은 사람이 보았을 때엔 꽃이지만 실제로는 그 중간에 한 개의 화살이 들어있어 수행인의 신명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대론(大論)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마군은 지혜의 생명을 파괴하고 도법을 무너지게 한다. 그 때문에 마군이라고 명칭한다"라고 하였다. 모든 외도의 무리는 마군을 욕계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사람들은 화전이라고 한다.

또 마뇌는 오전(五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오근을 따라 들어가 오근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과 선법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뇌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세간의 번뇌 인연도 역시 마왕의 힘이다. 이는 모든 부처님의 원수로서 일체 성인을 파괴하고 인간사를 거스르며 열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군의 일이라고 부른다.

이 마군이 나타내는 세 종류의 경계는 삼독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삼종경계 중에 내 감정에 순종하는 기분좋은 경계는 부모와 형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히히닥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말과 노래하고 춤추고 음란한 구경거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탐애심을 따라서 일어난다.

또 내 감정에 위배되는 경계를 만드는 경우는 호랑이 사자 나찰 야차 등 두려운 형상으로 찾아와 나를 속박하고 채찍질하고 고문하는 등 공포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내 감정에 위배 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순종하지도 않는 경계는 일상적인 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뇌란시켜 선정을 잃게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터 일어난다. 이것들이 바로 세 도적의 부류이며 세간을 탐애하는 것도 모두가 마군의 일이다.

마군이 뇌란시키는 것은 여섯 감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 다섯 화살로 다섯 감정을 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여섯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근이 의근으로 전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근이 오근 가운데 포함돼 있는 것이다.

천마파순은 육진경계로 부처님까지도 뇌란시키는데 하물며 유유적적하게 수행하는 말세범부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따라서 지관을 수행하는 가운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금강왕 보검을 가지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자르고 마군이 오면 마군을 잘라 이 경계에서는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분별심이 없어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십이인연(十二因緣)

(4) 사지(四支)

십이인연은 다시 능인지(能引支), 소인지(所引支), 능생지(能生支), 소생지(所生支)의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때문에 십이인연을 다시 십이유지(十二有支)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支)는 원인의 뜻인데, 십이지가 삼계생사의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삼세양중인과의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 현세에 바로 한 종류의 생사유전의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과의 측면에서 원인을 추구하고 원인을 따라 결과를 부르는 측면에서 말해 보면 사람들의 일기생명마다에는 결과로 이어지는 순간이 바로 다음의 새로운 원인을 잉태하는 상호관계성을 동시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세의 행업과 그 과보의 관계는 끝없는 반복 순환관계를 형성하여 생사유전의 고통이 단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인연법은 '이쪽 원인이 없으면 저쪽의 결과도 없고, 이쪽이 소멸하면 저쪽도 동시에 소멸한다'는 인과율에 의거해서 괴로움의 결과를 부르는 직접적인 악업이라는 원인을 짓지 않는다면 바로 악업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중생 가운데 괴로움을 싫어한다면 반드시 열반법을 추구하여 괴로움을 부르는 무명번뇌 염법(染法)에서 해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연상속의 연결고리를 절단하고 영원히 삼계고해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모든 대장경에 수록된 내용들이 전부 이 의미를 드러내 밝혔을 뿐입니다.

사지(四支)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능인지

무명과 행을 말하는데, 이 둘의 원인이 '식' 등 현재의 오과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②소인지

본식인 아뢰야식 가운데 함장된 미래의 이숙과(異熟果), 즉 아뢰야식에 포섭된 '식' 등 오과를 직접 일으키는 종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두는 무명과 행 등 과거의 이지(二支)를 이끌어들여 발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측면에선 미래 과이지만 미래가 아직 일어나기 이전의 측면에선 현재의 오과입니다. 이는 단지 과거와 현재를 다른 시간대에서 주관과 객관의 관계성으로 분류했을 뿐입니다.

③능생지

애 위 유를 말하는데, 미래의 생과 노사인 이지에 근접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④소생지

생 노사는 애 취 유의 삼지에서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이상은 시차별로 일어나는 삼세인과 관계를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 관계성으로 다시 분류했을 뿐입니다.

■정리=張如舟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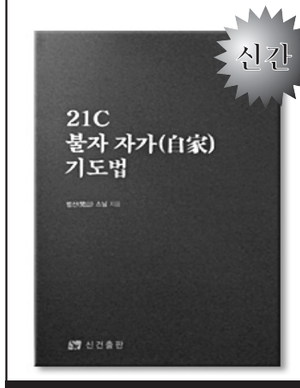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易理作名法

[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鄒陽學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불교는 '숲의 종교' … 사람과 닮아가는 사찰숲 기록해

(109) 연재를 마치며


치악산 구룡사 토양조사.


청량산 식생 모니터링.


월정사 물고기 탐사.


식생지도 그리기.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필자가 우리 숲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자연생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던 1994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태탐방 교육단체인 두레생태기행을 만들었다. 매달 2~3 차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전국의 산과 강과 바다를 찾아다니는 활동을 펼쳤다.

그즈음 사찰 환경이 곳곳에서 훼손되면서 사찰숲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사찰숲은 우리 산림환경의 지표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정책과 내부의 대형불사 등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었다. 우리는 생채기 없는 산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도덕적 사명이 있다.

사찰숲은 1929년 일본인들이 자원착취를 목적으로 전국 사찰림을 한 차례 조사한 일 외에는 해방 후 여태까지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사찰숲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었다. 그래야만 사찰숲의 변화와 파괴의 정도를 비교하고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사찰생태연구소'라는 모임을 만들어 사찰숲을 찾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나섰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사가 동참해 '108사찰 생태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하게 됐다. 2002년 4월 안성 칠장사를 시작으로 2008년 11월 강원도 양양 낙산사를 끝으로 7년이 걸렸다.

우리가 7년 동안 찾아다닌 108개 사찰은 종파에 관계없이 전국의 주요 전통사찰을 비롯해 5대 적멸보궁, 3대 관음도량, 탐방객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사찰, 생태 가치가 뛰어난 사찰이 망라돼 있다. 대표적인 서울 도심 사찰 봉은사도 빼놓지 않았다.

생태 모니터링(Eco monitoring)이란 숲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숲을 찾아가 자연을 읽고 동식물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현장에서 조사 기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모를 정리하고 다듬는 일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교수와 박사 등 전문가를 비롯해 숲 해설가 등 여럿이 동참했다. 특히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 구룡사 등 몇 개의 사찰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된 정통 생태조사였다. 그러나 절반 넘게는 혼자 조사를 다녔다.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료와 사진을 정리하는 일이 또 남아 있다. 이름을 모르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관련 도감을 통해 동정했고, 그래도 긴가민가한 것은 여러 통로에 보내서 동정을 구했고, 동행한 이들이 보내준 자료를 참고해 보고서를 정리했다.

여기서 사찰숲이란 물론 식생(植生)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곤충류에서부터 조류와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상과 토양에 대한 것도 '사찰숲'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지질과 지형을 비롯하여 풀과 나무들, 조류, 곤충, 어류,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를 비롯해 생활환경까지 조사했다.

생태모니터링하는 데 소요된 재원은 자가충당이었다. 가능한 사찰의 편의를 받지 않은 것은 공문을 주고받는 번거로움도 싫었지만, 협조를 받으면 그 사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다만, 문경 봉암사를 비롯해 몇 곳의 비구니사찰은 특성상 부득이 사전 협조를 구했다.

필자는 차가 없다. 15년 생태운동을 하다 보니 행여 차를 갖게 될까 봐 운전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108 사찰 대부분을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다녔다. 사찰 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 경기도 광주 집을 나서 돌아올 때까지 왕복 10차례나 교통편을 바꿔 탄 적도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북으로는 강원도 고성 금강산의 건봉사부터 남으로는 해남 땅 끝의 미황사와 바다 건너 한라산 관음사까지, 해발 1244m 설악산 봉정암부터 해발 0m의 바다 위에 뜬 서산 간월암까지, 산중의 절부터 서울 도심의 봉은사에 이르기까지. 한 철도 거르지 않고 찾아다녔다.

그동안 사찰숲에서 만난 친구들은 이름만으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 바위에 붙어사는 지의류에서 이름 모를 이끼까지, 남방 난대식물부터 북방 아한대 식물까지, 물속에 사는 물벌레에서 창공을 나는 잠자리까지, 심산유곡에 사는 열목어부터 농수로에서 헤엄치는 송사리까지, 텃새에서 여름철새와 겨울철새에 이르기까지, 땅속 두더지부터 수달과 삵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다양했다. 생명체뿐 아니라 산을 지켜 온 바위에서 숲 속의 토양까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발에 밟히는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었다.

사찰숲을 찾아다니며 새삼 느낀 것은 불교와 숲의 깊은 인연이었다. 붓다는 숲 속에서 태어나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은 숲속의 선각자였기에 불교가 '숲의 종교'일수밖에 없었다.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서도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다. 우리의 절 집은 산막(山幕)이요, 스님들은 숲지기였다. 역사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주고, 사찰숲이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7년 동안 사찰숲을 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절로 이루어진 숲이든 사람이 심어 가꾼 숲이든, 숲은 거기에 사는 사람을 닮는다는 사실이었다. 도시의 숲은 시민들을 닮고, 사찰숲은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을 닮아 있다. 나무는 심기만 한다고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다. 천연덕스럽게 자란 사찰숲을 찾을 때마다 옛 스님들의 무위자연의 손길이 새삼 놀라웠다.

비교적 자연과의 조화가 좋았던 사찰로는 영월 법흥사, 오대산 월정사, 김천 수도사, 문경 봉암사, 해남 미황사, 봉화 청량사, 문경 김룡사, 울진 불영사 등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나 감동이 큰 만큼 아쉬움도 뒤따랐다. 정부나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사찰 스스로의 대형불사 등으로 말미암은 사찰숲 훼손은 안쓰러울 정도였고, 이런 현실은 한없는 회의와 비애로 다가왔다.

생태모니터링 보고서에 기록된 종은 2000여 종이 넘고, 해설한 동식물만도 1000여 종이나 된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을 식물로는 김천 수도사의 개불알꽃, 정선 정암사의 산작약, 양양 낙산사의 해국, 여주 신륵사의 가시박, 문경 봉암사의 꼬리진달래, 울진 불영사의 금강송, 덕유산 백련사의 구상나무 등이다. 동물로는 영동 반야사 계곡의 재첩, 오대산 월정사의 금강모치, 영월 법흥사의 까막딱다구리, 양양 낙산사의 바다가마우지와 바다직박구리, 설악산 봉정암의 산양 등이다.

108사찰 생태모니터 보고서의 분량은 대개 사찰당 200자 원고지로 60~80매 정도이다. 개인적인 감상이나 문학적인 수사에 치우치면 기록물로서 객관성과 신빙성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건조하고 딱딱한 문체를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생태에 대한 초심자들도 쉽게 관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요 동식물에 대한 짧은 해설을 곁들였으며, 모니터 구간도 초심자들이 쉽게 탐방관찰할 수 있도록 사찰 입구에서부터 동선에 따라 조사구간을 정했다.

보고서 내용의 30% 정도를 발췌해 7년 동안 현대불교신문에 '108사찰 생태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하고, 90%를 다듬어서 이번에 <산사의 숲을 거닐다>(10권 시리즈)를 펴내게 됐다.

<산사의 숲을 거닐다>는 단순한 여행객이나 산행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우리의 자연을 생각하고 산사의 숲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썼다. 산사의 숲 속의 생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산사의 숲 속에 또 다른 숲으로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생태적 시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 그러기에 절과 숲에 처음 눈을 뜨는 사람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희망사항으로 그칠지도 모르지만, 이 책이 1세기 뒤 혹은 더 먼 훗날 이 땅에 살 사람들에게 오늘의 산사의 숲을 알려 주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 108사찰 생태조사 모니터링에 참가한 분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임주훈(두레생태기행. 임학박사)
배상원(사찰생태연구소. 임학박사)
류새한(사찰생태연구소. 식물분류학 박사)
김병연(두레생태기행. 식물분류학 박사 수료)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식물분류학 박사 수료)
박해철(두레생태기행. 곤충학 박사)
손재천(농업과학기술원. 곤충학 박사)
정부희(성신여대. 곤충학 박사 과정)
강태환(성신여대. 곤충학 박사 과정)
김정환(고려곤충연구소장)
이기섭(사찰생태연구소. 조류생태학 박사)
이학영(두레생태기행. 자생어종연구협회장)
강영호(사찰생태연구소. 토양학)
김영일(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장용준(두레생태기행. 고려대 곤충학 박사 과정)
문영자(숲해설가)
원진희(숲해설가)
강영란(숲해설가)
박현숙(숲해설가)
김지현(숲해설가)
박종숙(숲해설가)
이미옥(숲해설가)
정미경(숲해설가)
원우 스님(부석사. 천수만 철새센터)
이호신(두레생태기행. 한국화가)
조채희(사찰생태연구소 사무국장)

| 이 름 | 나 이 | 신장 | 학 력 | 직 업 | 주소지 |
|---|---|---|---|---|---|
| 정영식 | 1964년생 | 170 | 고 졸 | 공무원 | 서 울 |
| 임용우 | 1966년생 | 174 | 고 졸 | 자영업 | 서 청 |
| 노해용 | 1972년생 | 173 | 고 졸 | C E O | 청 주 |
| 이준우 | 1964년생 | 168 | 고 졸 | 회사원 | 대 전 |
| 김현태 | 1957년생 | 173 | 고 졸 | 회사원 | 대 구 |
| 조복재 | 1965년생 | 180 | 고 졸 | 일반전문직 | 구 미 |
| 임태빈 | 1981년생 | 180 | 대 졸 | 공무원 | 서 천 |
| 김기엽 | 1969년생 | 180 | 전문대졸 | 자영업 | 서 울 |
| 홍봉표 | 1967년생 | 180 | 전문대졸 | 회사원 | 경기고양 |
| 최명길 | 1974년생 | 165 | 고 졸 | 회사원 | 경기시흥 |
| 오상택 | 1965년생 | 165 | 고 졸 | 회사원 | 경기부천 |
| 한용석 | 1975년생 | 167 | 고 졸 | 회사원 | 부 여 |
| 최경복 | 1971년생 | 174 | 고 졸 | 회사원 | 전 주 |
| 이정배 | 1966년생 | 172 | 고 졸 | 회사원 | 충북영동 |
| 임형준 | 1973년생 | 176 | 전문대졸 | 회사원 | 대 전 |
| 이영근 | 1976년생 | 165 | 대 졸 | 회사원 | 대 전 |
| 김대중 | 1974년생 | 173 | 대 졸 | 회사원 | 경기용인 |
| 정화섭 | 1960년생 | 175 | 대중퇴 | 공무원 | 경기이천 |
| 이동희 | 1972년생 | 180 | 대 졸 | 회사원 | 경북예천 |
| 강정복 | 1965년생 | 170 | 고 졸 | 자영업 | 인 천 |
| 정지영 | 1974년생 | 174 | 중 졸 | 회사원 | 수 원 |
| 임인갑 | 1974년생 | 165 | 고 졸 | 회사원 | 대 구 |
| 이현철 | 1972년생 | 175 | 방통대재 | 금융직 | 서 울 |
| 김종희 | 1963년생 | 163 | 고 졸 | 회사원 | 서 울 |
| 이영일 | 1965년생 | 165 | 대 졸 | 회사원 | 강원태백 |
| 박종구 | 1972년생 | 175 | 고 졸 | 회사원 | 경기안양 |
| 최용상 | 1970년생 | 170 | 방통대재 | 공무원 | 서 울 |
| 이동원 | 1970년생 | 172 | 대 졸 | 회사원 | 서 울 |
| 남정대 | 1971년생 | 173 | 고 졸 | 회사원 | 경북구미 |
| 육근성 | 1970년생 | 185 | 전문대졸 | 회사원 | 충북옥천 |
| 박이수 | 1960년생 | 168 | 중 졸 | 회사원 | 경기수원 |
| 배영순 | 1956년생 | 150 | 대중퇴 | 자영업 | 경기화성 |
| 오성택 | 1970년생 | 165 | 고 졸 | 사업예정 | 경기부천 |
| 변희섭 | 1965년생 | 174 | 고 졸 | 회사원 | 경북구미 |
| 김대환 | 1973년생 | 172 | 대 졸 | 학원실장 | 광주광역시 |
| 김창영 | 1970년생 | 163 | 대 졸 | 복지사 | 충주시 |
| 박영학 | 1967년생 | 170 | 고 졸 | 회사원 | 고양시 |
| 홍진석 | 1968년생 | 167 | 대 졸 | 시설관리 | 부천시 |
| 조성현 | 1969년생 | 170 | 전문대 | 회 사 | 서 울 |
| 배병언 | 1967년생 | 169 | 대 졸 | 회 사 | 부 산 |
| 전남진 | 1972년생 | 172 | 전문대 | 치기공사 | 서 울 |
| 이규안 | 1970년생 | 165 | 대 졸 | 건 설 사 | 광주시 |
| 이광표 | 1968년생 | 168 | 고졸자 | 영 업 | 서 울 |

| 이 름 | 나 이 | 신장 | 학 력 | 직 업 | 주소지 |
|---|---|---|---|---|---|
| 권순석 | 1978년생 | 171 | 대 졸 | 건설사 | 경기도 |
| 박영규 | 1966년생 | 182 | 고졸자 | 영 업 | 전주시 |
| 문윤종 | 1970년생 | 163 | 고졸자 | 영 업 | 광주시 |
| 김길성 | 1975년생 | 175 | 전문대 | 공무원 | 대 전 |
| 민의식 | 1969년생 | 172 | 고 졸 | 회사원 | 부 산 |
| 최정우 | 1978년생 | 178 | 대 졸 | 건설사 | 서 울 |
| 노금광 | 1972년생 | 162 | 고 졸 | 회 사 | 진해시 |
| 정연종 | 1959년생 | 165 | 고 졸 | 무 원 | 충 남 |
| 오세준 | 1975년생 | 175 | 고 졸 | 회 사 | 경기도 |
| 박헌득 | 1964년생 | 163 | 고 졸 | 회 사 | 서 울 |
| 임상훈 | 1973년생 | 172 | 대 졸 | 회 사 | 경기도 |
| 연길호 | 1973년생 | 175 | 대재학 | 무 원 | 경기도 |
| 박성준 | 1965년생 | 169 | 고 졸 | 회 사 | 대구시 |
| 박준규 | 1971년생 | 170 | 대 졸 | 건설사 | 제천시 |
| 최용우 | 1962년생 | 164 | 고 졸 | 영업사 | 홍성군 |
| 조현욱 | 1972년생 | 166 | 고 졸 | 리사 | 경기도 |
| 김진묵 | 1969년생 | 170 | 고 졸 | 무 원 | 충 북 |
| 김재원 | 1966년생 | 175 | 고 졸 | 회 사 | 대 구 |
| 서종은 | 1971년생 | 170 | 고 졸 | 회 사 | 경기도 |
| 이건우 | 1971년생 | 173 | 대 졸 | 영업 | 경주시 |
| 박천수 | 1975년생 | 160 | 전문대 | 발전공사 | 강원도 |
| 모용구 | 1973년생 | 175 | 대학원 | 육 직 | 경기도 |
| 박대식 | 1974년생 | 177 | 대학원 | 영 업 | 충 남 |
| 최병익 | 1974년생 | 176 | 고 졸 | 회 사 | 서 울 |
| 김진혁 | 1964년생 | 160 | 고 졸 | 회 사 | 경기도 |
| 정지민 | 1970년생 | 162 | 고 졸 | 회 사 | 전 남 |
| 정일도 | 1967년생 | 165 | 고 졸 | 준공무원 | 서 울 |
| 박선준 | 1974년생 | 175 | 대 졸 | 회 사 | 천 북 |
| 진인덕 | 1965년생 | 157 | 대 졸 | 농 업 | 경 서 |
| 연태현 | 1973년생 | 182 | 고 졸 | 사 업 | 울 전 |
| 전홍배 | 1979년생 | 170 | 대 졸 | 영업 | 북 |
| 박정은 | 1972년생 | 168 | 대 졸 | 학원강사 | 충 북 |
| 강충남 | 1973년생 | 160 | 고 졸 | 회 사 | 전 북 |
| 손종헌 | 1971년생 | 172 | 고 졸 | 회 사 | 경기도 |
| 김대수 | 1973년생 | 170 | 대 졸 | 육 직 | 울 울 |
| 장천석 | 1967년생 | 175 | 고 졸 | 회 사 | 서 울 |
| 안상기 | 1966년생 | 185 | 고 졸 | 무 원 | 충 북 |
| 정우철 | 1974년생 | 175 | 대 졸 | 사 업 | 충 경 |
| 김윤구 | 1979년생 | 170 | 대 졸 | 회 사 | 기 전 |
| 정효승 | 1975년생 | 170 | 대 졸 | 회 사 | 울 |
| 유준호 | 1971년생 | 176 | 대 졸 | 회 사 | 서 울 |
| 박대현 | 1977년생 | 168 | 고 졸 | 회 사 | 충 주 |
| 박범진 | 1975년생 | 182 | 고 졸 | 공 무 | 서 울 |

| 이 름 | 나 이 | 신장 | 학 력 | 직 업 | 주소지 |
|---|---|---|---|---|---|
| 민건홍 | 1973년생 | 170 | 전문대 | 건축설계 | 경기도 |
| 한상규 | 1973년생 | 171 | 대학교 | 환 경 | 충 북 |
| 양명진 | 1955년생 | 170 | 고 졸 | 회 사 원 | 논 산 |
| 이용철 | 1967년생 | 165 | 고 졸 | 회 사 원 | 경기도 |
| 고종욱 | 1970년생 | 167 | 대학교 | 회 사 원 | 서 울 |
| 안태영 | 1975년생 | 170 | 대학교 | 회 사 원 | 천 안 |
| 박진풍 | 1969년생 | 162 | 대학교 | 학원강사 | 울 산 |
| 배종우 | 1971년생 | 170 | 전문대 | 자영업 | 대 서 |
| 김상기 | 1975년생 | 170 | 고 졸 | 조리사 | 울 북 |
| 이종호 | 1976년생 | 163 | 고 졸 | 회 사 원 | 경 북 |
| 오진철 | 1974년생 | 170 | 대 졸 | 한약사 | 충 북 |
| 이상경 | 1974년생 | 173 | 대학교 | 회 사 원 | 경 북 |
| 최영철 | 1966년생 | 160 | 전문대 | 회 사 원 | 부 산 |
| 정선모 | 1964년생 | 158 | 대학교 | 치과원장 | 대 전 |
| 유창식 | 1974년생 | 165 | 대학교 | 약 사 | 북 울 |
| 전보우 | 1971년생 | 173 | 대학교 | 금 융 | 서 천 |
| 차준학 | 1972년생 | 171 | 대학교 | 철도공사 | 천 안 |
| 이공희 | 1972년생 | 165 | 고 졸 | 회 사 원 | 전 |
| 안민수 | 1974년생 | 175 | 대 졸 | 회 사 원 | 경기도 |
| 고석범 | 1974년생 | 162 | 대 졸 | 회 사 | 전 북 |
| 오귀석 | 1958년생 | 170 | 고 졸 | 군 인 | 충 북 |
| 이진용 | 1955년생 | 175 | 고 졸 | 회 사 원 | 청 주 |
| 안명규 | 1977년생 | 168 | 대 졸 | 회 사 원 | 울 |
| 여인석 | 1971년생 | 183 | 대 졸 | 학원원장 | 경기도 |
| 여인재 | 1973년생 | 176 | 대 졸 | 학원원장 | 경기도 |
| 박홍철 | 1974년생 | 170 | 고 졸 | 회 사 원 | 청 주 |
| 임재환 | 1970년생 | 173 | 고 졸 | 부 동 산 | 대 구 |
| 최우준 | 1971년생 | 167 | 고 졸 | 회 사 원 | 경기도 |
| 김정태 | 1957년생 | 162 | 대 졸 | 회 사 원 | 경기도 |
| 성민수 | 1976년생 | 168 | 대 졸 | 회 사 원 | 울 주 |
| 곽태성 | 1958년생 | 172 | 대중퇴 | 공무원 | 청 주 |
| 정현제 | 1965년생 | 174 | 대 졸 | 제과점 | 청 주 |
| 김호준 | 1970년생 | 166 | 고 졸 | 버스기사 | 울 |
| 이기종 | 1971년생 | 175 | 대학재 | 회 사 원 | 울 |
| 최성욱 | 1973년생 | 190 | 대 졸 | 도 예 가 | 경기도 |
| 조성준 | 1975년생 | 170 | 전문대 | 회 사 원 | 서 울 |
| 원병대 | 1971년생 | 165 | 고 졸 | 회 사 원 | 경기도 |
| 고병진 | 1975년생 | 163 | 대 졸 | 회 사 원 | 울 구 |
| 김지경 | 1970년생 | 168 | 고 졸 | 회 사 원 | 울 구 |
| 김정준 | 1965년생 | 165 | 대 졸 | 회 사 원 | 울 구 |
| 박경하 | 1952년생 | 177 | 대 졸 | 무 역 업 | 울 안 |
| 전준석 | 1957년생 | 167 | 고 졸 | 회 사 | 천 안 |

| 이 름 | 나 이 | 신장 | 학 력 | 직 업 | 주소지 |
|---|---|---|---|---|---|
| 오영일 | 1951년생 | 170 | 고 졸 | 회 사 | 경기도 |
| 강태욱 | 1975년생 | 169 | 고 졸 | 자영업 | 서 울 |
| 김용진 | 1968년생 | 160 | 대 졸 | 자영업 | 인 천 |
| 이경술 | 1963년생 | 163 | 고 졸 | 사 업 | 경기도 |
| 심명길 | 1971년생 | 170 | 대 졸 | 자영업 | 경기도 |
| 이연재 | 1974년생 | 169 | 대 졸 | 사 업 | 서 울 |
| 배덕열 | 1976년생 | 168 | 대 졸 | 회 사 | 경기도 |
| 배복열 | 1967년생 | 165 | 고 졸 | 자영업 | 경기도 |
| 최병덕 | 1968년생 | 170 | 고 졸 | 회 사 | 경기도 |
| 장보배 | 1973년생 | 176 | 고 졸 | 자영업 | 아산시 |
| 유돈석 | 1971년생 | 167 | 고 졸 | 회 사 | 서 울 |
| 유정환 | 1974년생 | 162 | 고 졸 | 회 사 | 대 전 |
| 김광범 | 1970년생 | 183 | 전문대 | 공무원 | 서 울 |
| 조경정 | 1945년생 | 171 | 대졸자 | 영 업 | 경기도 |
| 한 균 | 1963년생 | 174 | 고 졸 | 자영업 | 서 울 |
| 김환일 | 1959년생 | 163 | 고 졸 | 회 사 | 김해시 |
| 소무영 | 1961년생 | 175 | 전문대 | 회 사 원 | 경기도 |
| 지상훈 | 1971년생 | 180 | 고 졸 | 행 원 | 서 울 |
| 이종필 | 1974년생 | 174 | 고 졸 | 은행원 | 충 북 |
| 남상복 | 1967년생 | 175 | 전문대 | 사 원 | 김해시 |
| 최치원 | 1976년생 | 165 | 대학원 | 연구사 | 대 전 |
| 김성진 | 1979년생 | 171 | 고 졸 | 회 사 원 | 울산시 |
| 백선기 | 1976년생 | 167 | 대학원 | 회 사 | 서 울 |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 캠페인 PR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근본에서 살게끔 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금왕지원 심천회 회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올리기 전에 큰스님과 함께 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주인공 자리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윤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가에서는 죽고 난 뒤에 육도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천상, 인간, 아귀 등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죽고 나면 육도윤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육도윤회라는 것도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섯 가지 이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돌이나 나무, 방석 그런 무생물로도 윤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큰스님께 여쭙습니다.

**큰스님** 내가 이 말을 묻고 싶군요. 돌이 이렇게 섰는데 말입니다, 바람에 씻기고 스쳐서 그냥 반드르르하게 쪽이 닳아 나갔어요. 그런 걸 볼 때 그거는 바뀌지지 않는 거요?

**질문자1(남)** 바뀌집니다.

**큰스님** 그렇죠? 그런데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노릇 하다가 바로 자식 노릇 할 때가 윤회예요. 자식이 남편 노릇 하다가 아버지 노릇을 할 때가 바로 윤회라니까. 윤회가 별다른 거 아니에요. 살면서 윤회하는 것이, 죽어서도 살아서도 그냥 윤회예요. 그러니까 전부 윤회가 되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애기로 태어나서 젊어지고, 젊어졌다가 늙어지고 하는 것도 바로 윤회죠. 또 우리가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도망가고 또 딴 말을 해야 하니까 그것도 윤회고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은 없다고 하는 거죠. 너무 바뀌지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붙을 데가 없다. 반은 있고 반은 없어야 윤회라고 할 수 있지 윤회가 너무 많아서 그냥 막 돌아가는데 무슨 윤회가 거기 붙습니까? 지구가 돌아갈 때에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그럽니까? 그런다면 윤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윤회도 없다 이런 문제예요.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것이 부처지 있는 것이 부처가 아니다.

**질문자1(남)** 그러면 육도윤회라는 그 가르침도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큰스님** 그거야 학술적으로 꼭 있어야 배우는 거 같으니까 경전에도 있고 다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육도윤회니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다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것에 조금도 걸려서는 안 된단 얘기죠, 그런 걸로 인해서 걸리니까. 또, 걸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육도윤회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도 모두 읽어 봐서, 내가 침착하게 한번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것도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만나게 하는 것도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모두가 고놈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나를 알고 나서야 그것이 다 해당되죠. 가르치는 데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 가지고 그 천차만별의 문제를 다 여러분이 해라 이거죠. 하지 마라, 해라가 없이 그대로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행선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좌선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일어날 땐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죠? 그러니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선(禪)은 끊어지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섰든지 앉았든지, 일을 하든지 누워 잠을 자든지, 이거를 입선 · 좌선 · 행선 · 와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모든 걸 둘 아니게, 그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그냥 참선이 돼 버릴 때 바로 그것도 이름 해서 묵선이라고 할 수 있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적어도 1, 2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해야 된다고 얘길 하는데 저희 한마음선원 신도분들께서는 그 국가적 위기조차도 공부의 재료, 또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불자, 또는 국한시키면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나는 말을 만들어서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것도 걱정할 게 없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태를 간다, 5년을 간다, 이렇게 해서 빚을 어떻게 갚나 이러지마는….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를 알게 하고 깨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모두 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마음이 착하고 제대로 자기와 더불어 같이 위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태 동안에 될 거 1년에 되고, 1년에 될 거 석달에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데요, 뭐.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면 걱정을 할 게 없다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를 어떻게 걱정을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온 그 관습에 의해서 모두 집착을 갖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까짓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욕하고 때리고, 또 말로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죠. 대신에 "어디 가서 자는데 괴롭지나 않았니? 뭐 굶고 다니지는 않았니?"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 주고 안으로 관(觀)해야 뿌리가 뿌리끼리 통하는 거죠. 뿌리와 뿌리끼리 통하면은 그건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들어오는 거지, 마음이 나가고 싶으니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 그걸 가르쳐서 얘길 해 주면, 사실 쥴창 얘길 하죠. 그러면 얼마 뒤에 "들어왔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해요. 그때 또 한마디 해 줍니다. "이거 봐! 들어왔다고 마음 턱 놓지 말고, 마음에다가 관하고 부드럽게 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해 줘.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남이 나를 잘해 줄 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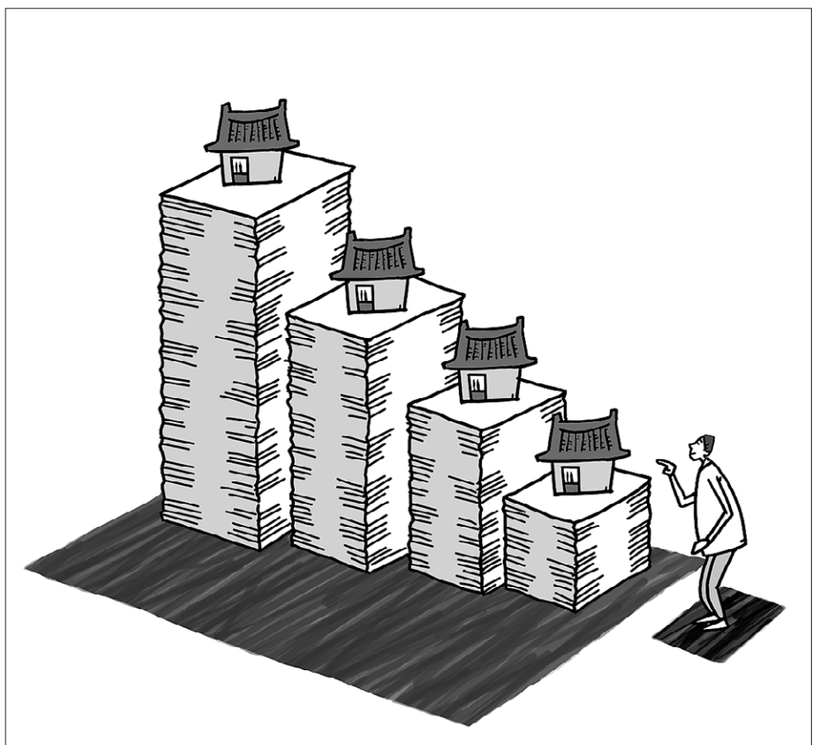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고요, 저도 나를 죽여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지금 한 찰나 생각을 해 보시오. 죽으러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하하…. 죽으러 가고 있다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양 손을 서로 굴려 보이시며) 빙글빙글 돌아서 그냥, 그냥 죽으러 가고 있는데 뭘 더 죽겠다 덜 죽겠다 하느냐구. 허허허…. (대중 웃음)

**질문자2(남)** 제가 선원에 나오면서, 법문 듣고 환희심이 생겨서 처음에는 법문만 기다려지고 법회 날짜만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희심은 더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이제 환희심은 사라지고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딱 쉬어지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푹 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간절해지질 않아서 '간절해지는 것도 당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계속 관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간절해지긴 했는데,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려면 오직 주인만을, 내 주인만을 딱 믿고 가는 '오직'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쉬어지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어려운 일 자체가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 공부를 하면 종합적인 공부를 몰아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을 녹여서 참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근본이 드러나겠지마는, 저도 이제 나이가 오십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늦는 거 같고, 그래서 먼저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녹여 나갈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뭐라고 그랬죠? (대중 웃음)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자2(남)** 저희가 계속 관을 하고 자기 업장을 소멸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기 근본이 드러나서 자기를 발견하겠지만요, 그 전에 부족한 점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우선 자기 근본을 먼저 발견을 하고….

**큰스님** 그렇게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가 붙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걸어올 때 생각했던 거는 그게 아니거든.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도 아니고, 이거를 안 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믿고, 믿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살게끔 하는 거. 내 마음은 거기에 둘 아니게 (양 손바닥을 서로 붙여 보이시

☞26면으로 계속



수행의 결실 '지묵 스님 전집'

깊이 있는 내용과 함께 독특한 개성과 진솔함, 해박한 지식이 그대로 녹아 있는,
문상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듯 거침이 없는 지묵 스님

지묵 스님은 수행정진 틈틈이 글쓰기를 하고 수련회와 방송을 통해 불법의 생활화와 참선을 강조해 온 까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원願 때문일 것입니다.
《지묵 스님 전집》의 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알기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지묵 스님의 뜻이 더욱 드러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 행복한 삶과 정토사회 이루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리며 마음모아 《지묵 스님 전집》을 엮어내는 바입니다.

01 죽비 깎는 아침 02 인도순례기 나마스테 03 봉주르, 길상입니다 04 달마와 혜능 05 초발심자경문 강설
06 육조단경 강설 07 산승일기 08 날마다 좋은 날 09 노스님의 젊음 10 비온 뒤에 무성한 조롱박 넝쿨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 팩스 02-393-9696

buddhanews.com

# 그냥 무조건 믿고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 놓으세요!

☞25면에서 계속

며) 탁 믿어 버리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움죽거리게 하는 것이 그놈이 아니겠냐 이거야. 사실이지,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없다면 지금 모두 송장들일 거예요. 허허허…. 그러니 송장을 움죽거리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거니까 뭐, 잘돼라 못돼라 할 것도 없고, 잘돼야 한다 못돼야 한다 이럴 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믿는다, 믿어라 이렇게 할 것도 없는데 그런 거죠.

**질문자2(남)**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증득을 해서 아주 탁 쉬어질 정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큰스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급하시면 그냥 무조건 믿고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 놓으세요. 감사하게 놓고, 되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고, 모든 걸 그렇게 놓고 가세요. 마음이 급하고 급하지 않고 이걸 떠나서 그냥 닥치는 대로요. 거기에 진짜 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질문자2(남)** 그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자3(남)** 청주지원에서 왔습니다. 큰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한 게 한, 4년여 되는 거 같습니다. 큰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너무나 닿아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또 '그래서 너는 죽은 거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극락의 문턱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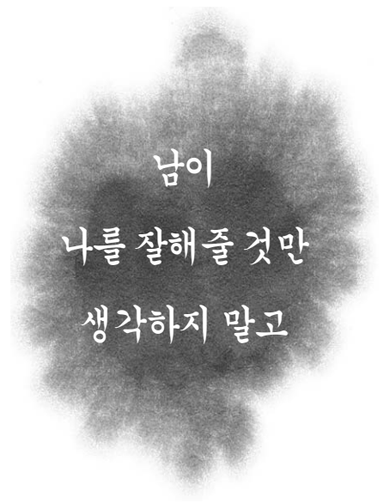
**큰스님** 하하하…, 네.

**질문자3(남)** 그런데 도반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공부를 그냥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서로 대두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법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큰스님이 그전에 공부하실 때 얘기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부산에 계시면서 거기서 식당 같은 것도 하시다가 버리시고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나도 모르죠, 그것은. (대중 웃음) 나 아닌 나가 아마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 가지고 끌고 돌아다녔는지 그거는 모르죠. 부처님께서는 그 과정을 나시기 이전에 이미 다 하시고도 나셔서, 부처님이 되셔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건 왜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의의 나를 위해서죠. 알고 보니까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바로 나의 입장이니까 그냥 모두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고행을 이차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중 웃음) 예를 들어서 아수라장이라서 듣기 싫고 고달프고 그래서 산으로 떠난다 한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허허허…, 뜨듯하게 불도 때지도 말고 사셔야죠. 모든 게 더불어 같이 사는 건데, 더불어 같이 사는 도리를 알아야 할 텐데 더불어 사는 도리를 다 내버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면 그럼, 아예 다 그냥 벗고 먹지 말고 살 테면 사세요. 허허허….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그게 항상 의문이 가서요, 그래서 도반들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걸 인산인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산에서 산의 가시는 피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의 가시를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도 왜 그럼 큰스님이 그때 그걸 버리고 산으로 가셨겠느냐. 그럼 산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잘되는데….

**큰스님** 음, 그렇게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요, 왜 산으로 다녔느냐 하는 거를 그때 생각을 하니까 물러서지 않는 패기, 두려움 없는 패기, 그리고 둘로 안 보는 패기! 그 모두를 기르기 위해서 그믐밤에 그냥 산이든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다니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길을 걸어 보니까 길도 없고 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 정상이다 이러는 거죠, 지금. 꼭 그렇게 하려면 미쳤다는 소릴 한번 들어야 하니까,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대중 웃음)

**질문자3(남)** 분명히 미쳤다 소리 안 듣고서도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큰스님** 할 수 있죠, 예.

**질문자3(남)** 고맙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대중 박수)

**사회자** 질문이 없습니다.

**큰스님** 모두 도인들이신가 봅니다. (대중 웃음) 허허허…. 따지고 보면 걱정이 없으니까 말수도 없어지고, 마음이 뛰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이 정신분열이라는 것도요, 내가 항상 말하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되거든요. 인연이 돼서 이 몸뚱이 속에 주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익하게 작용을 해 주기도 하고, 전자에 배신을 당하고 그랬던 인과의 인연은 그냥 나쁘게 작용을 해서 몸을 외려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신분열이라도 타의에서 귀신이 들어온 거는 아니다 이거죠. 자의에서 일어난 건데 자의에서 일어나는 거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자기의 불성 주인공밖에는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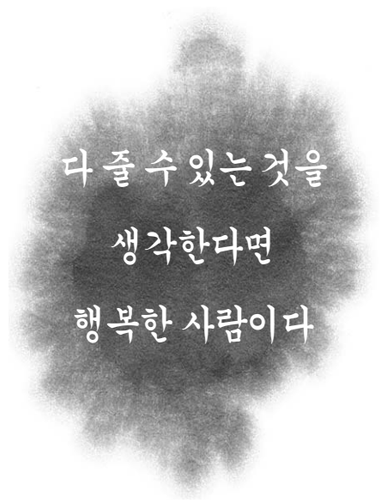
주인공이 그 의식을 다스리고 내 몸뚱이를 다스리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다 밀어 던져야죠. 거기다 일임하고 '네가 안에서 그러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다 놓으면 그대로 정신분열증도 그냥 낫는데 그거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꼭 귀신이 나한테 들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유전이 되죠, 또. '아무것도 없다' 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각을 잘못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거니까 무슨 유전성으로 이렇게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죠. 아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다고요.

그러고는 또 이러거든요. 부모가 암으로 죽었으면 '아이구, 간장이 나쁘대. 아이구, 또 유전인가 보다.' 아니 '유전인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러거든요. 허허허…. (대중 웃음) 그러니 이 생각이 얼마나 옹졸합니까, 응? 그리고 생각이 옹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패기가 없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하게 생각을 하니까 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하게 생각을 하면 이 속의 의식들이 다 약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따라요. '오늘 저녁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 의식들이 따라 주고요, '오늘은 좋은 일 하러 간다' 그러면 좋은 일로 또 따라 주고요. 그냥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여긴.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을 튼튼히 할 수도 있고 약하게 되는 수도 있고,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죽는 날까지는 살 거 아닙니까? 허허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식구들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나흘만 있다가 가면 어때요? 그, 똥을 싸서 받아 내고 온통 식구들을 다 그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고 가야 꼭 속이 시원한가요? 내가 말하려는 거는요, 그것도 생각해 둬야 될 거예요, 아마. 사는 날까지 살다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바꿀 때, 그냥 그 자기 영혼만 딱 빼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병원에 가서 마취하면 살을 잘라도 모르게끔 되듯이 말이죠.

그건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모두 기발하게 생각해서 쓰는 거지, 누가 일일이 알려 주고 누가 일일이 그렇게 해 줍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아쉬운 거라든가 모두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고쳐서 써야겠다 하면 고치고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천리를 건너뛰어도 건너뛴 사이가 없는 겁니다. 예? 천리를 건너뛰어도 건너뛴 사이가 없다. 육체로는 문을 찾아서 열고 닫고 다니지마는, 마음은 문을 찾아서 그렇게 열고 닫고 다니지 않아도 다닐 수 있고, 천리를 건너뛸 수 있고, 건너뛴다는 소리조차도 없다,




이런 거죠.

하여튼 열심히 배워서 바깥에서는 바깥대로 이 마음의 도리를, 관하는 걸 가르쳐서 모두 이익하게 하시고, 안에서 스님네들은 스님네들대로 이익하게 남을 이끌어 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로부터 앞으로는….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립해서 사는 세계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세계가 지금도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하나를 위하려면, 딴 나라를 위해 줘야, 즉 딴 나라의 일이 성사돼야 이 나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병자도 천차만별이에요. 병자가 하나 들어오면 어떤 병자는 그냥 해도…, 어떤 병이나 또, 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자꾸 죽고, 그냥 별 볼일 없게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저승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뚱이로는 못 가는 데가 저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장으로 화(化)하든지 해야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집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거와 같이 남의 나라도 잘살아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나가면 잘한다고 말로만 그랬지 그것이 실행이 되질 않고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실명제로 인해서 아예 망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지 흘러가는 물을 꼭꼭 그냥 막아 놓고는 어떻게 피가 돌고 살이 돌라고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몸뚱이를 딱 가둬 놓은 거와 같으니까 스위스나 뭐 이런 데로 다, 허허허…, 옮겨지죠. 나라의 돈이 다 그렇게 딴 데로 퍼지고 딴 나라로 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되는 건 집에다가 그냥 쌓아 놓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많죠.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는 지금 가뜩이나 반씩 나누어서 전세 살고 있는 셈인데 그럭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야 썩지를 않는데, 이 실명제로 딱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데 이 물 들어오는 걸 막고 꼬장꼬장하게 내 물만 요렇게 두려고 한다면 그 물은 썩어요. 결국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더불어 같이 사는 세계고, 우리나라도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가 마음 언짢지 않게 섭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게 월등히 더 발전도 되고, 의합 되고, 도깨비들도 생기지 않고, 강도들도 생기지 않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에 가깝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하다못해 빵 장수의 돈까지 묶어 놓은 셈이니까요. 허허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혜에 모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할 것은요, 우리가 '불교' 하면 진리가 불교인데 불은 생명이요 교는 바로 생활인데, 내 종교만 제일이고 남의 종교는 다 아니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죠. 그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싸안아 줄 수 있고 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건 대통령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아, 요 주머니 안에서 자기가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도 미안할 텐데, 하하하…, 아이, 요 주머니 속의 한 귀퉁이에서, 또 그것도 한 귀퉁이를 막아 가지고, 그것도 반쪽씩 나누어 가지고 들어앉아서 그러는 그게 할 일이에요? 공기주머니 하나를 버스라고 할 때 버스 안에서 걸상 하나씩 틀어쥐고 앉아서 이거는 내 거라고 하는 격인데 어떻게 그 버스가 목적지까지 가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한 거 같죠? (대중 웃음, 박수) 말 잘못하면 뭐, 불잡혀 간다는데…. 그 뭐 나는 하나도, 불잡혀 가든지 말든지…. 요말 했다고 불잡혀 가지는 않겠지. 날 불잡아다가 뭐 하겠어요, 또? 날 불잡아 가도 같이 지옥에 들어갈 테니까. (대중 웃음, 박수)

※위 법문은 1997년 12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8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초급반(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특 수 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살풀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 · 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 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기에맞는 스님들을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림.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속설에 의하면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오대산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시는 스님들은 혈액을 맑게하여 원기와 기력을 돋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몸의 냉기를 제거시켜 혈액순환이 잘되어 추위를 이겨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가목** 차를 드시며 수행하고 산승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하신 고승으로부터 고유 전래의 비법을 전수 받아 청정한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시주 불자님께서 요청하시면 보시합니다.

대진 승 두손 모음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출연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불기 2553년(2009년) 기축년 새해 새날

## 신년 특집광고 접수 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3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하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진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제 목 : 2009년 신년 특집 축하광고
■ 내 용 : 축하말씀, 단체 및 사찰명, 임원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 크 기 :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 마감일 : 2008년 12월 22일(월요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및 지사지국

| | |
|---|---|
| 본 사 | 02)732-1522 |
| 부산지사 | 051)632-0064 |
| 대구지사 | 053)768-8008 |
| 충청지사 | 043)732-5560 |
| 경남남부 | 055)746-9778 |
| 경남동부 | 055)353-1196 |
| 경남서부 | 055)355-7472 |
| 광주전남 | 062)384-3009 |
| 전 북 | 063)910-5199 |
| 영주지국 | 054)634-3429 |

※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립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사



불자 세상보기

허 남 결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 ‘품위 있게 죽을 권리’의 앞과 뒤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가 국내 최초로 환자의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당사자는 2월 폐 조직 검사를 받던 중 폐혈관이 터지면서 곧바로 뇌사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인공호흡기로 연명해 오고 있던, 올해 76세 할머니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평소 이 할머니의 언행이나 구체적 행동 사례들로 미루어볼 때, 만약 의사표현이 가능했다면, 인위적인 의료장치를 부착하면서까지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 법원이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사건은 병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까지 갈지도 모르는 재판절차가 남아 있지만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논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 여부를 더욱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란 말은 소극적 안락사의 또 다른 표현이다. 안락사는 크게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반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의료진의 시술방식에 따라 독극물의 주입과 같은 적극적인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다.

위의 경우는 이 가운데 소생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고령이고 기대수명이 3~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한 소극적 안락사의 일종인 셈이다. 이는 의료진의 판단보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종교계 및 관련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일반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현대 윤리학은 이와 같은 윤리적 갈등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의 속성상 정답을 내놓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지역이나 민족,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종교 및 문화 등에 따라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가치관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존엄사 허용의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경제적 이유로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가족 등 제삼자의 자의적 판단과 개입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이는 여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환자 본인의 존엄하게 죽을 인격권이 다른 이유로 인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불교의 전통적인 입장에서도 죽음 그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직접적으로 의도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가자의 경우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자살, 즉 요즘 말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듯한 언급도 없지 않아 현대적 의미의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는 존엄사가 허용되거나 적어도 암암리에 묵인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한다.

관건은 그것을 수용하거나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말하자면 존엄사의 선택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숙고해야 할 방안이자 이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진정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불교적 지혜가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존엄사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불교 호스피스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환자들에게 생의 마지막 몇 개월을 생사를 초월한 불제자답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보살펴준다면 존엄사의 공개적 허용이 안고 있는 본질적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무조건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㉝ 당신의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이제 졸업을 앞둔 그 남학생은 여러 번 고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나왔다. 한번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좀 수줍게 “그 분들을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 분들이 누구신데요?” 하니 “저의 부모님요. 특히 아버지께 감사해요”라고 대답했다. 참으로 반갑고 기뻤다. 자칫 여러 가지 일로 그가 방황하는가 걱정된 적도 있었기에 ‘부모님을 확실히 믿고 사랑한다면 안심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됐다.

### 아버지의 모습에서 배워요

아버지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소방관이십니다. 아버지는 25년 이상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구해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보고 배웠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시던 때 아버지는 피곤하지만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같이 놀아 주셨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 봉사와 희생정신

초등학교 때 저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소방관이었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저는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아버지께 저의 꿈을 말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물론 다른 직업보다 힘들고 돈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직업이다. 경찰관은 음주단속 한다고, 범죄자들 잡거나, 놓쳤을 경우 국민이나 정부에게 욕을 먹고, 일반 업무직 공무원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욕을 먹지만 소방관은 그렇지 않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인 동시에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로 사회에서는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친 신념 깊은 소방관으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십니다.

###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와 같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며 조금 빨리 가겠다고 주변사람들을 짓밟지 않을 것이며 윗사람이 돼서도 후배들에게 훌륭한 선배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돌아와서는 사랑스러운 남편,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다보다 깊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나 자신 외에 그리고 내 주변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해하는 것은 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항상 따뜻한 사람

저의 많은 경험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마음속을 항상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가족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의 행동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 신문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돈이나 권력, 지위 · 학력을 남용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과연 아들에게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대학생의 아버지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이제 그 학생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쌀쌀한 날씨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그의 아버님께 아들의 선생으로서 함께 감사드리고 싶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 가득하시길 마음 다해 기원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 社說

## 불교복지의 새로운 길

강백 지안 스님은 <금강경> 강의를 할 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 강조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면회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따뜻한 의복을 준다 해도 그를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보다 못하다는 비유를 들면서, 불교가 지향하는 복지의 궁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현실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하고 헐벗은 사람은 따뜻하게 입혀야 한다.

불교계의 복지 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괄목할 성장을 보여 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설립 14년 만에 700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스님과 불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종사자들도 해를 더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라 한다. 무엇보다 복지의 질적인 성장도 ‘쾌속’으로 평가되고 있어 시설 수탁에 가속이 붙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 불교복지는 새로운 진화를 위한 의제를 안고 있다. 제1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세미나에서 생태운동과의 소통, 노년 복지공동체로서의 사찰 기능 등이 새롭게 관심 가져야 할 분야로 거론됐다. 그간 시설과 시스템의 확대와 정착에 매진해 왔던 불교계 복지 패턴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론의 개발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불교복지의 성장 동력은 자비실천을 통한 정토건설의 ‘원력’이다. 이제 환경 생태 등의 의제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접목시킨 불교복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관련기관과 학자들의 협력을 기대한다.

## 종조 헌창 정신으로 화합을

태고종이 중국 절강성 천호암에 종조 태고보우 국사를 헌창(獻彰) 하는 비를 세우고 법회를 봉행한다고 한다. 천호암은 태고 스님이 스승 석옥청공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은 곳이다. 태고종의 종조 헌창 사업은 종단의 뿌리를 명확히 인식해 가르침을 흐리지 않겠다는 종단적 발원으로 보인다.

태고종은 최근 1년 여 동안 내부의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물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그 갈등은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고 종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종조의 존재를 재인식하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어 받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신선해 보인다.

내부의 갈등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명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정치적 피곤함’을 잊고 종단의 뿌리 재인식 불사를 추진한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다. 현세인의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갈등에 눈과 귀를 잃고 근본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태고종의 종조 헌창 불사는 종도들이 보다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에 열린 공청회에서 운산 스님은 확실한 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따라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우승가회도 철저한 조사와 명백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국면은 팽팽하지만 공청회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합의 물꼬 트기에 대한 기대도 안겨준다. 종조를 헌창하는 정신으로 화합하는 태고종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빙의, 제대로 알자



빙의의 시대2

지은이 / 일 광(逸廣)
신국판 /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일광 _ Tel. 010-5040-7679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 마지막 조선인 이방자 여사 "내 조국도 묻힐 곳도 한국"

## ㊸ 영친왕 이은·이방자 여사 – 영원

영친왕1897~1970(74세)
이방자 여사 1901 ~ 1989(89세)

어쨌든 홍유릉은 황제의 능이다. 일제의 입김에 의해 다소 요상하게 조성되긴 했지만 황제의 능이다. 홍유릉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30~40분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면 오솔길이 끝나는 부분에 작은 무덤이 보인다. 규모는 작으나 홍살문, 참도, 정자각, 비각 등을 갖췄다. 영친왕과 비 이방자 여사가 잠들어 있는 영원(英園)이다. 정식 안내판은 없고 철판에 페인트 글씨로 영친왕 내외의 무덤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홍유릉에서 함께 관리한다. 비공개이나 관리인 청년의 배려로 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오솔길을 달렸다.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李垠). 고종의 넷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귀비 엄씨(貴妃嚴氏)이다. 순종과는 이복형제간이다. 1900년(광무 4) 8월 영왕(英王)에, 1907년(융희 1) 황태자에 책봉됐다. 1907년 12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에 의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되면서 융희황제(隆熙皇帝 : 뒤의 순종)가 이왕(李王)으로 폐위되자, 그도 황태제에서 왕세제(王世弟)가 됐다. 1920년 일본의 흡수정책에 따라 일본 왕족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의 딸 마사코(方子)와 정략결혼을 했다.

1926년 순종이 죽자 형식상으로 왕위계승자가 돼 이왕이라고 불렸다. 일본에 억류돼 있는 동안, 일본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을 거쳐 육군중장을 지냈다. 물론 허울뿐인 계급이다. 일제가 그에게 사단장, 군단장 등의 지휘관 직책을 부여할 리 만무하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귀국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 뒤 1963년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1963년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했으나 귀국 당시 이미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영친왕으로 불러야 하나? 영왕으로 불러야 하냐는 논란도 있다.

이은씨는 대한제국이 수립된 뒤에 태어났기에 처음부터 신분이 '황제의 아들'이었고 1900년에 '영친왕(英親王)'에 책봉됐다. 왕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왕'에게는 친왕(親王)이라는 호칭을 쓴다. 이은씨는 친왕이었고, 왕호에 붙여준 이름이 '영(英)'이라서 '영친왕(英親王)'이 된 것이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고종 황제가 내린 조서나 각종 제도 등에 모두 '영친왕'이란 왕호를 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가 1907년에 친왕보다 격이 높은 황태자로 책봉되자 영친왕이란 왕호(王號)가 공식 폐지됐다(순종실록 순종 1년 8월 24일조 참조).

그런데도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측은 "이은씨는 '영왕'으로 책봉됐으며 영친왕이란 표현은 일본 황실이 예우의 명목으로 붙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영왕 이은'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도 바르게 고쳐야 한다. (송우혜 소설가)

종약원 측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천황 정비에게서 난 아들(황자<皇子>)과 그런 아들이 정식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황손<皇孫>) 외에 천황의 형제가 친왕(親王)이 된다. 따라서 이런 일본 황실 전범 규정을 고려할 때 이왕에 대한 친왕 책봉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조선왕실을 포섭하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영친왕은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됨과 동시에 그해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11세 나이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된다. 이때 고종과 엄황귀비는 황태자가 방학 때마다 본국을 방문할 것을 조건으로 유학을 허락하지만, 영친왕은 이후 엄황귀비가 사망하는 1911년까지 귀국하지 못했다. 1910년 일본과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되면서 왕세자 이은으로 강등됐고, 1926년 이복형 순종이 사망하자 조선 이왕으로 불리게 됐다.

고종은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립되기 전에 민갑완(1897~1967)이란 소녀를 영친왕의 반려로 내정해 이미 약혼예물까지 교환했지만, 일본정부는 조선왕세자의 부인을 일본 여인으로 앉히려 그 약혼을 강제로 파기하고 일본황족인 나시모토궁 수정왕의 맏딸 마사코(이방자)를 영친왕의 약혼녀로 공개했다(1916). 고종은 이에 대단히 분개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역정을 냈으나 무력(無力)한 분노에 불과했다.

1919년 영친왕과 마사코의 결혼식이 예정된 그해에 고종은 돌연 사망하게 돼 다음해인 1920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해인 1921년 첫 아들 진을 낳지만, 1922년 마사코비가 생전 처음 방문한 조선에서 아들 진을 잃었다. 그리고 1931년 둘째 아들 구(1931~2005)를 낳았다.

영친왕은 조선왕실의 재산과 일본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당시 일본 왕족 중에서는 가장 부유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서 영친왕과 마사코비 모두에게 일본왕족의 자격이 박탈돼 재산을 몰수당했다.

영친왕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영친왕의 귀국을 거부했다. 그렇게 고국을 그리다가 1963년 11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주선으로 국적을 회복하고 이방자 여사와 함께 귀국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이동 침대에 누워 겨우 입국할 수 있었다. 그리고 7년 동안 투병 후 1970년 74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비, 이방자 여사는 1989년 4월 30일, 창덕궁 내 낙선재(樂善齋)에서,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녀의 죽음은, 파란 많았던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왕녀로 태어나, 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88년 일생은 이 여사가 평소 즐겨 쓰던 문구처럼 '대공무아(大公無我)'한 것이었다.

1901년, 일본 동경에서 메이지(明治) 가문의 장녀로 태어난 그는, 19세 되던 해, 일본 왕실의 내선일체(內鮮一體) 융합 정책에 따라, 일본에 볼모로 잡혀 온 고종의 아들 이은 왕세자와 정략결혼을 했다.



이방자 여사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낙선재의 가을(위), 유릉에 참배하는 이방자 여사(아래).

### 해방된 조국 돌아오고 싶었던 영친왕 1963년에야 귀국
### 이방자 여사 낙선재 지키며 20여 년간 장애인 봉사 전념

광복 전에는 망국의 한을 되씹는 남편의 동반자로, 광복 후에는 패망한 일본이 남긴 무국적자로, 격랑의 한일 근세사를 헤쳐 나와야 했다. 광복이 되자, 국적도, 왕실의 특권도 상실한 채, 곤궁한 생활을 해 오던 영친왕 부부는 1947년 미 군정하에서 '재일 한국인'이라는 평민 신분으로 격하돼 생활고를 겪었다.

1963년 영친왕과 함께 환국했으나, 1970년 영친왕마저 세상을 떠나자, 홀로 창덕궁 낙선재를 지키며 사망할 때까지 약 20여 년간을 장애자 봉사 활동에 전념했다. 귀국 후 전부터 구상해 왔던 장애인 사업을 추진해 1963년부터 1982년까지 신체장애자재활협의회 부회장직을 맡았다. 1966년 1월 사단법인 자행회(慈行會)를 설립해 정신박약아를 위한 복지사업에 헌신했다.

1967년 11월에는 YMCA에서 빈민돕기사업을 하던 재단법인 보린원(保隣園)을 인수해 농아와 소아마비아를 위한 명휘원(明暉園)을 설립했는데, '명휘(明暉)'는 영왕의 아호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명휘원의 교육기관으로 1978년 명휘회관(明暉會館)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세웠다.

이곳에서 교육받는 불우한 이들의 자립을 위해 일본에서 배웠던 칠보를 만들어 파는 등 헌신했다. 1971년 경기도 수원시 탑동에 자혜학교(慈惠學校)를 설립해 갈 곳이 없는 정박아들을 교육시켰으며, 1973년 자혜학교 여자기숙사도 설립했다.

같은 해 그의 숙원사업이던 영왕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켜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영왕과 왕가의 유물들을 보전하는 데 마지막 사명을 다했다. 이후에도 자행회와 명휘원의 총재직을 계속 맡아 활동했다. 직장암으로 수술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아들 구(玖)와 지내다가 1989년 귀국했으나, 이 해 4월 30일 낙선재에서 죽었다. 이들 부부의 죽음에는 '승하'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왕조가 없는 왕, 왕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생을 '내 조국도, 내가 묻힐 곳도 한국'이라는 신념으로 봉사한 마지막 조선인이었다. 그의 둘째 아들 구씨는 부모님 묘에서 20여m 떨어진 곳에 묻혔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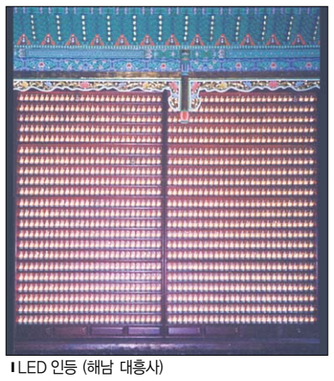

백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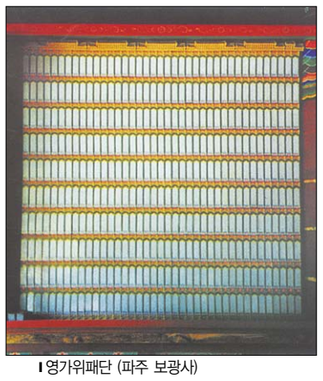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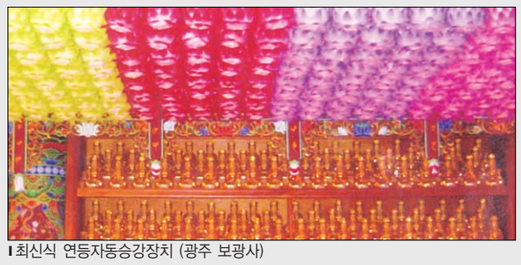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 최신식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최신식 연등자동승강장치 (광주 보광사)


LED 전구 (국내 공장 자체 제작)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 · 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